



unizine

2008 통일교육 웹진

1 월

- | | |
|---|----|
| • 통일칼럼 _ 2008 북핵문제 전망과 새정부의 대외·대북정책 (홍현익) | 09 |
| • 현장에세이 _ 한겨울 추위에도 희망의 씨앗은 자라고 있다 (박지웅) | 12 |
| • 평화열차 _ 처음에서 오는 설렘 (박일권) | 16 |
| • 참여마당 _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소견 (조현기) | 20 |

2 월

- | | |
|--|----|
| • 통일칼럼 _ 2008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 분석과 전망 (허문영) | 25 |
| • 현장에세이 _ 2007년 12월, 평양에서 '희망의 움직임' 을 느끼며... (손지영) | 29 |
| • 평화열차 _ 남포에서의 열흘 (박하진) | 32 |
| • 참여마당 _ 국경선을 말소된 우리의 평화적 상상력을 키우는 놀이터로 삼자 (이다솜) | 35 |

3 월

- | | |
|--|----|
| • 통일칼럼 _ 북한인권정책의 방향과 과제 (서보혁) | 41 |
| • 현장에세이 _ 말의 길을 열어 마음의 통일을 준비하다 (이재규) | 44 |
| • 평화열차 _ 평양에서 보낸 크리스마스 이브 (김동남) | 47 |
| • 참여마당 _ 남북 젊은이에게 영어로 평화교육을 시키는 학원 (이다솜·김은정) | 50 |

4월

- 통일칼럼 _ 새 정부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정상화) 55
- 현장에세이 _ 사인볼과 낙서공 (안정립) 59
- 평화열차 _ 가깝고도 먼 개성 - 평양간 고속도로 (고화섭) 61
- 참여마당 _ 북한아이 꺼안기 (이다솜 · 김은정) 64

5월

- 통일칼럼 _ '균형잡힌 북한 바로알기' 통일교육에 치중해야 (유동열) 69
- 현장에세이 _ 금강산 금천리 밤나무단지 (변재경) 72
- 평화열차 _ 북한 기행 : 예전 모습 그대로... (강석승) 75
- 참여마당 _ 평화네트워크 (이다솜) 79

6월

- 통일칼럼 _ 통일 체험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야 ... (김경웅) 83
 - 현장에세이 _ 평양 양묘장을 다녀와서 ... (변재경) 86
 - 평화열차 _ 7년,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최용석) 89
 - 참여마당 _ 수업에서 찾는 평화 (이다솜) 92
-

7월

- 통일칼럼 _ 사이버 학교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송두록) 99
- 현장에세이 _ 묘향산에서 읽은 마음속 변화 (변재경) 102
- 참여마당 _ 통일로(路) 한 걸음 (김은정) 105

8월

- 통일칼럼 _ 지역통일교육센터와 사이버통일교육 활성화 (황금섭) 111
- 현장에세이 _ 살아있는 통일교육은 DMZ 일원의 현장에서 (장승재) 115
- 평화열차 _ 접경지역을 다녀와서 (정영태) 119
- 참여마당 _ 꿈이 있는 학교 (김은정) 123

9월

- 통일칼럼 _ 통일교육의 저변확대 (최봉수) 129
- 현장에세이 _ 전문가가 바라본 북한은 (이상근) 132
- 평화열차 _ 북한을 다녀와서 - 주차간평양(走車看平壤) - (김광수) 136
- 참여마당 _ 「평화박물관」 이야기 (김은정) 138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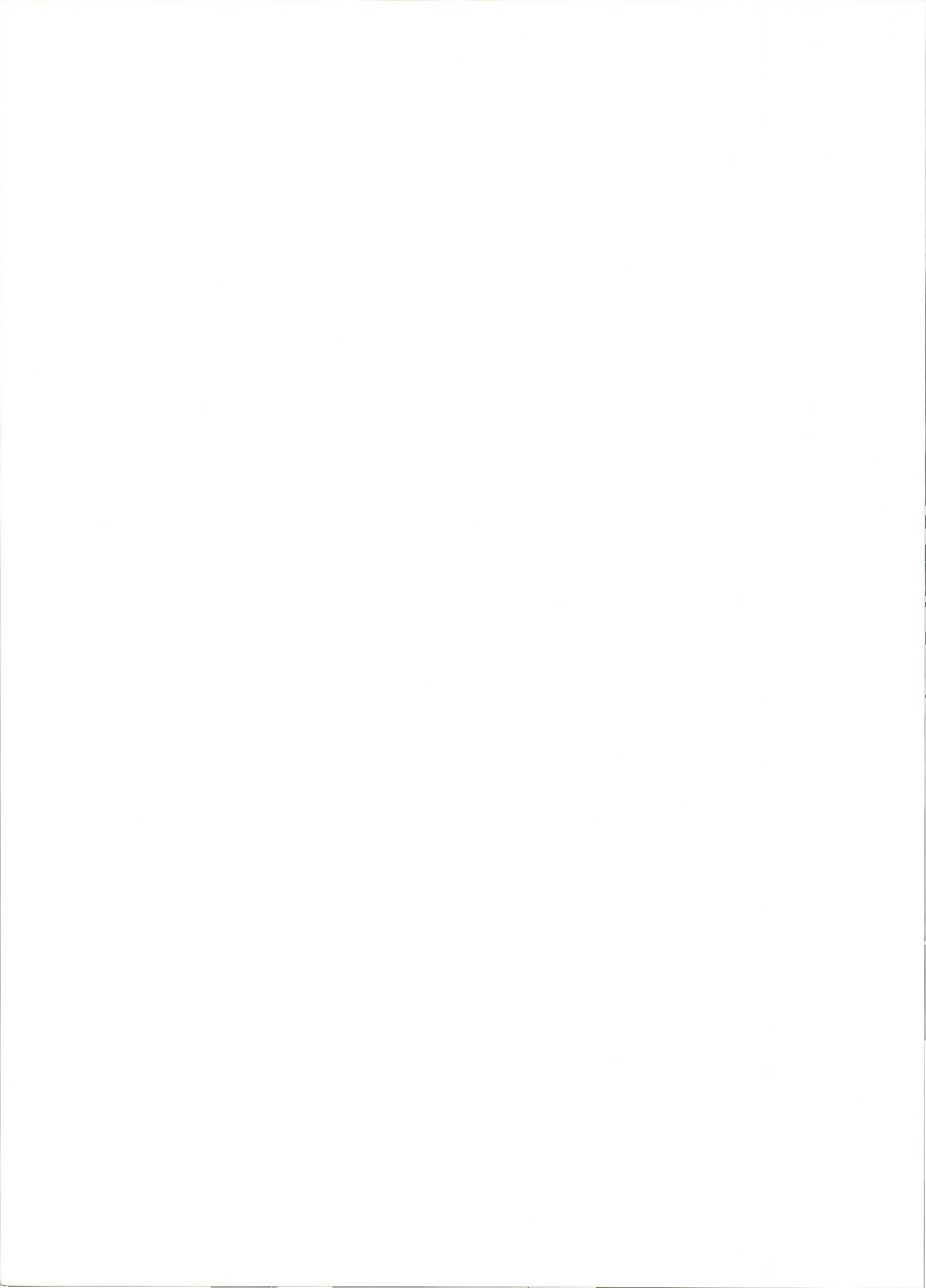
- 통일칼럼 _ 통일교육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이종훈) 143
- 현장에세이 _ 통일교육현장에서..... - 한성여중 CA반의 수업스케치 - (김경민) 147
- 평화열차 _ 전문가의 북한 방문기 (이현주) 152
- 참여마당 _ 여명학교 (김은정) 158

11월

- 통일칼럼 _ 효율적인 사이버(cyber) 통일교육의 실시방향 (윤 황) 163
- 현장에세이 _ 특별한 곳으로의 초대 - 휴전선에 가면 통일이 보인다 (신승호) 166
- 평화열차 _ 인터넷을 통해 통일시대를 대비하자... (이부연) 171
- 참여마당 _ 이화여대 북한학협동과정 10주년 워크숍 (김은정) 174

12월

- 통일칼럼 _ e-통일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송정호) 179
- 현장에세이 _ 통일문제의 법고창신(法古創新)의 혜안을 기다리며 (전영선) 183
- 평화열차 _ 사이버 현장교육 참가기 (임상철) 187
- 참여마당1 _ 통일 시대의 남북 청소년,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기 (김은정) 191
「남북의 청소년」 (청전순, 조정기 지음) 책을 읽고서
- 참여마당2 _ 북한의 이중성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강석승) 194
- 참여마당3 _ 개성공단은 더욱 발전되어야 한다 (이홍열) 196
- 특집기사1 _ 사이버 통일연수 후기 (정기남) 198
- 특집기사2 _ 사이버 통일교육 참가기 (이효선) 202



남북한 교류 협력은
한반도 평화의 초석



- 통일칼럼

- 현장에세이

- 평화열차

- 참여마당





① 2008 북핵문제 전망과 새정부의 대외·대북정책



홍 현 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핵문제 해결과정이 북핵 폐쇄에 이어 2단계 불능화·신고 과정에 들어갔지만 신고 문제에서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포함을 주저하고 있어 고비를 맞고 있다. 그리고 '비핵·개방·3000' 구상을 공약하는 이명박 정부가 2월말 출범 예정이어서 2008년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 지 주목받고 있다. 주요 변수는 북한의 신고가 핵심인 북핵문제의 전개과정과 부시 행정부의 대북협상 기초의 변화 여부 그리고 동맹과 실리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이 될 것이다.

먼저 북핵 문제를 살펴본다. 북한의 핵 시설 불능화는 미국 기술진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어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물론 북한의 현 학봉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12월 26일 6자회담 참가국들의 경제적 보상 의무 이행이 늦어지고 있어 불능화의 속도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문제를 드러냈다. 또한 핵 신고는 UEP의 포함 여부에 대한 북·미간 의견 대립으로 10·3 합의가 예정한 연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이 의혹 해명을 위해 제공한 알루미늄관에서 우라늄 흔적이 나왔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 행정부가 UEP에 대한 명확한 해명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다고 비판할 필요는 없다. 먼저 1년 전과 비교해 볼 때 미국이 대북 강경일변도에서 양자대화를 포함한 대북협상 쪽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한데 힘입어 작년 한해 동안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2006년 10월 핵 실험 직후 북한은 핵탄두 6-8개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을 확보하였을 뿐 아니라 추가 생산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고 2차 핵실험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태였으나, 2·13 합의로 북한 핵 시설이 폐쇄되어 핵물질 추가 생산은 이미 중단되었고 10·3합의로 핵 시설 불능화가 진행 중이다. 현 상태로 핵물질이 추가로 생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에 쫓길 필요도 없다. 단지 현재의 교착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신고는 애초부터 난관이 예상되었다. 북한으로서는 신뢰하기 어려운데다 너무나 강력한 상대인 미국과 최근 적대관계를 고조시켜왔는데 이제 미국을 상대할 거의 유일한 수단인 핵에 대해 고백해야한다니 어려

을 수밖에 없다. 전략적 모호성에서 투명성으로 전환해 자신의 절대무기를 발가벗고 보여주는 것이 쉬울 수가 없다. 2002년 고이즈미 총리에게 납치를 시인하고 피납자를 돌려보냈는데 오히려 일본의 외교공세에 시달려온 경험도 제2의 통 큰 행보를 주저하게 한다. 그간 UEP의 존재를 전면 부인해왔는데 이제 와서 시인한다면 거짓말 정권이라는 오명을 얻게되는 정치적 부담도 크고, 더구나 이 경우 미국 강경파들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거나 보다 엄격한 사찰과 검증을 주장하여 협상 틀 자체를 깰 수도 있음을 우려할 수 있다. 끝으로 6자회담에서 계속 합의되어온 '행동 대 행동' 원칙에서 보더라도 북한의 신고와 불능화가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적어도 45일이 걸리는 이 조치가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고, 중유 및 발전소 개보수 설비 제공도 지연되고 있는 것이 북한의 결단을 늦추고 있다.

물론 부시 대통령이 힐 차관보 편에 친서를 보내기도 하였고, 중국 역시 우다웨이 북핵 대표를 평양에 보냈으며, 라이스 국무장관은 '미국에게 영원한 적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말이나 비공식문서에 불과하고 북한이 바라는 상응한 행동에는 못 미치는 것 같다.

자연스럽게 북한의 약속 불이행과 한국 및 미국정부의 대북 유화책에 대한 비난이 개선되고 있다. 특히 미국 내 국방부, 네오콘과 공화당내 강경파, 그리고 유태계 언론 등은 북한-시리아 핵 협력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에 까다로운 추가 조건을 붙이는 한편 보다 엄격한 사찰·검증·압박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라이스 국무장관 등 미국 인사들이 알루미늄 관 의혹에 대해 함구하면서 "철저하고 정확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원칙론만을 고수하고 있어 현재의 대화 국면을 해치지 않으려는 미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북한 역시 핵시설 불능화에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판이 깨진 것은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년만의 여야 교체로 새 정부는 대외·대북정책에서 정책 기조를 균형과 자주에서 동맹 강화와 국익 증진을 위한 실용으로 전환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특히 대북정책의 핵심 공약인 '비핵·개방·3000' 구상이 주목받고 있다. 이 구상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문호를 개방할 경우 한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인 대북지원에 나서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내에 3천 달러로 높여주겠다는 것으로 보수 진영의 대북 기조인 상호주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한반도 평화와 북한경제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구상은 북한이 성실하게 핵 신고를 이행하고 핵 폐기로 나간다면 순조롭게 펼쳐질 것이지만, 현재처럼 신고문제에서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대처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단지 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로 신뢰 회복과 가치 공유에 입각한 한·미 동맹 재정립·강화가 명확히 천명된 점을 감안하면, 2월말 이후 한국 신정부의 대북정책은 참여정부보다 미국의 견해를 더 중시할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게 할 뿐이다. 따라서 현재의 북·미간 교착상태가 지속될 경우 부시 행정부가 네오콘 등 대북 강경파의 대북 정책 강경기조 전환 압박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냐에 따라 북핵문제의 향방이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성실한 신고를 주저하는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는 합리적인 정책인가? 물론 북한이 이에 굴복할 가능성이 크다면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북한의 '벼랑끝 전술' 재채택으로 상황이 핵 실험 직후 상태로 악화할 가능성이 더 크며 그 경우 한·미 양국은 심각한 전략적 곤경에 처할 것이다. 따라서 해답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북한 정권이 예쁘거나 두려워서가 아니라 북한 정권을 잘 관리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및 안정을 복원하기 위해 추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한·미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북한에게 약속한 중유 및 발전소 자재를 제 때에 제공하기 위해 가속하는 한편 라이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부시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성실한 핵 신고서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를 천명하는 것이 현명하다. 한·미 양측 지도자들이 대북 정치적 보장을 강화하는 가운데 외교관들은 북·미 양국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신고에서의 타협점을 신속히 찾아내는 것이 6자회담 당사국 모두의 국익에 부합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길이다.



한편 이명박 당선자가 북한에게 해야 할 말은 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데 맞추어 대북 경협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간에 이루어진 많은 합의사항의 이행 여부나 남북관계의 장래가 불확실해졌다. 새정부가 국군포로·피납자 송환에 주력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하여 시대정신과 세계 기준에 맞는 대응을 강화하더라도 이러한 정책 변화가 유무상통에 입각한 개성공단, 경공업 원자재·지하자원 협력 등 호혜적인 민간차원의 남북 경협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연하고 창의적이며 현명하게 조율되어야 할 것이다.

실용주의 외교는 무엇보다 정책 평가의 기준을 한국의 국익에 두어야 한다. 이를테면 북한 정권에게 하나의 이득을 주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둘 이상의 이득을 준다면 추진할만한 것이다. 또한 북한에게 하나 정도의 피해를 주더라도 우리에게 그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면 그런 정책은 취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 정권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 의거하기보다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국민의 재정 부담을 지우는 남북 경협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해지더라도 남북 경협을 시행중인 민간기업들의 사유재산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증진시키면서 이를 통해 대북 영향력 수단을 확보하는 동시에 북한을 자연스럽게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어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실용적 대북정책이 나아갈 방향이다.



① 한겨울 추위에도 희망의 씨앗은 자라고 있다

- 평양, 중화군 양묘장 건설현장을 다녀와서



박 지 웅 (민화협 기획관리팀 간사)

2007년 12월 13일 인천공항을 아침 9시에 출발하여 평양 순안공항에 오후 5시에 도착하기까지 무려 8시간이 걸렸다. 서울에서 겨우 200여 km 떨어진 평양이 정말 멀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민화협에 들어와서 5개월 동안 금강산, 개성 등지에서 실무접촉 경험이 있었으나 평양은 첫 방문이기에 큰 기대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첫날부터 이동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했고, 전날 기대감에 밤잠을 설친 것과 출발 전날까지 아직 못 끝낸 일들을 처리하느라 힘이 들었던 것도 피로를 더욱 크게 느끼게 했을 것이다. 고려항공의 비좁은 자리에 앉아서도 계속 졸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상황이 내게 벌어지다니, 그것도 이전부터 꿈꿔오던 평양방문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정말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첫 발걸음 그리고 떨림

북경공항을 출발하면서 내내 깊은 잠에 빠져있던 나는 기내 방송을 들으며 깨어났다. 바로 비행기가 지금 압록강을 넘어가고 있다는 방송이었다. 통로 쪽 좌석에 앉았던 터라 창밖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지만, 그런 내 심정을 이해하듯이 비행기는 좌우로 선회하며 날기 시작했고, 압록강의 모습을 창밖으로 볼 수 있었다. 석양이 비추는 압록강의 모습은 육지에서 보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잠깐동안 여운을 즐기는 사이 비행기는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면서 평양에서 5박 6일간의 일정이 시작되었다. 북한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평소 사진으로 많이 봐온 모습이었지만 실제로 본 순안공항은 조그만 시골 공항 같은 느낌이었다. 그래도 평양 땅에 도착했다는 기쁨에 재빠르게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그런 내 기분을 이해했는지 비행기와 공항 사이를 운행하는 셔틀버스 기사님이 내가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그 전에 멈춰주는 센스를 보여 주셨다. 옆에 있던 같은 일행분(총 7명, 실무3, 기술4)들도 “평양에 처음 오는 건지 알았나 보다”며 놀라워 하셨다.

버스에 옮겨 타고 검색대를 통과하는 순간에는 처음 금강산을 방문하던 2001년과 같이 떨림이 멈추질 않았

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아마도 기대감과 설렘 때문인 것 같다. 공항을 빠져나와 북측 안내 선생님들과 조우하는 순간에도 그런 떨림은 멈추질 않았고, 소개를 모두 마친 후 우리가 방북기간동안 이용할 차량에 올라타야 겨우 진정이 되었다. 평양으로 오는 30여분 간 창밖을 연신 두리번거리는 나를 보며 북측 안내 선생 중 한분이 “박선생, 평양에 온 느낌이 어떠냐”고 물어봤고,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이 대답은 사실 평양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계속되었다. 처음 왔음에도 처음 온 것 같지 않은 느낌이라고 할까?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고 할까? 아무튼 다시 한국에 돌아 와서야 그 느낌을 조금씩 정리할 수 있었다. 벌써 어둠이 깔리는 평양 거리를 바라보며 내가 지나는 길이 어떤 길인지 기억하려 애쓰며, 개선문, 천리마 동상, 만수대 언덕을 거쳐 숙소인 양각도 호텔에 도착하였다.

여전히 문제는 계속되고...

기술진 분들은 방으로 올라가고 실무진들은 남아서 북측 안내 선생들과 전체 일정에 관한 협의에 들어갔다. 북측과의 협력사업이 언제나 그러하듯 이번에도 문제가 발생하였다. 원래 우리가 사전답사를 했던 양묘장은 자체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더 필요한 중화군 쪽으로 사업지를 바꾸었다는 것이었다. 사실이 부분은 남쪽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던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이해하고 넘어갔다. 그런데 문제는 또 남아 있었다. 남쪽에서 12월 4일 보낸 물자가 우리가 평양에 도착한 날 현장에 도착해 이제야 노동자들이 물자를 정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원래 논의되었던 계획은 우리가 제공한 물자로 북측에서 기초공사를 마무리하면, 남측 기술자들이 북측과 함께 양묘장 관리동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었는데, 자재가 늦게 도착하면서 기초공사를 시작도 못한 것이었다. 더군다나 내일 저녁 평양지역에 눈까지 내린다는 예보가 있었다고 한다. 어려움이 예상되는 순간이었다. 북측에서는 정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 하지 않았고, 우리는 이미 사전답사를 마쳤고, 기술진들과 함께 공사를 하러 들어온 것이므로 기초공사라도 같이 진행하겠다고 주장하며 한동안 논쟁이 계속되었다. 결국 북측에서 한발 물러나 내일 아침 연락을 해보고 될 수 있으면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한 후에야 우리는 환영만찬이 열리는 곳으로 향할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 변경된 사업지인 중화군 양묘장을 향해 떠났다. 중화군 양묘장은 평양시 중화군에 위치한 양묘장으로 시내에서 20여분 떨어져 있는 곳이며, 인근에 동명왕릉이 위치하고 있다. 전체 사업지가 198정보에 이르며, 산림용 수종과 원림용 수종을 함께 생산하는 평양인근 최대의 양묘장이다. 현장에 도착하자 북측 지배인이 나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접대실로 이동하여 중화군 양묘장에 관한 개괄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우리가 보낸 관리동 공사 자재를 점검하였으며, 관리동 공사에 필요한 기술적 지도와 기초공사를 위한 작업을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기대했던 것에는 못 미치지만 공사를 아예 시작도 못한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하면서 북측에서 준비한 장국에 호텔에서 싸준 도시락을 맛있게 먹고, 오후



까지 북측 노동자에게 기술 지도를 진행하고 호텔로 돌아왔다. 다행히 양묘장 지배인과 일군들의 열성도 높고, 기술적인 부분 역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서 많은 부분을 진행할 수 있었다. 북측과의 교류협력 사업은 상시적으로 예상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남과 북의 사업체계가 다르기도 하고,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기도 하기 때문이겠지만, 아무튼 조금 실망스러웠던 것도 사실이다. 다행히 이번 방문은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대비를 어느 정도 준비하고 간 것이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래도 산림녹화 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북한은 전체 국토면적(1,200만ha) 중 약 80%가 산지이며, 해발 2,000m 이상 되는 산만해도 60여개나 되는 등 풍부한 자연자원과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식량증산을 위한 다락밭 개간, 에너지난에 따른 무분별한 벌채, 외화획득을 위한 무차별적 벌채와 수출, 그리고 산불과 병충해 피해 등으로 이미 북한의 산림은 황폐화 되어 있다. 이러한 산림의 황폐화는 매년 북한 지역에 수해를 양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농업생산성이 더욱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공위성을 통해 관측한 자료를 보면 현재 북한의 산림 중 조림이 시급한 황폐지역은 160만ha에 이른다고 한다. 다행히 1990년대 후반부터는 북한 내에서도 조림과 산지 복구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산림조성 10개년 계획을 설정하고 국제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우리가 방문한 중화군 양묘장은 작년에 진행되었던 순안구역 6.15통일양묘장과 같이 12ha 규모로 양묘장을 조성해 노지양묘와 온실양묘를 병행하고자 하는데, 북측에서는 부지와 함께 우수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남측에서는 설비와 자재, 종자, 기술인력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양묘는 거의 노지 양묘이며, 이는 중화군 양묘장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온실을 통한 집약적 양묘를 실현하여 많은 양의 고품질 묘목을 과학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묘목이 과잉 공급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남측의 기술력이 북측에도 전해져서 현재 북한의 평양, 금강산, 개풍군 등에 설치하여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양묘장이 조성되고 해마다 파종과 이식을 거듭하면서 양묘장 전체를 활용하게 되는 4년차가 되면 매년 약 150만본의 묘목을 생산할 수 있게 되며, 이런 규모의 양묘장 10개를 조성한다면 해마다 1,500만본의 묘목을 생산해 연간 5,000ha의 산림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2007년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남북총리회담과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린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합의되었듯이 올해부터는 정부차원에서 산림녹화 및 병충해 방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북측과 협력하기로 하였다. 늦게 시작되긴 하였지만 이제까지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던 것보다 질적, 양적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 본다. 다만 한 가지 염려스러운 점은 이미 민간차원에서 축적된 사업 내용을 무시하고 새로이 정부차원에서 산림녹화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이는 시간, 돈, 자원의 낭비가 될 것이다. 북한 산림녹화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존 민간차원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살려 더욱 규모 있게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녘 산림을 살리는 것은 북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상생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남과 북이 힘을 합쳐 만들어 나가는 민족사적 과제일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 국제사회의 모든 일원들은 기후변화협약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에 따라 의무적으로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유력한 방안 중의 하나가 이산화탄소 감소를 위해 나무를 심는 일이다. 북측에 더욱 많은 나무가 필요한 상황과 맞아 떨어지는 국제적인 흐름인 것이다.

이번 방북은 내게 있어서 첫 평양 방문이라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남북간 민간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교류협력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남과 북의 기술자들이 함께 작업을 하는 곳에 직접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더욱 크게 마음에 다가왔다. 앞으로도 북측 지역에 더욱 많은 양묘장을 건설하고, 더 나아가 남과 북이 힘을 합쳐 한반도를 푸르게 가꾸어 나갔으면 좋겠다.



① 처음에서 오는 설렘

박 일 권 (통일부 교역지원과 주무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 만수산 드렁침이 얽어진들 어떠하리 / 우리도 이같이 얽어져 백 년까지
누리리라 - 이방원(조선 태조 이성계의 5남, 후에 태종)

이몸이 죽고죽어 일백 번 고쳐죽어 /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없고 / 임 향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랴 - 정몽주(고려말 충신)

학창시절 국어교과서에서 시험에 꼭 나오는 詩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난다.

2007년 12월 5일은 고려의 도읍지로서 인삼과 정몽주로 유명한 개성관광이 처음 시작되는 날이었다. 그 역
사적인 순간에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스럽고 설레는 마음이 교차했다.

‘처음’이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설레는 것 같다. ‘첫사랑’, ‘첫 직장’, ‘첫 월급’ 등. 처음이어서 그랬을
까? 밤잠을 설치다 겨우 잠들 때 째 알람소리가 울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준비하고 출발해야 할 시간이
다. 두 시간 남짓밖에 자지 않았는데도 피곤하지가 않았다.



새벽 5시 반 우리 일행을 태운 버스가 드디어 출발해서 <자유로>를 시
원하게 달렸다. 한시간 정도 걸렸을까? 왠지 모를 긴장감과 기대감에
사로잡혀 이런저런 상상을 하다보니 어느덧 도라산 출입사무소에 도착
했다.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치고 오전 8시 군사분계선을 통과 북측
출입사무소에 도착하여 북측 안내원을 태우고 나니 비로소 본격적인
개성관광을 시작할 준비가 끝났다.

북측 출입사무소를 출발하여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개성의 첫 번째 기차역인 ‘판문역’이었다. 남측의
도라산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허름한, 과거 시골에서 볼 수 있었던 간이역 수준이었다. <그렇게 허름하
게 봤던 ‘판문점역’이 일주일 뒤인 12월 11일 남북한 화물열차 개통식 때 다시 보니 많이 세련되게 바뀌었다.>

'판문역'을 지나 개성공업지구를 거쳐 개성 시내로 들어섰다. 북측 주민들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남측 관광객들은 창밖으로 신기한 듯이 내다봤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금강산 관광을 하다 북측 주민들을 보고 '어? 우리랑 똑같이 생겼네?'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났다.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는 제법 사람들이 있었다. 리발소, 백화점, 극장 등 상점들도 보였고, 체제를 찬양하며 선동하는 붉고 크게 새겨진 구호들도 지나쳤다.

"저 붉은 글씨들도 곧 지워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얼핏 스쳐 지나갔다.

과거 금강산 관광 초기에는 금강산 지역에도 붉은 글씨들이 있었다. 지금도 자국은 남아있긴 하지만 붉은색은 모두 지웠다. 개성도 남측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남측에 보다 널리 알려지게 된다면 점차 지워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개성시내를 지나 외곽 길을 가면서 북측 안내원의 설명이 시작되었다. 개성의 명물인 인삼을 소재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담을 이야기해주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지내 못생긴 처녀가 살았는데, 시집갈 나이가 되어도 못 생겨 노니까 도통 남자들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로 시작된 이야기는 산신령의 가르침을 받아 개성인삼을 먹고 어여쁘게 되어 남자들을 골라서 시집갈 수 있었다며 마무리하였다. 개성의 명물인 인삼을 활용한 이야기를 온갖 수식어를 붙여 설명하는 북측 안내원의 말씀씨에 우리 남측 관광객들은 감탄했다. 뒤에서 어떤 중년의 여성이 "그 인삼 살 시간 있지요?" 하며 관심을 표현하자 그 앞의 남성이 "열 뿌리 사다가 마누라 먹어야지" 하고 받아치는 통에 버스를 운전하시는 기사 분까지 모두 큰 웃음을 터트렸다. 북측 안내원을 보고 처음에는 다소 긴장한 듯 보이던 관광객들도 한바탕 웃음을 계기로 보다 친근감 있고 간혹 농담도 주고받으며 한층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이동할 수 있었다.

그 후로도 개성인삼에 얽힌 이야기는 두 편을 더 들었다. 그러다보니 어느새 박연폭포 입구까지 왔다. 이른바 '송도삼절' 중 하나인 박연폭포를 처음 본 순간 과연 개성 최고의 명물이라 생각되었다. 쌀쌀한 날씨의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가는 물줄기지만 힘차게 쏟아져 내리는 폭포는 남측에 두고 온 일거리를 비롯한 온갖 근심과 걱정들을 모두 잊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북측 안내원은 여름이면 더욱 장관이라고 하면서 여름에 꼭 다시 한번 오라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폭포의 높이나 그것을 이루고 있는 기암절벽의 희귀함을 보니 설악산의 대승폭포나 금강산의 구룡폭포와 더불어 과연 조선의 3대 폭포라 할 수 있겠다. 우아하면서도 강인함이 느껴지는 자태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잠시 '멍~' 하게 만들었다. 대다수 사람들이 셔터를 누르기에 바빴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은 녀를 놓고 폭포만 바라보기도 했다.

박연폭포를 모두 관람한 후 약 20분 정도 대흥산성 복문을 통해 올라가 관음사 대웅전으로 이동했다. 보통 사람들이 여느 사찰에 가서 대웅전을 관람하면, 그것의 웅장함 또는 단아함을 기억할 테고, 혹은 그곳에 보

관중인 문화재를 기억할 텐데 관음사는 달랐다. 북측 안내원이 확성기를 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다. 기자들과 초청 인사들을 비롯한 일반 관광객들은 모두 관음사의 주지스님 앞으로 모여들어있었다. 얼마 안되지만 지금까지 봤던 북측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말솜씨와 임기응변 능력, 그리고 수려한 외모는 과연 관광객들이 그 앞으로 모여들만 했다. 덕분에 안내원들은 뜻하지 않은 휴식을 취했고, 남측 관광객들은 감탄사를 연신 내뿜었다. 시간이 되어 관음사를 내려가야 하는 순간에도 주지스님은 "사계절 모두 와야 박연폭포와 관음사의 절경을 봤다고 어디 가서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으니 봄에 또 와야 한다."는 재치 있는 인사도 잊지 않았다.

박연폭포와 관음사 관람을 끝으로 오전 일정이 마무리되고 드디어 점심시간이 되었다. 아침도 굶고 오전 내내 걸어서인지 배가 많이 고팠다. 오찬장소인 통일관으로 이동 중에 굶주림이 미식가라고 친구들과 주고받던 농담이 생각났다. 당시 상황에서는 뭘 먹어도 다 맛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그날 점심은 달랐다. 이것은 내가 배고팠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본래 맛과 정성이 담겨있는 음식들이었다. 난생 처음 '13첩 반상기'라는 식사를 했는데, 종류는 남측의 한정식집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무엇인가 미묘하면서 말이나 글로 설명할 수 없는 오묘한 맛이 느껴졌다. 북측 인사와 함께 자리를 해서 들쭉술을 반주삼아 담소를 나누며 즐기는 식사시간은 '행복'했다. 얼마 만에 느끼는 점심의 맛과 점심시간의 여유였던가?

즐거운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오후관광일정인 송양서원으로 향했다. 정몽주의 집터이자 개성의 삼절 중 하나인 서경덕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문충당이 자리 잡은 곳이다. 오전에 관람한 박연폭포와 관음사가 감탄사를 자아내게 했다면, 송양서원은 뭔가 엄숙하면서 근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고귀한 인품의 소유자인 정몽주와 서경덕의 혼이 담긴 장소이기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두 엄숙한 분위기에서 관람이 이루어졌다.

송양서원에서 10분정도 차로 이동하니 드디어 선죽교가 나왔다. 지난밤 나를 잠 못 들게 만들고, 오늘을 기다리게 했던 바로 그 선죽교. 물론 지금의 선죽교는 사람들이 왕래하지 못하게 돌기둥으로 막아두었지만, 그 혈흔은 확인할 수 있었다. 어려서부터 "정말 핏자국이 아직 남아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말 남아있었다. 그 옆에는 한석봉이 썼다는 선죽교 비석이 세워져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그 비석 옆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줄을 섰다. 선죽교 자체보다 그 비석이 더욱 인기가 있어,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었지만, 정몽주와 이방원이 시를 주고받던 그림과 정몽주가 살해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차분히 선죽교를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었다.



선죽교 관람 후 또다시 버스에 올라타 10분 정도를 이동하니 오늘의 마지막 관람장소인 고려박물관에 도착을 하였다. 고려시대 성균관의 건물과 부지를 이용했다는 고려박물관에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를 비롯하여 십

여점의 고려청자 등 국보급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선조들의 훌륭한 솜씨가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사실에 놀랍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있는 그대로 보존을 하려 했던 것일까? 안전장치가 내 기준에는 부실해보였다. 이 또한 어쩌면 남측의 어느 박물관처럼 공공 숨겨두고 온갖 보안 및 안전장치와 '손대지 마시오' '이 선 이상 넘어오지 마시오' '올라가지 마시오' 등 '하지마' 관람에 익숙해진 것 일 수도 있겠다. 어찌되었든 북측의 박물관에는 '하지마'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었다. 나중에 남측 관광객들이 물리게 되면 서로 밀치다가 소중한 문화유산이 손상되지는 않을까 걱정됐다.

고려박물관 관람을 마친 시간이 오후 4시정도 되었다. 이제는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 관광객들은 저마다 기념품을 하나씩 손에 들고 오늘의 모든 관광일정을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라탔다. 개성에 올 때와 마찬가지로 출입경 수속을 마친 후 다시 자유로를 달렸다. 그때서야 피곤함이 몰려와 눈이 감겼다. 눈을 감고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되돌아 봤다. 박연폭포와 관음사, 13첩 반상기, 송양서원과 선죽교, 그리고 고려박물관. 하루 동안에 정말 많은 곳을 감상한 것 같았다. 밤잠을 설치고 이른 새벽부터 일어난 보람이 있었다.

오늘 개성관광을 압축하자면 '처음에서 오는 설렘'이라 표현하고 싶다. 피곤했지만, 처음이라는 설렘으로 즐겁게 관광을 마칠 수 있었다. 오늘 보지 못한 영통사와 왕건왕릉 등은 다음을 위해 작은 아쉬움으로 남겨두기로 한다.

혹시라도 개성관광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마디를 꼭 해주고 싶다. 가슴으로 느끼고 돌아오라고. 그곳이 북측이라는 생각에서 오는 거부감 또는 선입견은 잠시 잊어버리고 빼어난 경치와 훌륭한 문화유산들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것이 우리 선조들이 가꾸어 놓은 자연과 문화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다.



☞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소견

조 현 기 (이천제일고 교사)

2007년 8월,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세 번째로 금강산을 관광한 적이 있다.

2003년에 첫 번째로 방문한 이후, 2005년과 2007년에 다시 찾았으니까 2년 주기로 방문한 것이다. 2003년 처음 금강산을 찾았을 때는 다소 두렵고 긴장된 마음이었었는데, 2007년 방북 때는 남쪽의 여느 지역을 관광하는 것처럼 편안하고 여유로운 마음이었다.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는 등, 온정리 일대의 모습이 계속 변화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달라진 것은 북측의 분위기였다. 2003년만 해도 곳곳에서 냉랭한 분위기를 쉬 느낄 수 있었는데, 4년이 지난 금년 여행에서는 그런 기운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부드러워지고, 거리감이 거의 없음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이다.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지도 오래 되었고, 그동안 많은 수의 남쪽 관광객들이 북쪽을 방문하였다. 초기에 배를 이용하여 금강산을 찾았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 때는 분위기가 매우 살벌하고, 북측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는 것조차 어려웠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아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실로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는 대화와 갈등을 거듭했던 시행착오의 과정이었다. 즉 갈등의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점차 대화의 과정이 확대되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나아가 탈냉전의 여파는 남북관계가 통일 지향의 남북관계로 변화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진전에 있어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통일을 향해 더 순조롭게,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물길을 잡아주는 일이 될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는 대내외적으로 정치적 환경이 급변하여 왔으며, 그 동안 남북관계를 규정했던 패러다임도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지난 해 북한의 핵실험으로 급속히 냉각되었던 남북관계도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의 2차 방북으로 한결 부드러워진 게 사실이다.

이제는 북한에 대한 기존의 인식 체계도 새로이 정립되어야 할 시점에 있으며, 그에 따라 새삼 북한 바로 알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 북한을 정확히 알기는 매우 어렵다. 그것은 아마도 북한이라는 존재가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유동적인 실체라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문제점 때문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아직도 우리에게 낯선 미지의 대상이며, 그래서 객관적 이해보다는 주관적 인식과 판단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이에 '북한 바로 알기'의 문제도 북한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의 문제로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들이 정책의 혼선 속에서 끊임없이 비판과 반론의 대상이 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던 이유도 상당한 정도로는 정책의 결정에 앞서 북한 인식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기에 기인한다. 북한 인식의 문제는 또한 국내의 다양한 모든 세력 간의 체제 내적 통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 간의 해묵은 사회·정치적 갈등을 해소하여 통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현재 남한과 북한은 최근의 혁명적 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의 전망, 그리고 대북 정책의 방향 등을 둘러싸고 고민 중에 있다. 그래서 만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한다면 최근 남북 관계의 개선은 자칫 축복이 아닌 재앙으로 다가올지도 모른다.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에 못지않게 남북대화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2007년 10월 제2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변화에 거는 기대는 크다. 정상회담은 외부의 간섭 없이 남과 북이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지금껏 정부는 이런 설득 작업을 게을리 했고, 그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차제에 정상회담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좀 더 장기적이고 포용력 있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남북의 상호 협력은 많은 분야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회담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할 부분은 사심 없이 협력하는 것이 옳다.



통일은 누적된 불신감과 적대감정을 해소해 나가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동질성을 높여 나가고 화합하기 힘든 요소들을 줄이거나 제거해 나가는 긴 통합과정이다. 남북한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북한의 변화가 필연적이고 멀지 않았다는 판단과 신념 하에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고 공존·공영을 추구하면서 안으로 민주화와 경제건설에 진력한다면, 통일의 기반은 그만큼 공고해지고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북한 소모적인 정치·선전전을 지양하고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교류·협력하는 가운데 서서히 통일을 도모하는 인내와 지혜 및 의지를 필요로 한다. 민족의 지상과업인 한반도 통일문제는 정권과 지도층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단순히 당위성이나 신화의 차원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정치·심리적 선전물로 전락해서는 더욱 안 될 것이다. 통일목표달성은 우리 민족 모두의 절실한 염원인 동시에 외면할 수 없는 임무이며 생존 및 발전과 직결된 문제이다.

모든 불리한 주변여건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통일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핵심적인 관건은 남북대화 및 교류의 실질적 진전에 달려 있다고 보인다. 남북경협을 활성화시켜 남북교류의 실질적인 진전을 유도함에 있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인내심을 갖고 노력하는 가운데 통일환경·여건의 점진적인 개선과 함께 통일실현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남북관계에는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수 없이 잠복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과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남북한 일반 주민들의 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금강산이 개방된 짧은 기간 동안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변화를 가져 온 것처럼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통일의 길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는 희망적인 확신을 가져본다.

2



- 통일칼럼

- 현장에세이

- 평화열차

- 참여마당





2008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 분석과 전망



허 문 영

(통일연구원

평화기획연구실장)

2008년은 남북한 모두에게 정부수립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남한 이명박 신정부가 출범(2.25)하는 해이고, 러시아(3.2)와 미국(11.4)의 새 대통령을 뽑는 해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미·러 3국 지도부가 교체되는 가운데 2007년에 내부정비를 마친 중국 후진타오 체제 및 일본 후쿠다 체제의 등장으로 동북아질서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과연 핵을 포기하는 대신 체제안보와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고 할 것인가? 또한 남한 신정부와 의 대화에 적극 나서며, 나아가 개혁·개방정책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는가? 북한은 금년에도 변함없이 “공화국창건 60돐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 내이자”라는 제목으로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3개신문의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다. 2008년 신년공동사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체제방어적 성격이 강하다. 2008년 북한이 추진할 정책방향을 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은 핵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정의 보장과 경제적 지원 등을 확보하려 하기 때문에 핵 억제력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체제결속과 ‘10·4선언’ 이행을 통한 경제난 해소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핵정책 : 핵 억제력 유지와 선 미국 조치, 후 북한 이행 고수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선군정치의 업적이자, 나아가 정의의 위업으로까지 평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정치·군사 강국의 위력을 천백배로 다질 것을 강조하면서 경제건설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선군정치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 이는 김정일 정권의 토대를 허무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다. 한편, 2008년 미 대통령선거에서 주요 관심사는 외교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다. 외교 분야에서도 북핵문제보다 이라크·이란·팔레스타인 등 중동문제

에서 외교적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이런 미국 부시행정부의 태도를 예의주시하면서, 핵신고 문제에 있어 버티고 있는 양상이다. 따라서 북핵문제 해결과정은 10·3합의에도 불구하고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내정책 : '수령결사옹위'와 체제결속 강조

대내정책과 관련하여 북한은 2007년에 '경제강국' 건설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였던 것과 달리 2008년에는 '정치사상적 위력' 강화- '군사적 위력' 강화- '경제강국' 건설 순으로 강조하고 있다. '공화국 창건 60돐'을 맞아 김정일 정권의 강화를 위해 경제회복과 함께 정치·사상노선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선군사상', '군사중시' 등의 표어와 더불어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에서 엿볼 수 있다. 이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완화되기 시작해서 2007년 10월 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더욱 흐트러진 체제정통성 및 사회적 규율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이념 및 제도적 통제장치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따라서 체제통제와 단속차원에서 중간검열 총화, 중앙검찰 총화 등 간부들에 대한 처벌을 통해 군과 민의 불만확대를 방지할 것이며, 국경지대에 대한 단속 강화, 불법 녹화물 및 선전물, 핸드폰 및 시장 장사 등 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한 통제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군사부문에서도 물리적 군사역량 강화보다 정신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전투역량 강화'를 우선적으로 강조할 것이며, '수령보위' 중심의 사상교육 및 정치 행사가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한편 경제부문이 비록 우선순위에서는 밀렸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전선'은 '강성대국 건설의 주공전선'으로 설정됐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인민생활제일주의'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북한경제의 근본적 문제 가운데 하나인 식량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현시기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과업은 없다"고 북한당국도 인정하고 있다. 결국 이런 상황 가운데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2012년(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강성대국 달성의 해'로 설정한 전국지식인대회(2007.11.30) 결의를 다시 장기비전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희망적인 것은 비록 서방국가가 원하는 개혁개방은 아닐지라도, 북한당국이 북한식 개혁개방 또는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년공동사설에서 '개건·실용·개방'의 원칙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북한은 정권수립 60주년을 맞아 '수령결사옹위' 체제강화를 위해 정치사상·군사적 체제결속조치에 역점을 두면서 경제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바, 전체적으로 볼 때 2008년 대내정책은 체제방어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남정책 : 先 관망 및 10·4 선언 이행강조, 後 경험 적극 호응 및 군사대화 자제

대남부문에 있어 북한은 2007년을 “조국통일의 길에 획기적인 국면이 열린 해”로, 10·4 선언을 “6·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강령”으로 규정하고, 이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평화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반보수 대연합’, ‘반한나라당 투쟁강화’ 등과 같은 주장을 크게 완화하였다. 나아가 ‘민족자주·반전평화·통일애국’ 또는 ‘자주통일·반전평화·민족대단합’ 등의 구호는 아예 삭제하였다. 대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가자”는 구호와 ‘민족공조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경제난을 해소하고, 대미 핵협상에서 배후기지를 만들어 놓는데 있어 남한이 매우 필요하다는 전략적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0·4선언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를 잘 만들어 놓는 것은 경제적 ‘실리 민족공조’, 외교적 ‘대미 민족공조’ 나아가 정치적 ‘통일 민족공조’에 모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작년 11월부터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을 자제한 북한으로서는 적어도 이명박 정부의 공식적 취임사(2.25)와 대북정책 기조가 나올 때 까지는 관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남북총리회담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진정성을 확인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2008년 북핵문제 해결과정 및 10·4선언 이행과정이 북한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북한은 대남관계에서 통일전선사업을 강화하여 반미 및 내부분열을 조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일로 나아가는 시대적 흐름에 등을 돌려대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는 친미사대와 매국 배족행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난을 푸는 것이 절박한 북한당국으로서는 남한의 기업, 지자체, 시민단체 및 종교NGO와의 경제협력사업과 인도지원사업 그리고 사회문화교류협력은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다.

요컨대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북핵폐기와 상호주의를 촉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발하지 않을 것이나, 한·미·일 동맹강화를 통해 김정일정권의 붕괴를 유도하려는 모습을 보여줄 때는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외정책 : 실리에 기초한 친선외교 강화 및 대미 협상기반 구축

대외관계에서 2008년 북한은 “자주·평화·친선의 기치를 높이 들고 …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켜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는 2007년 “진보적 인민들과의 국제적 연대성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주장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진영외교(중국 등)에 치중하기 보다는 실리에 기초한 친선외교(EU,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러시아, 나아가 일본 및 미국)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경제난 속에 대미 협상과정을 원만히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과 협력을 받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대미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는 정치적 기반을 만들 수 있는 나라들이 필요하다. 특히 EU의 정치·경제적 능력과 베트남의 개혁·개방(도이모이) 및 대미 관계

정상화경험은 북한으로서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

한편 북한이 대미관계에서 4대조건(적대시정책 중단, 평화협정체결, 합동군사연습 저지, 미군기지 철폐)을 내세운 것은 향후 북핵문제 해결과정과 대미 수교협상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북미 협상이 결렬될 때, 북한은 이 같은 근본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면서 미국에게 모든 책임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요컨대 북한은 '자주·평화·친선'을 강조하면서 체제방어에 주력할 것이고, 실리 확보차원에서 EU, 베트남 등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국가들과의 관계를 확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볼 때, 2008년 북한은 정권 수립 60주년을 맞이하여 김정일정권의 체제강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핵카드를 활용하여 대미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한편, 대외관계에서 실리외교를 기반으로 대서방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대남관계에서는 10·4선언 이행을 통해 경제난 해소를 추구할 것이며, 대내부문에서는 2012년 강성대국 달성의 해를 강조하며 수령결사옹위의 체제결속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2007년 12월, 평양에서 '희망의 움직임'을 느끼며...



손 지 영

(나눔인터내셔널 과장)

2007년 초 입사한 뒤 12월(12.12-18)까지, 총 6번 방북을 했다. 이제는 제법 익숙해질 만도 한데, 아직도 방북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긴장감을 느끼곤 한다. 게다가 이번에는 우리단체를 대표하여 방문하게 되니 부담감까지 더해졌다.

이번 방북은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외래종합진료소에 의료장비(레이저치료기)와 비뇨기과 전문병원에 의료장비용 전원장치(UPS)를 설치하여 잘 가동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특히 2004년 단체 설립이후 100번째 방북대표단으로서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었으며, 긴장감과 부담감 속에서도 대북활동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방북 길에 오를 수 있었다.

인천공항에서 중국 심양으로 출발하기 전에 심양의 북한 영사부에서 우리 대표단의 북한방문 비자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갑자기 11월 방북할 때가 떠올랐다. 평양의료협력센터 생산동 공사와 강남군인민병원 공사를 위하여 방북하는 건설기술자들과 심양에 도착하여 비자 발급을 확인한 결과, 대표단 모두의 비자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었다. 급히 심양 영사부에 부탁하여 평양측과 연락을 취한 후 비자를 발급 받았는데, 기술자 중 한 명의 비자는 결국 비행기 출발시간까지 나오지 않아 심양에 혼자 두고 평양에 들어갔던 일이 있었다. 방북할 때마다 예기치 못한 여러 상황이 발생하게 되지만, 또다시 되풀이될지 모를 일들이 심히 걱정되었다. 하지만 심양에 도착하니 사증은 발급되어 있었고, 대표단 모두 평양행 고려항공에 몸을 실을 수 있었다.

평양 도착! 의료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조선적십자종합병원으로 향했다. 그리고 우리 기술자들이 북측 기술자들과 설치작업을 하는 동안, 필자는 비뇨기과 수술실에 보낸 물자를 확인하였다. 의료장비와 설비들이 잘 도착했는지, 또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유심히 관찰하였다. 다행스럽게도 대부분 장비가 적재적소에서 잘 사용되고 있었는데, 그중에는 안타깝게도 운반도중 고장이 나서 수리가 필요한 것도 있었다.

방북하여 모니터링을 할 때마다 물자를 탁송하기 위해 여러 업체를 알아보고, 좋은 물건들을 좋은 가격에 보

내려고 노력한 결과로 장비들이 북한에서 잘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큰 보람을 느끼곤 한다.

방북 기간 내내 감기기운이 있었다. 약을 챙겨 오는 것을 잊었고, 같이 갔던 분들 중에도 약을 갖고 있지 않아 그대로 지내고 있자니, 일행 중 한분이 북측 안내원에게 부탁하였다. 몇 시간 후 병원 직원이 조심스레 약을 가져다 주셨다. 잘 챙겨 먹으라며 손에 쥐어 준 약을 자세히 보니 우리나라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이었다. 어찌 보면 북측에선 귀한 약일 텐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준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다. 후에 집에 돌아올 땐, 병원 직원이 내 손을 꼭 잡으며 감기 조심하고 아프지 말라며 인사를 건네었다. 그 순간이 아직도 가슴 한 쪽에 뜨겁게 남아 있다.



〈2007년 5월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정형외과 준공식 대표단〉

외래진료소에 설치작업을 진행했던 레이저 치료기는 의료장비 회사에서 기증받은 것으로써 사용처는 붉은 반점을 치료하는 데에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서부터 치료를 받아 붉은 반점 환자가 거의 없지만 북측에는 아직 많은 환자들이 있다. 설치작업을 하고 있는 데, 북측 관계자 중 한명의 코가 빨간 ‘딸기코’였다. 그런데 그 분이 갑자기 마스크를 쓰고 오시기에 왜 그러냐 했더니, 레이저 치료기로 치료를 받았으면서, 이제 자신은 잘 생겨질 것이라고 매우 좋아하는 것이었다. 순수하고 귀엽기까지 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을 즐겁고 흐뭇하게 만들었던 시간이었다.

모든 설치작업을 마치고 100차 대표단은 15일에 평양을 떠났다. 그러나 필자는 101차 대표단과 합류하여야 했기에 남아 있어야 했고, 대표단을 순안공항에서 배웅하였다. 평양에 남아 100차 대표단을 보내는 마음이 꽤 허전하였다. 이산가족들의 마음이 이와 같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북측 안내원이 그런 기분을 눈치 챘는지 이것저것 세심하게 챙겨주며 위로를 해주었다.



〈2007년 9월 강남군인민병원 개보수공사 지원팀과 북측 병원 관계자와 협의〉

오후에는 101차 대표단을 마중하러 순안공항에 다시 나갔다. 대표단과 마주한 순간. ‘아! 반갑다!’ 하는, 작은 탄성이 절로 나오고 말았다. 처음 뵈는 분도 있고 한두 번 뵈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모두 반갑다’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대표단은 평양의대병원 지원물자 확인과 평양의료협력센터 고려약설비 설치작업을 위해 방북하였다.

일주일을 평양에서 지내며, 북측 안내원, 병원사람들과 더욱 많은 정을 나눌 수 있었으며, 어느 때 보다 헤어짐이 더 아쉬웠다. 순안 공항을 떠날 때, 서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고 바라보던 기억과 그 모습이

눈앞에 아련하다. 그리고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북측의 농촌병원인 강남군인민병원 원장님과 의료진, 인민위원회 사람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1년 내내 우리가 보낸 건설물자, 장비 등을 아끼고 아끼면서 원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모두가 병원 보수공사에 밤낮 없던 일들, 그분들의 순박한 미소와 거친 손마디는 항상 가슴에 남아 있을 것이다.

대북사업에 몸담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북한도 6번 정도 방문한 필자로서는, 아직까지 대북사업에 대한 원대한 포부라던가 해박한 지식을 이야기 할 수 없지만 방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남북한이 서로의 마음에 나눔의 씨앗을 뿌리고 또 조금씩 그것을 키워가고 있다.'는 '희망의 움직임' 같은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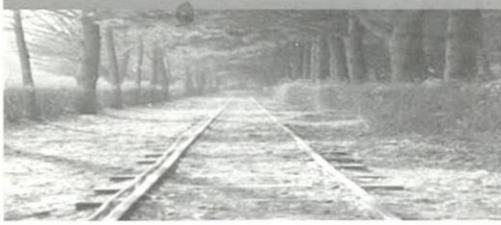
우리들이 심은 씨앗이 당장에 커다란 나무로 자랄 순 없겠지만, 점차 자라나 언젠가 큰 결실을 맺게 되리라 믿는다. 지금은 추운 겨울이지만 언젠가는 어김없이 봄이 찾아오듯이 말이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일에 필자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그 이상 보람 있는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2007년 10월 개선탁아소 한수하 소장님과...〉



〈개보수 공사 중인 강남군인민병원 입구〉



- 평화열차



⑥ 남포에서의 열흘



박 하 진

(전 통일교육원 교수)

2007년 11월 23일 이른 아침 대북 쌀 인도요원으로 평택항에서 몇새 예정으로 남포 길에 올랐으나 뜻밖에 하역작업 지연 때문에 12월 4일야 겨우 돌아올 수 있었다. 본의 아니게 북한체험학습을 길게 하였다.

각종 詩나 가요에서 대동강과 남포는 늘 가깝게 느껴지는데 다른 지역만 가게 되어 이번만은 기어이 남포를 고집했었다.

첫날 대동강에 도착했을 때 마침 일년 중 가장 달이 밝다는 음력 10월 보름이어서 선상에서 둥근 달을 여유롭게 볼 수 있었으며 다음 날의 짙은 강 안개는 남한에서 보기 어려운 장면이었고, 그 뒤 일출과 일몰의 정경은 그동안 잃었던 詩心을 일깨우고 낭만을 노래하기에 충분한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였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일 뿐 우리일행은 숙소인 선원구락부 이내로 행동반경이 제한되었기에 답답함이란 표현하기 힘든 고통의 연속이었다. 재미없는 노동신문 6면의 통독,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방영되는 통치일변도 내용의 단조로운 TV시청, 짜증나게 반복되는 정전,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의 세끼 식사 등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지루한 시간의 반복이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자유가 있었지만 지원단 일행의 절반이상은 이미 지쳐 아프거나 갈 날만 기다리며 하역작업 진척사항만 체크하고 있었다.



〈인도·인수식 : 왼쪽이 남측 인도요원단장, 오른쪽이 북측 인수단장 리창하〉

북한측 인수단과 주방요원들과는 화기애애하게 덕담은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다른 권한이 전혀 없었으며 상호간에 눈치를 보는 것 같았다. 북측대표단과 요원들은 말끝마다 “우리 민족끼리” 라고 곧잘 하지만 주민 면담은 기대하기도 힘들었고 방북단들은 푸념하며 보세지역에 내내 묶여있어야만 했다.

금년이 남북교류협력이 시작 된지 만 20년이 되는 해이지만 평양에 상주대표부논커녕 NGO연락사무소 하나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지경이며 북한측이 반대하는 인사는 방북이 불허되는 상황이다. 남한으로 전화도 못하고 인터넷 사용도 못하며 안내원과 동행하지 않는 한 바깥출입이 차단되는 방식이다.

그렇게 막막하고 지루하기만 하던 가운데 옛새째 되는 날 북측대표단이 평양상부에 허락을 겨우 받아 갑작스레 평양 나들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나에게 평양행은 2002년과 2006년에 이어 세 번째여서 얼마나 바뀌었는지 궁금하고 무엇보다 선원구락부의 숙박된 생활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이 기뻐고 숨통이 조금 트이는 것 같았다. 일행들도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남포에서 평양까지는 40Km정도의 왕복 8차선의 고르지 못한 고속도로로 남한TV에서 보듯이 뺑 뚛린 아스팔트대로였다. 도로 양쪽의 산야는 자연의 참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깎아내린 다락밭과 벌거숭이 민동산들이 황무함을 주었다. 산림자원의 중요성보다는 당장 쌀감과 자급자족의 생활고 때문에 황폐화되고 항상 홍수피해를 예고하고 있으니 마음이 무거워져만 갔다.



〈쌀 배분 현장〉

평양에서는 늘 그렇듯이 만경대의 혁명사적관과 주체사상탑, 고려호텔의 물품구매 등 만나질 코스가 전부였다.

레닌모와 카키색의 인민복이나 안내원의 해설은 여전했으나 그래도 달라지고 있었다. 색깔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이고 군데군데 군고구마와 호빵을 파는 매대(賣臺)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 그곳에서 빵을 사먹으며 즐거워하는 어느 어머니와 아들의 다정한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호텔 매점에서도 예전과 다르게 판매행위를 하는 모습을 통해 과거와는 달리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북한의 변화된 경제현실이 엿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남한에서 북한을 찾는 사람이 계속 많아져 재작년부터는 연간 방문인원이 10만 명을 넘어섰으며, 또 어렵고 힘든 이웃으로서 북한을 돕는데 남한이 앞장서고 또한 남한사람들은 돈이 많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접촉을 통한 변화가 자연스럽게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 한 셈이다.

그렇지만 개혁개방의 물고를 트고 전진기지로 북한의 관문이 되어야할 남포에서 일반주민과 한마디 대화도 나누지 못하고 열흘 동안 인내심만 기른 채 떠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못내 아쉬웠다.

그러나 이렇게 열흘씩 무사히 다녀올 수 있는 것만도 어마어마한 변화이며 분명 다음 기회에는 좀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남포 외국인선원구락부〉



〈쌀 하역 작업〉



④ 국경선을 말소된 우리의 평화적 상상력을 키우는 놀이터로 삼자



이 다 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생)

상상력!

북한과 화해, 평화, 통일 등에 대해 공부하면서 어릴 적 읽었던 '키다리 아저씨' 라는 소설의 주인공인 주디가 고아원에서 성장했을 당시를 회상하며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다.

"나는 항상 근사한 집과 예쁜 정원을 상상했어. 그런데 문을 열고 그 집안에 들어가는 순간 나의 상상은 막을 내리곤 했지. 고아원 말고 다른 가정집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알 수가 없어서....."

평화적 상상력!

분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삶에서의 불편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우리는 이미 분단족(分斷族)이 되어있다. 한반도는 군사분계선 때문에 사람과 자본, 물류의 흐름이 막혀있고 남북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다. 헌법 3조에 명시된 영토(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가 우리에게겐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평화가 어떤 것인지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틀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현실이다. 평화가 무엇인지 질문을 하면 대부분 곤혹스러워 한다. 평화가 추상적인 개념이어서도 그럴겠지만 사실 전후 세대인 우리는 정전(停戰)상태에서 살아왔다. 게다가 우리의 윗세대는 전쟁과 식민지 시대까지 겪으셨으니 말해봐야 무엇하겠는가? 전쟁이 없는 상황이 곧 평화라는 막연한 생각 뿐,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상상하는 자체를 외면해 왔다. 마치 키다리 아저씨의 주인공 주디처럼 말이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라는 특별한 땅에서 평화롭게 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나는 통일이라고 감히 단언한다. 그런데 젊은 세대들, 청소년들은 말할 것도 없이 대학생들과 30대의 청년들은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 그리고 그거 꼭 해야 하는 거냐고 또 묻는다. 이런 질문을 반통일 정서라고 치부해버리면 더욱 마음이 멀어진다. 과거 냉전시대 때 통일은 성역이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묻는 것은 성역을 침범하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통일에 대해 집착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통일 논의에서 소외된 일반인들에게 더한 거부감을 주고 점진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평화의 상상력을 억누를 수도 있다.



〈단동-호산장성에서 조선보기〉

통일을 왜 해야 하냐고 묻는 것, 그렇게 물어 볼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감사하고 신이 난다. 통일을 하면 뭐가 더 좋은지, 통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통일이 가져다 줄 평화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경선을 놀이터로!

우리의 현실과 분단의식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곳은 군사분계선이다.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경의 모습은 극한의 긴장감이 감도는 대치상태의 위험천만한 곳이다. 게다가 이는 '왜?' 라는 의문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국경에 가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다른 나라와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민해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왜 그럴 수 없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있고 이는 역설적으로 평화적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런 사유로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을 돌아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특히 압록강에서 배를 타고 중국과 북한의 언저리를 다녀보면 그 평화로움에 정말 놀랄 것이다. 여행은 예습한 만큼 배움을 허락하는 것 같다. 아무리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에 가도 알지 못하면 느낄 수 없고 배우기 힘들다. 당연히 배움을 삶으로 끌어들이는 일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 북·중(北韓·中國) 접경지역을 돌아보기 전에 한국전쟁과 관련된 장소와 사람과 책을 만나고 고민하며 준비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이다. 국경선을 우리 삶을 위한, 평화를 위한 놀이터로 삼을 수 있다는 상상은 나에게 큰 기쁨이다.

한번 더, 평화적 상상력!

마지막으로 여행이 끝난 후 일상에서 평화와 화해, 그리고 통일의 노력을 시작하는 이에게 도움을 줄 '나름

대로의 상상력'을 발휘해 보고자 한다.

제안 1. 북·중 접경지역 여행 후 통일 독일의 다스 그뤼네 반트(그린벨트)보고 오기.

우리와 비슷한 죽음의 경계선이 찬란한 생명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현장에 가서 평화적 상상력의 기를 받고 더 기발한 상상도 해 보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원가를 이룬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환경운동가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만든 곳, 동·서독 분계선 지역을 평화생태 공원으로 만들고 땅의 소유주나 근처의 농부들을 오랜 시간 설득해서 땅을 모으는 과정 등 모든 것이 우리 한반도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북·중 접경지역을 통해 국경이 이웃 나라와의 보이지 않는 경계일 뿐 죽음의 선은 아닌 것을 확인하고 함께 살기 위한 편의의 제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아직도 전쟁과 긴장을 상징하는 우리의 군사 분계선을 어떻게 새롭게 디자인 할 것인지 상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상상① 독일의 그뤼네 반트처럼 한반도의 비무장 지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시민운동을 계획, 추진하고 멀지 않은 훗날 완성된 평화의 숲에 남북이 사이좋게 주변 4강의 정상들을 초대한다.



〈운동주 생가에서〉

제안 2. 평화 공간의 구성 - 국경의 변방 도시에 평화(平和) 다방(茶房) 만들기.

압록강이나 두만강 근처에 국경을 접한 곳에 피스카페를 열면 어떨까? 단동에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장소는 애매할 수록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이 나라도 아니고

저 나라도 아닌 중간 지역이 흔하진 않겠지만 의미를 찾으며 장소를 합법적으로 결정하여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면 이상적일 것이다. 사방으로 난 창으로 이웃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보이고 오가는 이들을 볼 수 있는 곳이라면 찾아오는 이들의 평화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자극하여 경제적인 자립도 더 빨리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와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좋은 생각거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상상② 평화여행단의 숙박시설 기능을 담당하면서 차와 음악과 책이 있는 곳이면 좋겠다. 평화꾼이 상주하여 손님을 맞이하는 평화(平和) 다방(茶房)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사회의 근간을 이룬 실례는 많다. 신념은 개인의 망상이 아니라 건강한 상상력에서 비롯된다. 우리 사회에서 평화와 통일을 상상하는 능력이 자라나고 그래서 그것이 신념이 되어 역사를 이루는 순간을 함께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3



- 통일칼럼

- 현장에세이

- 평화열차

- 참여마당





① 북한인권정책의 방향과 과제



서 보 혁

(이화학술원
평화학연구소 연구위원)

북한인권에 대한 현정부의 관심

현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북정책에 대한 다양한 기대와 전망 가운데 우세한 것은 경성 이슈(hard issue) 분야에서 先비핵화 後경제지원이고, 연성이슈 분야에서 인권, 인도주의 문제에 대한 정책 비중 제고로 볼 수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북한인권정책과 관련한 별도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이나 북한인권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도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명박 대통령도 여러 기회를 통해 북한 인권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북한인권정책의 성과와 한계

정부의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겠지만 대북정책 역시 기존의 정책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변화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인권정책도 그 동안의 정책 성과와 한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임 노무현 정부의 북한인권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여 “남북간 긴장완화와 화해협력 실현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인권의 점진적, 실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을 견지하였다. 그리고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등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6자회담의 진전 및 남북관계 개선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 방향은 남북관계의 유지발전, 북핵문제 우선 해결 등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북한인권 개선 노력은 소극적이었다는 일각의 평가를 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난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북한인권정책을 전개하였다.

첫째, 북한주민의 정치적·시민적 권리(자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전반적인 상황 개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한편, 남북대화시 국제사회의 우려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남북간 정치체제가 다르고 상호신뢰가 튼튼하지 않은 가운데서 자유권 상황을 북한에 직접 언급하는 것은 역효과를 낼 우려가 있다. 이 점은 그 동안 우리 정부가 보인 한계라 할 수 있지만 현재의 남북관계 수준을 고려할 때 새 정부도 유의할 대목이다.

둘째, 전임 정부는 지금까지 식량, 비료, 의료품, 긴급구호 물품 등 인도적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의 '먹고 사는 권리'(right to food and nutrition) 등 북한주민의 경제적·사회적 인권 개선에 크게 기여한다는 판단 하에, 북한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우선적인 노력을 경주해왔다고 평가해왔다. 정부는 또 어린이·산모 등 취약계층에 대해 국제기구(WHO, UNICEF 등)와 협력하여 건강관리·영양개선 사업을 추진하였고, 민간 단체의 활동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보조하여 다양한 보건의료, 농업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사실 국제사회의 지원 피로(aid fatigue) 현상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비난 여론으로 최근 대북 인도적 지원의 대부분은 남한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는 경제협력과 함께 북한의 대남의존 증대, 남한에 대한 우호적 인식 확산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냈다. 그럼에도 인도적 지원 중심의 생존권 향상은 이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분배의 투명성 문제도 일부 분배현장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지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셋째, 그동안 정부는 남북간 최우선적인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문제와 납북자·국군포로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해 왔다. 특히 납북자 문제와 관련하여 2006년에는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당국간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고, 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한 「군사정전예관한협정체결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정부입법으로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산가족의 수와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이산가족면회소 준공, 면회 횟수와 규모 확대 등 조속하고 상시적인 상봉을 위해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또 국군포로 및 납북자 생사확인고 상봉, 나아가 귀환을 위해 경제적 대가 지불, 별도의 협상 등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내입국 희망 탈북자에 대해서는 전원 수용하여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우리 사회에 들어온 숫자는 매년 증가하여 2007년에 가장 많은 2,548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12,254명이 들어왔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를 감안할 때, 해외 체류 탈북자의 실태 파악과 기본권 보호, 보다 많은 국내 수용 등을 위해 관계국과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외교인력 확충, 탈북자 보호단체 지원, 탈북자 인권실태 연구 등을 적극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그동안 북한인권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에 따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 사회의 변화와 시장경제 확대를 통해 점진적으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판단해왔다. 그에 따라 북한에서 인권개선 요소가 자생할 수 있는 내부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이를 위해 경제협력사업 및 인도적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북한인권정책 방향과 과제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동안 정부는 주어진 대내외적 정책 환경과 남북관계 전반을 고려하면서 북한인권정책을 다방면에서 전개해왔지만, 전체 대북정책 혹은 외교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북한 내의 인권, 특히 자유권 상황에 대해 공개적인 방식으로 거론하기 어려웠던 것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탈북자 인권보호 및 국내 수용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이 크고, 인도적 지원에 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새 정부는 이런 평가에 기초



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북한인권정책을 수립, 전개하길 기대해본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전반적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핵 포기과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감당해야 할 대북정책의 기초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북한인권정책은 그런 전략적 구도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추진할 사안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새 정부의 북한인권정책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으나, 다만 인권문제에 보다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우선 북한인권정책은 이전 정부가 취한 북한인권정책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와 문제점은 극복하는 선상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북한인권정책은 보다 높은 정책적 비중을 갖되 다른 분야의 대북정책의 과제 —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 당국간 대화의 정례화, 경제협력의 강화 등 — 와 균형을 이루는 속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새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북한인권정책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북한인권정책 목표는 실질적인 인권개선, 그 방향은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북한 스스로의 인권개선 능력 향상, 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는 남북간 합의가 이루어진 인도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면서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협약 이행 및 미가입 협약 가입 촉구, 투명성을 강화한 인도적 지원 등을 먼저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인권의 보편성과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문제 논의에 적극 동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당국간 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하여 남북간 신뢰를 증진하고 그것이 북한의 실질적 인권 개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국간 대화와 상호신뢰가 필수적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 말의 길을 열어 마음의 통일을 준비하다



이 재 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
사업회 사무처장)

"겨레말은 괜찮아요?"

요즘 지인들에게 많이 듣는 말이다. 2006년 '북핵' 국면 때는 다반사로 들던 말이었다. 6자회담이 열리고 한반도 정세가 풀리면서 뜸해졌는가 싶었는데 요즘 다시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많아졌다. 땀에는 남북관계가 여의치 않아 보여 걱정을 담아 건네는 안부 인사인 셈이다. 준비해둔 답을 꺼내든다.

"총알이 오고가도 겨레말(편찬사업)은 계속됩니다. 걱정 마세요."

빈말이 아닌 것이 실제 남북 간 교류가 동결 상태에 갔던 '북핵' 국면에서도 겨레말 남북공동편찬회의는 어김없이 열렸다. 2005년 2월 20일 금강산에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결성식을 갖고 사전편찬사업의 첫발을 뗀 뒤, 우여곡절을 거듭하는 남북관계 속에서도 겨레말 남북공동편찬위원회는 분기별 1회 공동회의 개최라는 합의를 지켜나가고 있다.

지난 달, 개성공단 끝자락 북측 주민주거지역과 바로 맞닿는 곳에 지어진 개성기술교육센터 3층 회의장에서 제13차 남북공동편찬회의('08.2.19)가 열렸다. 남과 북의 편찬위원들은 훌쩍 지나가버린 3년의 시간에 새삼 놀라면서, 적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만큼 진척시켜온 사전편찬사업에 대해 모두들 상당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몇 년에 걸쳐 서로를 알아온 만큼 어느 남북회의와 다르게 공동편찬회의장은 웃음이 넘쳐난다. 말의 의미를 따져 물을 때에는 그리 꼼꼼한 학자들도 쉬는 시간엔 남과 북의 경계를 오고가는 우스개도 주고 받을 만큼 스스럼없는 사이가 되었다. 평양, 서울, 개성과 금강산, 멀리로는 북경과 심양을 오고가며 솔하게 얼굴을 맞댄 사귀의 결과다.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이 통하는 사이'가 되는 데도 3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겨레말큰사전은 분단 이후 60년을 다른 제도와 문화 아래에서 살아온 남북 양 민중의 말글살이(언어생활)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출발한다. 같은 문자를 쓰는 한겨레이지만 자모의 배열순서, 사이시옷,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법 등에서 남북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두음법칙'은 남북이 두드러진 차

이를 보이는 규정으로 북측 문헌과 말(로동자, 련자 등)에서 남측 민중이 가장 이질감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처럼 남북의 언어를 통합해갈 때 우선 난점이 되는 것이 어문규범상의 문제인데 이는 학자들 몇 사람의 '정치적 결단'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학계는 물론 다양한 의견을 들어 국민적인 동의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한다면 남북의 어휘 차이는 생각만큼 크지는 않다. 정치체제의 차이가 남북 민중의 사고와 말을 일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양쪽 체제의 특성에서 나온 새말 또는 변한 말의 의미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대개 짐작이 되는 말이다. 그보다는 원래 남북 지역 방언의 차이들이 60년간 왕래가 철저하게 차단되면서 남쪽 내부의 전라도 말, 경상도 말과 제주도 말 사이의 차이보다 더 커 보이는 심리적 거리가 더해진 부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 북측 특유의 억양과 '전투적' 어휘들이 주는 생소함이 전쟁 이후 남쪽 대중들이 갖게 된 공포의식을 자극하여 더 '아득한' 거리를 만들어 냈을 것이다. 겨레말큰사전 작업은 남북 간에 차단되었던 말의 길을 열어 60년 시간만큼 멀어져온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것을 가장 직접적인 목표로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10차 전체사진〉

겨레말큰사전은 남북의 언어통일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격랑의 우리 근대사에서 연해주, 중앙아시아, 일본, 멀리 유럽과 미주로 밀려간 우리 동포들의 삶이 담긴 말까지도 온전하게 통합해가는 진정한 모국어공동체의 회복이 겨레말큰사전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이다. 사전편찬 작업일정에는 남북 모든 지역의 현장 어휘 조사와 함께 해외동포들의 어휘조사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문헌 어휘조사의 대상도 남북의 작가들은 물론 재외동포 작가들의 작품까지 열려있다.

표준어, 문화어에 밀려 '비표준'으로 격하되어왔던 지역어(방언)를 살려내고, 생동하는 입말 조사를 전 한반도에 걸쳐 시행하는 것도 겨레말큰사전 작업의 특색이다. 남북공동편찬회의에서는 회의가 열릴 때마다 각자의 조사에서 얻어진 새말 목록을 교환하고 있다.

이처럼 편찬 작업의 규모가 큰 만큼 예산도 적지 않게 들어간다. 다행히 남쪽에서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평가한 여야 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2007년 4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이 통과됨으로써 사전 편찬이 국가적 차원의 사업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인 예산지원이 가능해졌다. 남북 사회문화교류 사업 중 입법으로 뒷받침되어 특정 지원을 받는 유일한 사업이라는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11차 회의분과토론〉

겨레말큰사전은 2013년, 30만~40만 어휘를 담아 세상에 나올 예정이다. 공동편찬위원회는 사전에 올릴 올림말 1차 선정을 마무리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뜻풀이 집필에 들어가게 된다. 남북 학자들이 한입으로 하는 말은, 지금처럼 분기별로 한 차례씩 만나 그동안의 작업을 비교하고 합의하는 일정으로는 제때에 사전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소한 한 분기에 2만 개 어휘 정도의 내용을 검토하고 확정하려면 남북의 언어학자들과 관계자들이 상주하면서 매일 수백 개의 어휘를 함께 검토하는 공동의 작업공간이 필요하다.

편찬사업회가 개성(공단지역이 아닌 시내)에 추진하려는 '겨레말의 집'은 사전을 만드는 연구소이자 남북이 함께 우리말을 기념하는 '겨레말 박물관'으로, 남과 북이 통일을 열어가는 상생과 번영의 상징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겨레말의 집'은 무형의 가장 위대한 유산인 우리말을 유형의 유산으로 치환해낸다는 상징적 의미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공동 사전편찬의 산실로 민족사에 우뚝 남을 기념비적 건축물로 자리 잡게 된다. 말 그대로 '민족의 집'을 짓는 이 사업은 현재 여건상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받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후원이 절실하다.



〈12차 전체사진〉

누구나 통일을 말하지만 저마다 머리에 그리는 통일의 내용은 다른 것 같다. 분명한 것은 1945년 분단 이전 시점으로 돌아가 남과 북을 단순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그러한 시도의 대가가 너무 값비싼 것이라는 점이다. 통일이란 남과 북이 각기 걸어온 길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른 측면을 적극 받아들여 민족 구성원 모두가 풍성해지는 점진적 (통합) 과정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공통의 사전 한 권을 우리들 손에 올려놓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말이 통하기'가 어디 그리 쉬운가. 그러나 한 번 뚫린 말의 길은 제 스스로 길을 이어가면서 오래 가로막혀 있던 마음의 담벽을 허물고 이리저리 새 길을 내어간다. 말이 통하면 안될 일이 없는 법이다.

겨레말큰사전은 남, 북 어느 한 진영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는다. 경계를 넘어 흘러들고 흘러가는 것이 말이기 때문이다. '분단과 지역과 사람 사이의' 경계를 넘어서 오늘도 겨레말큰사전의 한 페이지가 채워지고 있다. 민족어가 엄연히 존재하는 한 우리말 사전 편찬 작업은 영원히 마감될 수 없는 현재진행형이다.



- 평화열차



㉞ 평양에서 보낸 크리스마스 이브

- [남북농업협력] 현지조사단 출장을 다녀와서



김 동 남

(통일교육원 사이버교육과
주무관)

“평양으로부터 아직 통보를 못 받아서 비자 발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2007년 12월 21일, 통명스럽게 대답하는 북경 주재 북한영사관 직원의 말이였다.
내일 당장 평양으로 출국해야하는데 매우 난감했다. 평양비자가 없으면 고려항공 탑
승권 수속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중앙부처 5개 기관으로 구성된 우리 “남북농업협
력 현지조사단”의 일정('07.12.22-25)에 차질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오후에
천안문 광장과 자금성을 둘러볼 예정이었던 우리 조사단은 일정을 취소하고 하릴없
이 영사관 밖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네들이 미처 연락을 못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
한밤중예야 이루어진 비자발급...우리 일행 중의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총리급 회담에서 합의를 본 사항인데도 아직까지 남북간의 관계는 그리 쉽지 않나보다.
남북간의 가까운 육로로 방북을 하지 못하고 북경을 경유해서 평양을 가야하는 것이 아쉬웠다.

12월 22일, 순안공항은 예상과는 달리 무척이나 포근하였다.
작년 5월의 당혹스러웠던 기억이 새로웠다. 이른바 노총대표단의 “혁명
열사릉 참배사건”
우리 언론에 보도된 후 근 일주일동안 우리 사회를 얼마나 뜨겁게 달구
었던가?

“내래 여기 있어도 김동남 선생의 행적을 다 알고 있지. 이번에 온다 해
서 일부러 찾아 온 거야”

양각도 호텔로 찾아온 북측 안내원, 금강산 거래말 큰사전 편찬위원회 출범식 때의 첫 만남 후 3년만의 해후
였다. 향후 체류일정을 거의 주도하다시피 하는 걸 보니 승진한 모양이었다. 아는 사람이 출세했다고 생각하
니 내심 기분이 좋았다.



〈고려항공 북경 사무소〉

다음날 오전 일찍 황해남도 은율을 향해 미니버스로 이동하였다.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건설예정 부지를 현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이동하는 동안 북한 주민과 농촌 가옥들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우리네 1960년대 농촌은 과연 저런 모습이었을까?

“우리도 평양이 아닌 지방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율지방은 남측에는 처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톱 까놓고 이야기해서 우리 어렵습니다. 남측에서 동포의 정으로 도와주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버스 안에서 이것저것 설명을 하던 안내원의 말이었다.

‘북한이 많이 달라지긴 달라졌구나, 톱 까놓고 어렵다는 말을 하다니’ 하는 생각이 스쳐지나갔다.

황해도 은율!

황해도 은율은 밤(栗)으로 유명한 고장이자 장길산과 임격정의 활동 무대이기도 하였으며, 6.25때 그 유명한 ‘구월산 유격대’가 활동했던 구월산이 있는 고장이다.

조사단 관계자들과 함께 산동리의 시설부지를 둘러보고 협동농장을 방문하였다.

우리로 말하면 마을회관이라 할까? 그곳 뜨끈한 아랫목에서 시골의 인상 좋은 노부부가 친히 구워낸 은율밤과 감자를 둘러앉아 먹던 모습. 어렸을 적의 향수가 이런 것이 아닐까?

은율국수집에서의 정성스럽게 준비한 점心和 내 누이 같은 이가 불러주던 흥겨운 노래 가락 소리도 좋았다. 민족은 분단이 되어 50여년이 흘렀지만 우리의 먹거리 풍습과 손님을 살갑게 대접하는 문화!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이다.



〈황해도 은율 국수집〉

돌아오면서 보이는 평양 시내의 밤(夜)은 좋아진 전력사정을 반증하듯 여기저기 각종 네온사인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전력사정이 여의치 않은 듯 보였다.

12월 24일은 위원장 생모 탄생일

오전에 평양 시내 주체사상탑과 개선문을 둘러보기 위해 일찍 호텔을 나섰다.

‘오늘(12.24)은 성탄절인데 여기 접대원 아가씨들은 알고 있을까, 한번 물어나 볼까?’

주체사상탑을 참관하고 이어 개선문으로 갔다. 근처의 개선역은 8.15 해방 직후 북한에 온 김일성 주석이 환영군중에게 첫 연설을 행한 의미 있는 곳이라 한다. 멀리 보이는 개선역 광장에 많은 수의 군중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마치 잔치를 벌이듯이 노래와 춤을 추고 있었다.



〈평양 개선역 축하 행렬〉

안내원의 말, “남쪽에서는 생일날 미역국을 먹는다던데, 오늘 미역국 먹었습니까?”

무슨 말일까? 다르게 아니라 ‘위대한 어머니 김정숙 여사님 탄생일’ 이란다. 그렇다. 12월 24일은 우리로선 연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크리스마스이브요, 북에서는 국방위원장의 생모 탄생일이다. 휴일이라고 한다. 주민들의 국방위원장 가계에 대한 추모와 충성심은 일견 대단한 것으로 느껴졌다.

숙소로 돌아온 후, 양각도 호텔 46층 스카이라운지에서 환송만찬이 이어졌다. 남북이 동포애를 과시하듯 서로 섞어 앉은 채 체류동안의 성과에 대해 환담을 시작하고 북측 단장이하 실무진들의 만족스런 표정과 협력의 말들이 오가고 우리 측도 기꺼이 응대하며 시간이 흘러갔다.

끝날 무렵 참석자 모두가 손에 손을 맞잡고 “다시 만납시다”를 합창할 때의 가슴이 뭉클해지는 느낌, 이게 한민족이런가. “잘 가시라 다시 만나요” 동석한 우리 일행중 한 명은 흐르는 눈물을 이기지 못했다. 조금씩 조금씩 회전하며 돌아가는 저 스카이라운지처럼 우리 남북관계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갔으면 하는 희망어린 생각을 해보았다.

“그래도 오늘이 크리스마스이브인데 우리끼리라도 자축해야하는 것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평양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겠어요?” 누군가의 제의로 호텔 바로 앞마당에 있는 골프장 식당으로 이동한 뒤 건배했다.

“메리 크리스마스!!” “쭉 냅시다.” “평양에서 크리스마스를 다시 보낼 날이 올까요?”

평양에서 처음 맞은 성탄전날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양각도 호텔 스카이 라운지 환송 만찬〉

“크리스마스라고 아시나요?”

“잘 모릅니다.”

어두워진 밤에 환송하러 나온 어여쁜 식당 접대원 아가씨! 19살이라 했다.

글로벌 시대, 지구상 200여개의 국가 중 크리스마스를 잘 모르는 나라가 몇이나 있을까?

종교관 유무를 떠나서 남북의 주민이 크리스마스를 함께 즐기는 통일된 그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③ 남북 젊은이에게 영어로 평화교육을 시키는 학원

이 다 슝 · 김 은 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생)

평화교육 신청자 0명

몇 년 전에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교육을 하기 위해 학생을 모집한 적이 있다. 많은 홍보와 연락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0명. 좌절이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조정했다. '영어로 하는' 평화교육으로.

그랬더니 부모님의 추천으로, 개인적인 관심과 소개로 신청자들이 오기 시작했다. 눈치 챌겠지만 신청자들의 주목적은 영어다. 평화의 소식과 평화교육은 먹고 사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셈이다. 우리가 사는 곳은 평화보다 영어가 더 중요한 세상, 대한민국이다.

한국인에게 영어는 '인생 문제'에 속한다. 계속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붙들고 있어야 한다. 일상생활은 문제가 안 되지만 입시, 취업, 승진, 유학 등 인생에서 중요한 대목에서 한번쯤은 걸려주는 게 바로 이 영어다. 남한에서 태어나 영어경쟁의 현장에서 계속 살아온 사람들도 버거운 데 북한에서 살다가 남한에 와서 영어를 시작하는 새터민들의 고충이야 말로 해서 무엇하랴. 이들은 일상 대화에서도 영어가 너무 많이 사용되는 것에 큰 불편을 호소한다.

이런 상황에 뛰어난 독특하고 의미있는 수업이 있어 찾아가 봤다. 강남의 한 영어학원(커넥서스 어학원)에서는 평화를 영어로 가르치는 'PEACE BUILDER'(평화 건설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어로 평화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다. 갈등, 화해, 양보, 분쟁 등 일반 어학 과정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을 공부하고 당연히 이런 주제와 관련한 단어와 책을 읽고 사용하게 된다.

2008년 현재 6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많지는 않아도 꾸준히 학생들이 모인다고 한다. 특별히 새터민 대학생(새터민에게는 무료)들이 영어에 도움을 받기 위해 이곳을 찾아오고 그냥 들렀다가 이 과정을 알게 되어 수강하기도 한다.

PEACE BUILDER' (평화 건설자) 프로그램의 시작

커넥서스 어학원 이재영 부원장(사진)은 캐나다에 유학하여 갈등 조정에 대해 전공한 분인데 이 프로그램은 대학원 과정의 프로그램 계획서에 제출된 내용이라고 했다. 본인이 캐나다에서 공부하던 시절 한국에 들어오는 새터민이 급증하고 학교 사무실 옆에 이들과 관련된 단체가 들어와 있어서 자연스럽게 일을 도와주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고 한다. 한국에 와서 어학원의 부원장으로 일하면서 학생 때 구상했던 일을 실험적으로 해내고 있는 것이다. 선진적 평화 교육자라고 할 수 있다.



〈커넥서스 어학원 이재영 부원장〉

고충을 물어보자 수강자가 계속 있지만 영어에 대한 필요가 평화에 대해 알고자 하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어렵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계속될 것이며 평화에 대하여 대화하고 생각하는 기회를 열어 놓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의 젊은이들이 영어로 평화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

PEACE BUILDER' (평화 건설자) 프로그램의 목표는 영어를 가르치는 것보다 평화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현재 이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Mark 선생님(사진)은 자기가 강사지만 평화에 대해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매 시간마다 다른 주제, 이를테면 갈등, 화해, 관계 등 평화와 관련된 개념을 설정하고 그것에 대하여 수강생 나름의 정의를 내리고 서로의 얘길 들으며 추상적인 평화 얘기를 일상적으로 만드는 작업을 한다고 했다. 강사가 주도적으로 수업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면서 영어를 도와주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사진들〉

이 프로그램의 수강생 2씨는 영미권에서 온 강사와 한국(남북 태생 모두) 사람의 평화 인식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 캐나다나 미국 사람들은 분단 상황을 겪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일상적이고 전 세계적인 평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중동의 분쟁과 이라크 전쟁,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가 겪고 있는 끔찍한 내전과 기근, 인종 갈등 등 우리는 좀처럼 관심을 갖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사뭇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반면에 분단을 겪고 있는 한국인 수강생들은 평화라는 개념을 잘 모르면서도 '식상'한 것으로 느끼고 일상에서 평화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거대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가, 프로그램의 대화 주제가 양보, 배려, 화해 등 인

간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것에 놀란다고 했다. 그리고 외국인 강사들이 북한이나 남한에 대해 단순하게 이념이 다르고 호전적인 국가와 비호전적인 국가의 대립으로 보고 있는 것이 놀랍다고 했다. 한국 사람들은 민족의 문제와 국가의 문제를 분리할 수 없는 반면 영미권의 강사들은 그것이 분리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근 없는 평화교육을 향하여.

남과 북의 정상이 마주잡은 손.
멈춰서 있는 탱크의 대포 구멍에서 꽃이 피다.
색은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는 오류기.

시작 할 때 말했던 영어로 배우는 평화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각자 생각한 평화를 그린 내용이다. 이 학생들은 영어로 이런 저런 활동을 했다. 주제는 평화다. 영어만 배우러 왔지만 '손을 잡고', '꽃을 피우고' 평화를 배우고 돌아갔다.

영어라는 당근이 없이도 평화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아이러니하게도 PEACE BUILDER(평화 건설자) 프로그램의 목표다.



〈수업시간〉

4



- 통일칼럼

- 현장에세이

- 평화열차

- 참여마당





① 새 정부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정 상 화
(연세대학교 교수)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예상했던 대로 북한은 대남 비난의 날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새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를 탐색하고 또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관례에 익숙하지 않은 폐쇄적인 북한이 앞으로 무슨 일을 저지를지 정확히 알기는 힘들다. 유일한 우방국인 중국이 베이징올림픽 때문에 동북아시아에서 안정을 바라는 한 대규모의 군사적 모험을 감행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통일교육은 북한 주민 및 체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개발하며 제도적 뿐 아니라 실질적 체제 통합에 필요한 의식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이나 통일에 관련한 사안은 개인에 따라 그 이해와 인식의 편차가 크므로 정부의 일방적 홍보나 공식 교육기관에서의 주입식 교육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교육자의 생애 주기에 따라 단계별로 각종 탐구 및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활동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통일교육은 정치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 법학, 그리고 사회학, 심리학, 철학, 윤리학, 문학, 언어학 등 인문학과 심지어 지리학, 농학 등 자연과학을 망라하여 학제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특정 교과목이나 특정 정책분야에서 통일교육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각 분야별로 적절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 통일교육의 실태와 개선해야 할 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통일교육은 학교 등 공식 교육기관과 지역단체, 군, 직장, 대중매체 등 사회기관이 서로 보조를 맞추고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이버 매체를 이용한 교육도 활성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통일교육은 초·중·고교에서의 공식 교과과정에서 주로 운용이 되고 있다. 통일이라는 과목이 독립 교과로 개설되기는 어렵겠지만 통일의 다른 분야와의 다면적 연관관계를 고려하면 되도록 여러 교과에서 통일에 관하여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통일교육을 도덕, 윤리 등 특정과목 학습의 일부로 단순화하는 것도 지양하여야 한다. 또한 통일교육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학교는 우수학교로 지정하

여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그 사례를 다른 학교에 보급하여 벤치마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시범학교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우리의 중·고등학교 교육이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입시 교육의 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초등학생이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에 교육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들의 지적 수준을 감안하면 통일에 대한 구체적 교육보다 관심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교육목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 시급한 문제는 비교육기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금강산, 개성 등예의 관광이나 휴전선 방문과 같은 일회성의 피상적 대북 접촉은 통일교육으로 불릴 수 없다. 정부는 민간 지역단체 및 직능단체에서의 통일에 관한 연구회, 토론회, 체험교육 등을 활성화하고,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관심분야에 따라 다양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반 시민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통일교육을 담당할 교육요원을 육성하여 통일교육의 보급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독일의 예에서 보듯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한반도에서 통일이 이루어질지 짐작하기는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면 점진적 통합보다,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예기치 않은 사건에 의하여 갑자기 통일을 맞아야 할 가능성이 더 높다. 우리가 과연 이러한 사태를 감당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제도적 통일에서 나아가 진정한 심리적 통일을 이루어야 통일 후 남북 주민 간 마찰이 적어진다. 많은 관찰자들은 공식 통일 후 약 20년이 흘렀지만 동서독은 여전히 통일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동서독인 간 사람의 통일을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소위 교육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의 사례는 통일교육의 어려움과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감안하여 앞으로 고려하여야 할 통일교육 추진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교육의 목표는 효율성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한다. 분야별 통일교육의 목표는 각계의 관련 전문가가 모여 정리할 필요가 있으나, 우선,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리의 정리가 필요하다. 많은 젊은 세대는 막연히 민족감정에 호소한 통일의 당위성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다. 분단 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통일이 가져올 심리적, 경제적, 외교적 이익 등을 설명해야 한다.

둘째, 북한 체제와 북한 주민에 대한 다원주의적 이해가 필요하다. 통일 한국은 세계 주류인 민주주의나 시장경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같이 개인을 주체로 한 개방체제를 경험하지 못한 북한 주민이 통일 후 겪을 정신적 혼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남한 주민도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의 사고 및 행동 방식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60년으로 인한 가치관, 문화 및 관습의 차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현재 1만 여명에 이르는 새터민이나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동포를 연구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통일교육은 지금보다 더 통일 환경에 대한 교육에 신경을 써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에는 어떤 제약요인이 있고 주변국의 입장은 어떤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통일을 접근해야 하는지 교육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막연히 감정적인 친미, 반미가 초래한 남남갈등의 폐해를 경험한 바 있다. 국제관계에서는 국가이익만이 있을 뿐이며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 한반도는 특히 그 지정학적 위치상 분단부터 통일까지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여야 우리는 냉철하게 통일을 준비할 수 있다.

넷째, 안정적 사업 추진 및 재정 지원을 위한 관련 법의 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 정부 부처 간, 중앙-지방 정부기관 간 그리고 정부 기관과 민간 단체와의 교육협력체계 구축 등 교육조직적 기반의 마련, 통일교육 전문가의 육성, 수요자 중심의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보급 등의 사업이 필요하다. 한편, 앞으로 특히 강화할 필요가 있는 분야는 TV 등 방송매체와 사이버 매체를 이용한 통일교육 분야일 것이다. 수준별 통일교육 전용 사이트가 개설되어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방문자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콘텐츠를 계속 개발하여 제공한다면 커다란 재정의 부담이 없이 교육 효과를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통일교육은 장기, 중기 및 단기별로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그 실행전략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문가에 의한 주기적이고 객관적인 교육성과의 분석 및 평가가 필요하다. 이는 교육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통일교육의 내적 충실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사업이다.

통일교육은 남북 화합, 교류 및 체제통합을 위하여 적은 비용을 투자하여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수단이다. 물론 통일교육의 성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통일교육은 북한의 변화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가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통일 대비책이기도 하다. 과거 정부에서도 교육부, 통일부 등 정부 기관은 통일교육의 목표를 통일에의 기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 민족공동체 의식의 함양, 그리고 이에 필요한 지식, 의식, 가치관 및 태도의 함양을 강조해 왔다.



각종 여론조사가 보여주듯 우리 국민의 통일 열망은 일반적으로 매우 높다. 그러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인식의 깊이나 관련 활동에 대한 실천적 참여가 과연 이에 미치는 수준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 패러다임을 탈피하여 새로운 사고에 입각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출범 단계에서 그 설계, 관리 및 평가를 주도할 기관은 어차피 정부밖에 없다. 새 정부는 통일에 대한 열망과 인식 및 실천의 부조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통일교육 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통일교육의 양과 질을 향상하여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던 때문에 통일교육을 정치교육의 일부로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독일과 달리 우리는 자유롭게 통일에 필요한 교과과정을 개발할 수 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크게 바뀔 것이다. 우리가 통일의 시너지 효과를 살리고 사회 통합을 이룬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의 중심부로 진입하는 강력한 추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통일로 인한 혼란을 막지 못하고 극심한 사회 불안정을 겪는다면 우리 민족은 세계의 중심무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통일교육 비용은 앞으로 도래할지 모르는 사회갈등에 미리 대비하는 보험 성격의 지출이다. 통일의 결과 심각한 사회갈등이 노정된다면 그 갈등은 순환구조를 이루고 있는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비용을 청구할 것이며, 이때 치러야 할 직, 간접적 경제비용은 막대한 규모가 될 것이다. 요즘과 같이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고 투자 시기 및 규모에 따라 첨단산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세계화 시대에 선두다툼에서 한번 뒤처지면 국제경쟁력을 회복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후손들이 체제 통합의 비용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임을 명심해야 한다.



👁️ 사인볼과 낙서공



안정립

(민주평통 전북청년회장)

작년 김제 농민들이 모금운동을 통해 마련한 통일염원 보리쌀을 전달하기 위해 김제 시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장들이 주축이 되어 북쪽을 방문했던 때의 일이다.

우리 일행은 북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몇 번의 회합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던 중 김제시청버스로 30명이 직접 방문한다는 의미에서 축구공 30개를 증정하자는 제안이 나와 일행들이 직접 사인을 해서 전달하기로 하였다.

당시 금강산 호텔로 향하는 길가에는 하얀 벚꽃이 숲을 이루고 있었다. 가져간 축구공을 북측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우리는 2박 3일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다.

그로부터 약 보름 뒤 지원물자를 전달하고자 또 다른 일행들과 함께 금강산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배구공 3개에 여러 명이 한꺼번에 사인을 한 단체 사인볼을 마련하였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지난번 지원물자의 분배현황을 파악하고, 이번에 가져온 물자의 분배계획을 듣던 중에 북측 지도원이 뭔가 생각난 듯 갑자기 통명스럽게 말을 건넸다.

“안선생! 조~옴 봅시다!”

“왜 무슨 일 있습니까?”

그러자 일행들과 조금 떨어진 곳으로 나를 데려가더니 이해가 안 된다는 듯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아~~니 전에 가져다준 축구공이 남쪽의 메이커라서 그런지 품질도 좋고 질김데다. 헌데 이왕 줄꺼면 곱게 줄 것이지 웬 낙서를 글케 심하게 해서 줘네까? 그건 무슨 심보 입네까?”

“낙서라니.....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가정집 안방〉

“아~니 모래에 문질러서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심한 낙서를 해서 주지 않았습니까? 안 선생은 모르는 내용입니까?”

그때서야 필자는 낙서공의 상황을 알고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우리가 기념으로 쓴 사인을 북측 선생들은 일부러 낙서를 해서 준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잘 지워지지도 않는 낙서를 모래로 지우면서 남쪽 사람들의 고약한 심보를 탓했을 북쪽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지도원 선생! 그건 남과 북의 다른 문화적 차이에서 생긴 오해입니다.

지도원 선생께서 낙서라 표현한 것은 남쪽에서 사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유명한 사람들이 선물처럼 자기 이름을 적어주는 것입니다. 북쪽에서도 유명한 분의 이름을 선물로 받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드린 낙서공은 그런 의미로 시장님을 비롯해서 각급 기관장님이 직접 적어준 겁니다.”

“아~~ 그런겁니까?”

“네~~그런겁네다 ^^”

그때서야 서로의 오해가 풀리고 눈을 마주치며 마음껏 웃었다.

이번 일을 통해 문화와 더불어 정서적인 일상의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 땅덩어리의 통일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실의 가치와 무형의 가치를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각계 인사의 사인 모습〉



〈고구마〉



〈마을1〉



〈마을2〉



① 가깝고도 먼 개성 - 평양간 고속도로



고 화 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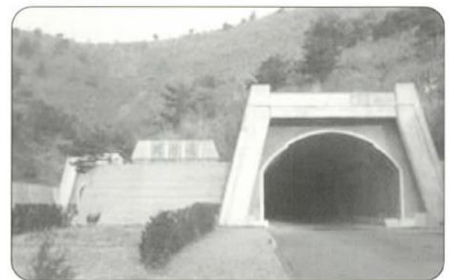
(통일부 교역지원과 주무관)

2007년도 크리스마스를 며칠 남겨둔 지난해 12월 21일 새벽6시 개성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남북 당국이 합의한 개성-평양간 고속도로를 서로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로의 상태와 안전을 남북 공동조사단이 직접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이 조사는 남북이 육로를 통하여 물품과 인원이 오고 감으로써 물류비 절감 등 교류협력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현재 남북간 물품은 인천→남포, 부산→나진간 운행되는 선박을 통한 해상 수송에 의존하여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즉 평양은 남북간 정기 직항로가 없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중국을 경유하는 북한의 고려항공을 이용하여 방문하고 있다.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서울에서 3시간 정도면 평양까지 왕래가 가능하나 교량과 터널의 균열, 누수 등으로 화물차 운행이 힘든 도로 여건 때문에, 현재 개성-평양간 고속도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사단은 한국도로공사 기술팀과 건설교통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25톤 특수 차량 2대와 최첨단 장비 등을 우리측에서 직접 조달하였다. 조사단원의 개인 짐과 점검장비를 합치면 운동선수단 전지훈련을 방불하게 하는 수준이었다.

첫날 남측 출입사무소를 거쳐 북측 출입사무소에 도착하였을 때 북측 관계자가 나와서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북측에서 이번 조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 일행은 곧바로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북측 관계자와 세부 조사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오찬에서 남북 조사단 50여명이 함께 성공적인 조사를 기원하는 자리를 가졌다. 우리측은 2개팀으로 나뉘어 한쪽 15명은 개성에서 출발하여 평양으로 이동하고, 다른쪽 11명은 평



〈예성굴(터널)〉

양에서 출발하여 개성으로 내려오면서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다행히 날씨는 생각보다 춥지 않았다. 나는 개성에서 출발한 팀에서 북측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조사단이 편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업무를 맡았다.

오후부터 첫 조사가 시작되고, 드디어 개성-평양간 고속도로 출발점에 도착했을 때 너무나 감개무량 하였다. 개성공단이 한 눈에 보이고 여기서 2시간만 달리면 평양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과 욕구를 통하여 평양까지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자부심이 교차하였다. 도로는 지난 2차 남북정상회담시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대비하여 북측에서 임시 보수한 흔적이 군데군데 눈에 띄었다. 첫날 조사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되었고, 잠은 경험사무소 숙소에서, 아침과 저녁 식사는 숙소옆 식당에서 해결하였다. 그러나 점심은 북측에서 준비한 도시락으로 현장에서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이었다.



〈조사결과 토론 모습〉

이튿날부터 조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 시까지 도보로 진행하는 강행군이었고, 터널과 교량 검사에는 특수 차량의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교량과 하부구조와 터널 상부구조 등에 대한 정밀 검사가 이루어졌다. 도로 상태는 육안으로 보기에다 균열과 지반 침하, 침수 등으로 문제가 적지 않았고, 특히 교량의 경우는 컨테이너 화물차 통행이 힘든 상황으로 판단되었다. 더욱 놀란 것은 개성-평양간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승용차가 대부분이었으며, 1일 통행 차량은 30대 정도로 고속도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통행 차량이 너무 적어 고속도로 차선을 완전히 폐쇄시키고 하는 개보수공사는 오히려 수월할 것 같았다. 이 고속도로는 우리의 지방 국도보다 상태가 훨씬 열악하였다.

북측에서도 위험한 도로 사정과 주민통제 차원에서 고속도로 이용에 제한을 두는 것 같았다. 조사지점은 점차 개성을 벗어나 평양으로 향하고 있었다. 북측에서 준비한 도시락은 정말 꿀맛이었다. 북측 조사단원은 설계를 내놓고 상세한 설명을 하면서 남측에서 하루 빨리 개보수를 해 달라고 하였다. 도로 인근의 마을 모습과 다리 부근에서 만난 북한주민의 차림은 우리의 60년대 수준이었다. 조사 3일차가 되는 날 평양은 점차 가깝게 다가왔고, 남북 조사단원간에는 웃음도 오가는 등 서로 친숙해졌다. 드디어 조사 넷째 날 사리원에서 평양으로 출발한 팀과 합류하여 마무리 조사에 박차를 가하였고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밤에는 개성에서 출발한 우리팀도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여장을 풀 수가 있었다.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바라보는 평양 대동강과 시내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다음날인 25일은 남북조사단이 그 동안의 조사결과를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터널, 교량, 도로 팀별로 5시간 동안의 확인과 토론 등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오후 늦게 북측의 배려로 평양 시내 참관이 이루어졌는데, 지난 5월에 본 시내 모습과는 달리 활기차게 보였다. 자동차가 많아졌고, 아파트 벽면 도색이 산뜻해진 것 같았다. 그리고 평양을 처음 방문한 도로공사 관계자를 위해 기념품 상점에서 평양소주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자리도 북측에서 마련해 주었다. 다음날 출발을 앞두고 평양에서 보낸 크리스마스의 밤은 양각도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남북공동만찬이 이루어져 5일 동안의 힘든 조사를 서로 위로하고, 남북공동이용을 위한 개성-평양간 고속도로 개보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기도 하였다.

26일 마지막날 평양을 출발하여 개성 박연폭포를 참관하고, 우리 조사단은 오후 5시 남측출입사무소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5박 6일 동안의 조사를 아무런 사고없이 임무를 수행해 준 도로공사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박 6일동안 168km 도로, 터널 18개소, 교량 77개소가 안전한 도로로 탈바꿈하여 서울에서 평양까지 물자와 사람이 자유롭게 오고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차량통행이 없는 고속도로 모습〉



〈특수 점검 차량〉



㉓ 북한아이 꺼안기

이 다 슝 · 김 은 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생)

찾아볼까, 다른 꿈을 꾸는 사람들...

'88만원 세대'(오석훈 교수 저서에 나온 용어로 대학생의 저임금 표현)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속절없이 우울한 유행어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더욱 그렇다. 한 대학교에서 2008년 신입생들의 관심사를 설문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70% 이상이 '취업'을 꼽았다고 한다. 신입생의 절대 다수가 대학에 입학한 지 한 달이 안 되어 실시한 조사에서 '나는 취업하러 대학에 왔어요~!' 라고 합창을 한 셈이다.

필자는 대학생이 되면 배낭여행과 미팅과 소개팅이 전부인 줄 알았던, 철없어도 되던(?) 시절의 신입생 신분 이어서 그랬었는지 아무리 현실이 우울하다 해도 이런 결과에 적이 슬프다. 꿈이 없는 청년을 만나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는데, 취업을 꿈이라 여긴다면 할 말은 없지만 말이다.

이런 상황에 한 대학교에 '북한아이 꺼안기' 동아리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았다.

서울대 동아리 '북한아이 꺼안기'

새터민과 관련된 봉사활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면, 거론 되는 몇 가지가 있을 것이다. 지역주민과 연결하여 일상생활의 적응을 돕는 정착도우미와 북한과 너무 다른 남한의 교육을 받기 위해 애쓰고 있는 학생들을 돕는 학습도우미(과외) 활동이 그것이다. 새터민 청소년의 학습도우미는 많이 알려진 봉사활동 방법이다.

햇수로 7년이 되어가는 서울대학교 동아리 '북한아이 꺼안기'!



〈꺼안기 로고〉

2002년 9월에 모임이 시작되었고 그해 10월부터 새터민 청소년들의 학습도우미 활동을 시작했다. 새터민 과외라는 용어를 만들어 낸 장본인들이다. 처음에 남북문제와 통일에 대하여 뭔가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 있는 두 세 명이 모인 것이 모임의 시작이었다. 과외로 연결되는 새터민들이 청소년이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어서 도와줄 수 없을까 해서 시작한 일이다. 지금은 많이 약해졌지만 2005년에서 2006년까지는 50여명의 선생님들이 30여명의 아이들을 가르쳐 그 중 일부는 대학생이 되었다.

시간이 돈보다 귀하다는 대학생들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실비를 받고(이것도 무료로 하면 생기는 부작용을 우려한 결정이었다), 새터민을 찾아서(여기저기 과외가 필요한 이들을 수소문한다), 과외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새터민 친구들을 더욱 잘 이해하고 돕기 위해 머리를 싸매다 보니 그들이 살다 온 북한에 대해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북한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였다.



〈새터민학생들과 동아리원들〉

2005년에 시작된 북한 소그룹 역시 북한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나눔 그리고 건전한 북한관을 제공하는 유익한 모임이다. 이 외에 그동안 북한 사진전이나 평양 과기대 모금운동, 북한 강연회 등 북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시도도 있었다. 새터민 과외와 세미나는 일상적으로 이어지는 활동이고 올해에는 특별히 국제기아대책기구와 연계하여 '111 모금운동' (하루 한번 100원)을 실시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 서울대 학생들이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북한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런 마음이 '북한아이 꺼안기'가 이어지는 힘일 것이다.

다음은 현재 동아리의 리더인 서울대 심리학과 4학년 하아얀 군과의 일문일답이다.

Q. 새터민 과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많이 나온다. 무모하게 대학 진학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게 하지 말고 기술을 익혀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것을 돕는 게 새터민을 돕는 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

A. 북한에서 어떤 계급에 속했느냐가 남한에 온 새터민의 삶에 직결된다. 거기서 가난과 배고픔이 지긋지긋해서 넘어온 사람들이 꿈에 그리던 남한에 왔는데 경쟁사회에 진입할 아무런 무기도 가지지 않은 채 버려지게 된다면 이건 우리의 책임이다. 탈북한 분들이 황당한 성공신화를 가지고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있어 전체를 보는 눈도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우리는 다르게 생각한다. 대학가는 게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다려 주는 것이 좋은 일이고, 멀리 보고 그런 투자를 한다면 빈곤의 재생산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누구나 사회에서 쓸모 있는 존재가 되도록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과외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에게 이 모든 활동은 어떤 의미일까?

A. 전문가가 아닌 대학생들의 모임을 통해 북한문제나 평화, 통일의 전문가가 발굴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북한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자극하고 모으는 사명감이 우리 내부에 내재해 있는 것 같다.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니까 당연히 평화를 염원하게 되고, 그게 나의 미래와 동떨어질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진로를 결정할 때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취재가 될 만큼 소문이 나서 감사하다(웃음).



〈새터민학생들과 동아리원들이 민토에서〉

Q.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A. 역시나 사람이다. 주요 운영진이 졸업을 하고 나면 일이 이어지지 않는다. 선배들이 유학이나 졸업으로 이 일을 접게 되면서 활동규모나 범위가 많이 줄어들었다. 아쉽다. 지금 다시 의욕적으로 힘을 내보려 한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인드가 확실한 한 두 사람이 중심을 잡으면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이다.

Q. 앞으로 활동계획은 어떻게 되나?

A. 과외는 계속된다. 그런데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가 더 큰 문제인 것 같다. 우선 시험에 붙어서 학교에 들어가긴 했는데 인간관계나, 수업을 듣고 숙제를 하는 등 모든 것이 다 어렵고 낯선 일어서 도움이 필요하다. 이제는 대학생이 된 새터민도 도움 계획을 갖고 있다.

찾았다.. 소수지만, 있더라.

‘88만원 세대’에게서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았다. 이 꿈이 계속되면 통일은 마치 꿈처럼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상생공영으로



- 통일칼럼

- 현장에세이

- 평화열차

- 참여마당





① '균형잡힌 북한 바로알기' 통일교육에 치중해야



유 동 열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남북한과 같은 분단국가에서 통일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통일교육의 핵심은 통일의 대상인 북한의 실체를 올바르게 알리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통일의 대상인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통일을 대비하고 교육한다는 것은 결국 올바른 통일을 저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에서는 언제부터인가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 할 것 없이 북한인권 참상 등 열악한 북한주민 실상을 올바르게 알리는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한 세력은 국내 일부 정치세력 이외에도, 1990년대 이래 대학운동권 내에서 본격화된 '북한바로알기운동'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한총련」의 전신)이 주도한 북한바로알기운동은 역대정권이 국민들에게 의도적으로 북한실상을 왜곡, 전달하여 북한에 대한 그릇된 인식, 즉 반북사상과 반공이데올로기 등 분단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는데 일조하였다는 주관적 평가에서 비롯되었다.

그동안 이 전대협-한총련에서는 대의원대회, 출범식 등 각종 행사에 북한사진전, 북한조형물전, 인공기 게양, 연방제통일론 소개, 북한영화 상영 등을 하면서, 친북의식 제고에 앞장서 왔다. 특히 북한바로알기의 출발은 김일성 업적에 대한 남한당국의 의도적 왜곡을 없애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며, 북한당국이 역사를 조작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사를 그대로 수용하여 선전하는데 열을 올린바 있다. 최근에는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김일성-김정일부자 찬양,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 선전, 주체사상, 선군혁명노선 등 북한의 혁명노선을 찬양·선전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이들이 주도한 북한바로알기는 북한당국이 제작한 대외선전용 사진, 영상, 출판물들을 여과없이 수용하여 이것이 북한의 전체인 양 북한체제를 미화, 찬양하는데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실정이다. 또한

KBS, MBC 등의 공중파에서는 '북한바로알기'의 일환으로 매주 정기적으로 북한소식을 전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대부분은 북한조선중앙TV에서 제작한 대외선전용 영상을 그대로 보내면서 북한 실상을 전하고 있어 북한을 제대로 알 수 있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북한의 어린이날을 소개하면서, 평양유원지에서 놀이기구를 타는 모습, 대동강에서 보트놀이를 하는 장면 등은 소수의 평양거주 북한특권층이 누리는 향연일 뿐, 굶주림에 시달리는 대다수 북한 어린이들의 모습은 아니다. 북한TV나 북한영화에서 등장하는 북한주민의 고층아파트 생활 장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장면이다. 그러나 15층 고층아파트에 전력 공급이 제대로 안되어 엘리베이터가 하루 30분 정도만 제한 운행되고, 각 아파트에 화장실이 없어 7층, 1층의 공동화장실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 국민들은 거의 없다.

북한TV에서 방영되는 영상이 북한의 본모습은 아닐 것이며, 이를 소개하는 것이 올바른 북한 바로알기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이런 유형의 북한알기는 북한의 정확한 실상을 외면하고 북한당국의 의도된 선전을 알려 오히려 북한의 선전선동에 악용 당할 수 있다. 실제 북한은 당 선전선동부와 대남부서인 통일선전부 등이 전문적으로 대남선동공작을 정교하게 하고 있음을 이제라도 직시해야 한다.

북한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균형적 인식이나 객관적 사리분별력을 갖추지 못한 초·중·고 학생들이 이런 프로나 사이버상 자료를 접했을 때, 감상적으로 자칫 북한에 대한 미화나 동경의식을 가질 수 있으며, 그릇된 북한관을 지닐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이제 우리당국은 평화통일에 대비한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균형잡힌 북한 바로알기 교육'을 전개할 때이다. 이의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에게 북한체제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게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북한판 공산혁명사상인 주체사상과 선군혁명노선에 기초한 수령절대주의 폭압독재체제인 북한 김정일정권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정권을 적대시하는 교육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북한체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알리고,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김정일 독재체제와 인권탄압 실상 등은 있는 그대로 알리고 비판해야 하지만, 일반 북한주민들은 우리가 꺼안아야 할 통일의 대상인 동시에 동반자임을 알려야 할 것이다. 북한지도부를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북한인권탄압이나 열악한 북한주민의 생활고를 알리는데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정부당국은 북한바로알기의 기본틀과 방향만 제시하고, 본격적인 북한바로알기운동에는 북한이탈주민(탈북자)들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탈북자들이야말로 북한에서 태어나 장기간 생활을 한 이들이기에 그 누구보다도 객관적으로 생생히 북한실상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을 활용한다면, 북한바로알기운동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것이다.

또한 KBS, MBC 등 공중파들이 운영하는 북한관련 프로그램에서 북한의 선전용 영상을 그대로 소개하기 보다는 이 분야 북한 전문가나 탈북자들의 해설을 겸비한 방영으로 제작의 의도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일부 NGO들의 편향된 북한바로알기(실제는 북한체제 선전하기)와의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이들과의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NGO들의 편향된 행태를 완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국내·외의 북한관련 NGO를 통한 민간차원의 북한바로 알기운동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국내·외에 산재해 있는 북한이나 통일관련 NGO들을 활용하여 북한인권 실태, 북한정권 실태, 주민생활상 등을 소개한다면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총련 등 일부 NGO들이 주도한 북한바로알기운동이 학생들이나 우리사회에 먹혀들어 간 이면에는 그동안 우리정부당국이 북한에 관한 정보를 독점하고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 따라서 이제 부터라도 정부당국은 북한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며,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북한전문가, 북한학자나 연구자들에게도 국가정보역량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감하게 제공하여 우리사회에 올바르게도 객관적인 균형이 잡힌 북한관이 구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북한과 이에 동조한 일부 NGO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전개하는 대남선동, 친북행태 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북한을 있는 그대로 알릴때 객관적 북한관이 조성될 것이다. 객관적이며 균형 잡힌 북한바로알기운동에 치중하는 것이 바로 통일교육의 기본 요소이기 때문이다.



① 금강산 금천리 밤나무단지



변재경

(국립산림과학원
임지보전과 이학박사)

2007년 한해를 마감하는 날을 몇일 앞둔 세밑전에 3일간 일정으로 「북한산림녹화사업」 점검을 위해 북쪽 금강산 지역을 방문하였다. 서울에서 아침에 출발한 버스가 반나절을 달려 고성 현대아산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고 남북출입사무소를 거쳐 금강산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북측 군사분계선을 넘자마자 직업적으로 자연스럽게 차창 밖으로 보이는 산에 눈길이 갔다. 길옆에 늘어서 있는 병사들 뒤에 보이는 산은 나무 한그루 없어 쓸쓸하다 못해 황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산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나무가 없기 때문에 지표 고정이 안돼 오랜 기간동안 빗물에 의해 토양이 씻겨 내려가 야산에도 하얀 바위가 드러나 있고, 겨울이라 그런지 풀이 있었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될 수 있었을까?”하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열린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다음날 아침 현대아산 소형버스를 타고 금천리로 향하였다. 마을을 지나 농로를 따라 작은 고개를 넘어 가니 잘 정리된 밤나무단지가 눈앞에 들어왔다. 이곳에는 「북한산림녹화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평화의 숲과 겨례의 숲에서 100ha의 대단위 면적에 40,000본의 밤나무를 식재하였다.



〈식재된 밤나무의 성장모습〉



〈밤나무단지 관리사 및 온실 전경〉

밤나무단지에는 부대시설로 사무실과 창고로 쓰이는 관리동 1개동, 밤나무 묘목 양묘온실 2개동, 관리인 숙소 1개동과 이들 시설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실이 1개동 있었다.



〈밤나무단지 원경〉



〈밤나무단지 작업로 근경〉

밤나무단지를 돌아보기 위해 길을 나섰으나 마땅한 이동수단이 없어 밤나무단지 관리를 위해 우리측에서 제공한 1t 소형 트럭 짐칸에 올라탔다. 식재된 밤나무는 2007년 한해동안 30~70cm의 가지 생장이 있었고 밤이 달렸던 결과지도 보여 잘 활착되어 성장하고 있었다. 차에 탑승한 우리측 관계자는 “밤나무단지 조성에 참여했던 북측 인부들이 2006년에 식재된 밤나무에서 밤이 달린 것을 보고 매우 좋아 했습니다”라고 말한다.

밤나무 단지는 표고 100m~200m의 저해발 산지이고 전반적으로 경사도 그다지 급하지 않으며, 토양도 밤나무 생육에 적합한 지역이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해안가에서 너무 가까워 한창 결실기에 연중 불어오는 바닷바람과 강한 돌풍 등에 의해 낙과피해가 발생할 것이 염려되었다. 유실수뿐만 아니라 조림수종 등 모든 나무는 입지환경과 토양에 알맞은 수종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유실수는 더욱 입지환경 요인과 토양을 많이 가린다.

밤나무단지가 있는 금천리는 관광객들이 지나 다니는 길옆에 위치하여 이미 개방된 지역이라 볼 수 있어 북측에서 이곳을 지정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북측 나름대로 속사정이 있었겠지만 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내륙쪽에 적지를 선정하여 조성했으면 좋았을 것이라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북측 밤나무단지 지배인에게 “이곳에서 관리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니 “밤 생산까지는 앞으로 몇 년 걸려야 하는데 관리 인력들이 생활할 수 있는 밀반침이 필요함니다” “그리구 장비, 도구도 부족함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키울꺼니가 걱정마시라요”라고 말한다.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대단위 면적의 밤나무단지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고정관리 인력이 필요하고, 이들의 의식주 해결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금강산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앞으로 3~4년 후에 금강산 관광객들이 금천리에서 생산된 밤으로 삶은 밤, 군밤을 맛 볼 수 있을 때를 생각하니 저절로 기분이 좋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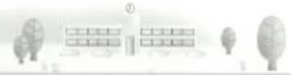
〈밤나무단지를 둘러보기위해
우리 측에서 제공한 1t트럭 탑승〉



〈밤나무단지 토양단면〉



🕒 『북한 기행 : 예전 모습 그대로...』



강석승

(통일부 사이버교육과장)

이번 방북의 경우에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첫날부터 웬지 모를 불안감과 초조감이 뇌리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혹시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엄습하였다. 이런 불안과 우려감의 저편에는 아마도 적진(敵陣) 깊숙이 들어간다는 데에 대한 요인이 작용하기도 하였지만, 최근의 남북관계가 과거와는 달리 경색되어 있는 점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였다.

사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고 '참여정부'가 이끌었던 지난 10년 동안의 남북관계는 "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 교류협력"을 모토로 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저런 명목으로 북한을 방문하였고, 이에 상응하듯 우리의 각종 방송과 언론 등에서는 '북한'을 주제로 한 드라마나 영화, 보도, 해설기사, 기행문 등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냉전시대처럼 북한 주민들을 '뿔달린 도깨비'처럼 인식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졌고, '무장공비'처럼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는 반인륜적인 존재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지 않게 되었다.

이런 저런 상념을 안은 채 태진, 창훈선생 등 일행과 함께 세계 유수의 제철공장이 있는 포항에서 'Ning Du Feng'(寧都峰)이라는 중국선적 화물선에 오른 우리는 2일여의 항해 끝에 북한이 자랑하는 남포갑문을 경유하여 남포특급시에 도착하였다.

북한에서는 동해안의 원산-청진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항구로 꼽히는 남포항에 도착하기까지의 기상상태는 당초 예보와는 달리 망망대해를 관조할 수 있을 정도로 순탄하였고, 시속 15Km에 불과한 항해속도의 무료함을 잊고자 우리 일행은 나이에 맞지 않는 중국어 공부에도 열성(?)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선장을 비롯한 20명의 선원 모두가 '한국어'라고는 "안녕하세요" 정도밖에 알지 못했고, 영어발음도 우리와는 의사소통이 거의 되지 않을 정도였기에 필담(筆談)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덕분에 우리는 '不好(뿌하오)= no good', '沒有(메이요)= nothing', '뚜이부치= I'm Sorry'라는 중국어를 상용화할 수 있었고, 이러한 동안에 무심코 내다보니 '푸른 색'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민둥산이 된 곳에 이르렀으니, 바로 이 곳이 북녘땅이었다.

'먹는 문제'에 이어 '입는 문제', 그리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여건도 갖추어지지 못한 북한의 현실"에 관해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보니 우리를 태운 화물선은 어느덧 남포항에 도착하였고 10명의 검역원, 세관원 등의 입국수속이 이루어졌다.

지금으로부터 약 8년전 찾았던 남포항의 전경은 예나 다름 없이 2-3명이 겨우 탈 수 있는 쪽배나 겨우 10톤이 될까 말까하는 정도의 아주 작은 어선에 겨우 모터를 단 고기잡이 배들 10여척만이 눈에 띄었을 뿐이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조그만 배에서 조개나 전복 등을 채취하기 위해 입에 가느다란 호스를 물고 근 1시간에 걸쳐 잠수하는 어부들이었는데, 함께 탄 국경감시소 직원(대위)은 이들이 잡는 수산물은 '순수 자연산'이라고 자랑한 점이였다.

오늘날과 같은 최첨단 정보과학시대에 아무리 순수 자연산이 좋다고 하여도 개인의 생명을 담보한 채 1-2분도 아니고 무려 1시간 가까이 가느다란 인공호스에만 의존한 채 '깊은 물속에 들어가 고된 작업'을 해야 하는, 그것도 자신의 가족들이 아니라 당과 조직을 위해 의무적으로 물질을 해야 하는 어부의 고통을 그들은 과연 알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었다.

남포항에 접안하자마자 북측의 인수요원들이 승선하였고, 리00, 황00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들 중 황00은 겉보기에도 우람한 체격을 자랑하였는데, 신장이 거의 185cm에 가까울 정도로 호남형이었다. 이들의 안내를 받아 우리 일행이 도착한 곳은 '남포외국인선원구락부'라는 붉은색 글씨가 선명한 곳이었다.

도로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으나, 보수작업을 하지 않아 요철(凹凸)상태로 되어 차가 매우 심하게 흔들릴 정도였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손수레나 소달구지, 자전거에, 심지어는 국방색 붓짐에 무언가를 가득 넣어 등에 매고 걷는 사람들도 보였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다니는 차량도 거의 눈에 띄지 않는데 파란색 복장에 선글래스를 끼고 연신 수신호를 하는 교통원의 모습이었다. 아마도 남쪽에서 손님(?)이 오니 그 시간대에 맞추어 임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날 정도였다.

구락부 앞의 바다에서는 예전에 이 곳을 방문했을 때처럼 주낙을 통해 고기를 잡는 주민들이 더러 있었고, 그 옆에서 구경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일행이 탄 파란색 벤치가 들어서자 역시 예전처럼 잔뜩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이들을 바라보면서 조선시대에 어는 학자가 썼던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없다”는 시조의 한 구절이 불현듯 뇌리를 스쳤다. 그렇다. 예전에 이곳을 찾았을 때처럼 남포항의 전경과 대동강물, 외국인선원구락부는 거의 그대로 그 자리에 변함없이 서 있는데, 우리를 안내하는 인수요원은 훨씬 나이가 어린 사람들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필자가 나이를 먹은 것인지, 아니면 북한체제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점은 어느덧 2008년 하고도 5월에 접어들었으니, 정말 ‘세월은 가고 오는 것’이라는 진리를 입증해 주는 것 같았다.

구락부에 들어서서 만난 접대원이나 매대의 판매원, 식당의 봉사원들도 모두 예전과 바뀌었으나 구락부 건물은 예전과 거의 그대로였으며, 예전에 500석이 넘는 대극장에서 영화를 보며 담배를 피워물었던 극장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예전에 만났던 ‘김동철’이라는 접대원을 다시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당시 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던 ‘파랑새’ 박제를 구입하였었는데, 이 접대원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너무도 반가워하는 김선생과 10여분 동안 이야기를 한 후 안내를 받아 2층의 객실로 들어가니 역시 예전과 같은 일제 TV(National)가 놓여 있었고, 마치 우리의 ‘60년대에 온 것’ 같은 이불장과 응접세트가 비치되어 있었으며, 냉장고에는 ‘신덕샘물’ 2병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정 보다 늦게 도착하여서인지 1층과 2층에 있는 식당에는 우리를 제외하고는 손님이 전혀 없었으며, 전반적인 조명은 긴박한 에너지사정 때문인지 어두운 편이었으며, 식탁위에는 급작스런 정전에 대비하기 위해 초와 랜턴이 놓여 있었다.

북측의 인수요원들과 늦은 만찬을 함께 한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통일’에 관한 주제로 담소를 하였으며, 이런 과정에서도 북측 요원들은 우리의 ‘4월 총선’이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과 대북 지원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민족끼리’와 ‘10.4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주문하였다.

남포해안에서 갓 잡았다는 대합조개와 석굴을 안주삼아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니 시간은 어느새 11시를 넘고 있었고, 오랜 여정에 지친 우리들은 각자의 방으로 올라가기 위해 식당문을 나섰다.

아침 일찍 일어나 조깅을 하려고 1층으로 내려가자 언제 일어났는지 북측 요원들이 “잘 주무셨습니까? 식사 하셔야지요? 이리 오시라요”라고 인사를 건넨다.

그들의 안내를 받아 식당에 도착하니 셋노란 후라이를 비롯하여 북어국, 백김치 등으로 단장한 조반이 차려져 있었고, 속풀이를 하려 몇 숟갈 밥을 먹는 도중 황00는 우리의 눈치를 살피면서 “밤새 작업을 해서 하역

을 마쳤으니, 곧 떠날 준비를 하시라요”라고 말을 건넌다.

“아니, 이틀씩이나 꼬박 걸려 겨우 어제 도착했는데, 밥 먹기가 바쁘게 떠나라니...” 채 말끝을 맺지 못하고 태진-창훈선생을 건너다 보니 이들 또한 무척이나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을 감추기 힘든 표정이었다.

특히 이들은 이번 방북이 처음이어서 나름대로 30-40분 거리에 있는 평양시내에 가서 옥류관 냉면을 맛보고 만경대와 을밀대가 있는 대동강변을 걸어 보려는 기대를 한껏 하고 왔을텐데, 그런 기대가 밤새 깨어지다니 너무도 허탈한 마음을 감추기가 어려운 것 같았다.

만 15시간의 만남을 뒤로 한 채 작별인사를 하는 북측 요원들의 얼굴에는 우수가 곁들여 있었고, “다음에 꼭 오시라요. 그 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혁명의 수도를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을 건네받으면서 우리를 태운 화물선은 어느덧 남포갑문을 향해 가고 있었다.

우리가 북측의 묘박지(Pilot Station)에 도착하기 까지 안내를 맡았던 국경감시소 직원들과 대작을 하는 동안 그들로부터 전해들은 몇 가지의 소식으로 이 글을 마치려 한다.

“우리는 약 5천원의 월급을 국가로부터 받지만, 쓸 곳이 별로 없습니다. 최근 국가로부터의 배급이 줄어들어 인민들이 생활은 긴장되어 있으며, 입는 문제도 그리 녹록하지않은 않습니다. 우리 같은 계층은 금요일에는 인근 협동농장에 가서 금요로동을 합니다. 이 로동은 건강한 육체를 가질 수 있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힘들게 일하는 농민들의 입장을 리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① 평화네트워크



이 다 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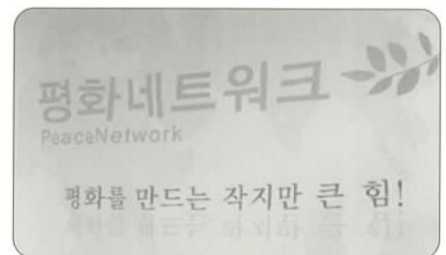
한 두달 걸려서 오는 반가운 메일이 있다. 여러 활동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평화 네트워크(이하 평네)에서 마련하는 '평화카페'에 대한 내용이다. 말 그대로 평화 카페는 평화 네트워크에서 정한 주제에 따라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여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다. 딱히 정해 놓은 형식은 없지만 주제에 따라 다소 딱딱한 토론의 자리가 되기도 하고, 모이는 사람들의 성분(?)이나 배경에 따라 분위기도 달라진다.

이 모임의 이름이 '평화카페'가 된 이유는 평네 사무실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모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란다. 한달에 한번씩 카페를 빌려 우리나라에서 주목받고 있거나, 주목해야 하거나 주목해, 볼 가치가 있는 평화의 소식과 소문들을 풀어본다. 물론 지금은 그 카페가 이불가게가 되어버려 평네 사무실에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지만....

평화와 관련해서는 포럼과 세미나, 학술회의 형태의 연구, 토론모임이 많이 있다. 그런 모임은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전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평화카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평화'를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다. 직업이나 전공분야와 상관없이 이 시대의 평화와 통일 등의 주제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와서 참여할 수 있다. 전문적 관련자 보다는 '관심이 있는 사람'을 환영한다. 거의 모든 NGO 단체는 항상 사람을 찾고 사람이 오면 좋아한다. 평네 카페도 마찬가지.

우리가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화에 대해 듣고 말하고 체험하는 장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인데 이런 모임이 3년 전부터 끊이지 않고 열린다는 사실은 고무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다만 더 많은 이들이 찾아올 수 있게 알리는 일에 한계가 있다는 것과 처음 시작했을 때 학생들과 관련단체 활동가를 중심으로 모이던 분위기가 너무 학술적으로 흘러 일반인에게 닫힌



모임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마음도 있다.

그래서 참석자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모임은 언제였냐고 물으니 탈북자를 초청해 압록강을 건너 후 어렵고 힘들었던 생활과 남한으로 건너와 다시 분투하며 고생하는 이야기였다고 하였던 너무 배고팠고, 또 막연히 자유를 얻고 싶어서 남한에 와서 보니 남한은 생각했던 곳은 아니었다고..... 지금은 또 다른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만나는 자리였다. 막연하게 평화와 통일을 말할 수 있지만 사람을 만나는 일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정서와 느낌이 전달되고 그다지 많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진지하게 이야기를 주고 받을 때 그것은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된다.

재일동포를 초청해서 그분이 경험한 분단과 통일에 대한 생각을 들으면서 우리가,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통일관이나 평화관이 얼마나 편협하고 배타적인가 생각하며 생각의 넓이를 트고 깊이 있게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우리가 분단의 문제와 맞닥뜨릴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코리아 디아스포라(자기 나라에서 내외부적 이유로 이주한 백성)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평화에 대한 듣기와 말하기, 그리고 의미있는 만남은 좁은 생각을 넓히고, 가벼운 생각을 진지하게 만들어 준다. 평화에 대해 수다를 떨고 싶다면 한번 가보시길.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사무실 벽면〉

6

국민 합의



- 통일칼럼

- 현장에세이

- 평화열차

- 참여마당





① 통일 체험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야 ...



김 경 응

(국회 개성포럼 자문위원장)

“개성공단은 한반도의 미래이다.”

미국의 전 국방장관 W.페리가 지난해 개성공단을 둘러보고 밝힌 소감이다. 그는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국방장관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게다가 대북 강성 인물로 분류되는 인사이기에 개성공단을 좋게 평가한 이 말은 일견 생뚱맞게 들릴 정도였다.

페리 전 장관은 왜 이런 소회를 피력했을까? 사실, 그의 이런 표현은 정치적인 배경을 깔아서 다소 부풀린 수식의 느낌도 없지 않다. 하지만 한마디로 페리가 ‘잘 봤다’고 보는 이유는 이렇다.

먼저, 개성공단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단이 생긴지 5년째를 맞는 현재 누적 생산액은 3억 5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올 연말이면 6억 달러는 무난하리라는 예상이다. 공단의 월 평균 생산액이 2천 5백만 달러이므로 2010년 쯤에는 연간 최소 10억 달러는 넘어서리라는 계산이다. 그동안 개성공단을 조성하는데 든 비용이 5억 달러 안팎이었으니까, 이 통계만으로도 경제성은 보장되는 셈이랄 수 있겠다. 물론 개성공단 보다 경제성이 훨씬 뛰어난 곳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남북의 특수한 분단 상황을 감안할 때, 이만하면 괜찮은 성적표 아닌가?

개성공단은 또한 남북이 같이 잘 살고, 공동이익을 나누는 거대한 실험장이다. 그리고 이 실험은 한반도의 평화로 이어지면서 국제사회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은 남북 주민들이 어우러지는 통일교육의 생생한 현장이다. 남측의 기업인들은 물론, 관광객과 행사 참관인들이 북측 상대와의 접촉면을 넓혀가는 자체가 좋은 통일교육이다. 앞으로 통일교육의 중간전달자격인 초·중·고의 일선 교사들을 비롯하여 대학교수나 각급 교육기관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개성을 많이 방문하게 되면, 그 만큼 통일교육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이 개성공단을 만들어서 각기 경제에 도움이 되고, 평화롭게 사는 길이야말로 민족생존의 지상과제라는 사실을 일깨웠다는 점만으로도 좋은 점수를 줄 만한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남북은 이제 개성공단을 더욱 발전시켜 국제 경쟁력을 배가하면서 제2, 제3의 공동번영 사례를 만들어 가

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같은 개성공단의 실용적인 당위성 앞에 갖가지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북핵문제 같은 정치 군사적 장벽이 가로 놓여있고, 이 때문에 개성공단은 2단계로 늘리려는 실행이 늦춰지고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이 지금보다 더 활기차고 빨리 발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북핵 문제가 하루빨리 투명하게 풀려야 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개성공단은 2단계에서 공단 5km² (약 150만평), 배후도시 3.3km² (1백만평) 규모로 계획되어 있다. 그러니까 1단계까지 합하면 공단 면적은 8.3km² (약 250만평) 규모로, 인천의 남동공단 보다 약간 작은 수준이다. 인천 남동공단은 9.55km² (약 290만평) 규모에 3,20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개성공단 역시 최소한 이 정도의 불륨을 가져야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고 평가된다. 현행 1단계 계획에 머문다면 뛰다만 꼴이 되기 십상인 것이다.

1단계 분양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입주 희망기업들은 얼마든지 많다. 중소기업들은 중국, 동남아에서 경영여건이 나빠지고 있다며 그 대안을 개성공단에서 찾으려하고 있다. 정부가 그 길을 친절하게 안내해야 마땅하다.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활로로 개성공단을 지목하고 있는데 정부가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2단계 사업은 넘어야 할 고개가 결코 만만찮다.

첫째, 업종의 다각화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과제이다. 1단계는 의류와 신발, 가방 등 노동집약업종이 주류를 이뤘다. 초창기 남북 경제협력의 기반을 쌓자는 취지였으니 그럴 법 했다. 2단계에서는 기계, 전기, 전자 등 기술집약적 공단으로 만들어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수준으로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 수도권과 서해안의 산업?기반 시설과 연계해서 개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하겠다. 2단계에 이르러서는 개성공단이 수출기지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인력 확보가 관건이다. 현재 북측 근로자는 69개 기업에서 27,000명 정도 일하고 있다. 개성 인근에서 공급 가능한 인력은 5만명 안팎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인력 5만여명은 다른 곳에서 총원해와야 한다. 북측 근로자의 숙소 문제도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 북측 농업 인구를 공단 인력으로 돌리는 방법도 괜찮다. 그러자니 농업 현대화가 병행되어야 하는데 비용이 문제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비용이 년 4천억원 안팎으로 낭비되고 있다.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30%씩만 줄여나가도 환경 선진국으로 한걸음 다가설 수 있고, 요긴한 곳을 가려서 투자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셋째, 기업하기 좋고 투자가 원활한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개성공단에 들어간 기업들은 하나같이 3통(통행, 통신, 통관)의 불편함을 지적하고 있다. 초기에 비하면 진전이 있으나, 2단계로의 진입을 위해선 3통 문제가 과감히 해결되어야 한다. 고성능 컴퓨터가 없이, 휴대용 전화로 국내외 통화를 마음대로 사용함이 없이, 인적 통행이나 물자 통관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국제 경쟁력이 나올 리 없다. 개성공단은 '개성공단지원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서 각종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2단계에서는 법과 현실이 부합되도록 내실을 기하도록 해야겠다.

개성공단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 남북이 지혜를 모아 최선의 길을 찾아서 함께 나가야 한다. 개성공단은 일면으로는 분명하게 대북 사업이기도 하지만 다른 면으로 볼 때는 우리의 산업정책적 영역이며, 국제평화사업의 상징일 수 있다. 2단계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멈출지를 선택하는 것은 사실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개성공단이 통일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현장체험의 장(場)'이 될 수 있도록 북한당국의 '완전하고도 정확한 핵폐기' 의지와 실천이 그 어느 때 보다 요망되는 시점이다. 전 세계적 조류이자 시대적 요청인 '평화와 안정' '교류와 협력'에 북한이 한시라도 빨리 순응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남북관계개선을 통해 평화통일로의 길로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첩경임을 북한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① 평양 양묘장을 다녀와서 ...



변재경

(국립산림과학원
임지보전과 이학박사)

평양시 순안구역 6·15양묘장은 통일부와 우리측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민화협)에서 주관하여 「2007년도 민간단체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림녹화시범사업지이다.

「평양 6·15 양묘장」의 준공식 참가와 사업점검을 위해 2007년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하게 되었다.

양묘장 준공식과 남북공동 기념식수를 위해 민화협, 평화의 숲, 정당, 언론계, 환경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127명의 인원이 '김포 → 평양' 간 직항로를 이용하는 일정이다. 평양은 난생 처음 가보는 지역이고 북측 고려항공편을 이용하는 일정으로 잡혀 있어 기대감, 설렘과 점검사항을 생각하느라 출발하기 전날 밤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수속을 밟고 고려항공 비행기에 오르니 붉은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승무원이 밝은 미소로 맞이하였다. 지금까지 본 여러 나라의 항공사와는 색다른 모습이다. 이륙 후 안정된 고도에 들어서니 승무원들이 기내서비스를 했다. “손님, 뭘 드시겠습니까?” 나는 손으로 오렌지 색깔의 음료수를 가리켰다. “단물 드시겠습니까?”로 뜻밖의 대답에 의아했지만 순간적으로 “아침 북측에서는 음료수를 단물이라고 그러는 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김포에서 9시 30분경에 이륙한 비행기는 1시간도 채 못돼 평양공항에 도착할 것이란 안내방송이 나온다. 이렇게 가까운 곳을 평상시에는 북경을 거쳐 1박을 한 뒤 한참 돌아서 가느라 돈과 시간을 엄청나게 낭비하였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분단현실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

창밖에 보이는 평양상공 길목의 산마다 사진에서 본 것과 같이 산 밑에서부터 정상까지 다락밭을 개간한 것이 보인다. 나무가 없는 산은 장마와 많은 양의 비가 내릴 때 토양이 씻겨 내려가 하천이 범람하여 농경지가 침수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식량난이 가속되는 원인이 된다.



〈공항버스에서 바라보이는 평양공항〉



〈평양 공항에서의 단체사진〉

평양공항에 도착하니 공항건물에 붙어있는 환영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국제공항이지만 규모와 시설은 우리의 작은 소도시에 있는 공항과 비슷하였다. 버스로 평양시내 양각도호텔까지 들어가는 길은 지나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어 한산하기 그지없다. 오가는 자동차도 별로 없고 신호등도 없는 네거리에서 수신호로 교통정리를 하는 여자경찰이 유독 눈길을 끈다.

다음날 아침 평양시 순안구역 대양동에 위치한 6·15양묘장에 도착하였다. 6·15양묘장은 북측의 기존 중앙양묘장 부지내의 10ha 면적에 시설온실 2개동, 태양광발전시설 1개동 및 관리동이 1개 있고 연차적으로 9ha의 노지묘포를 건설할 예정으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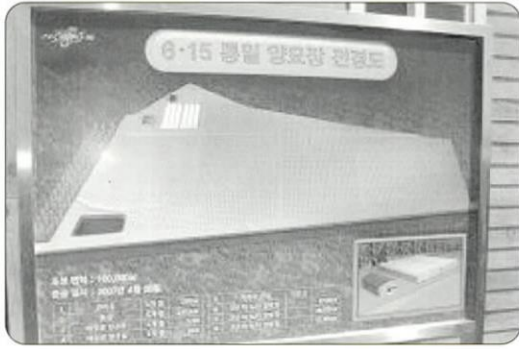


〈양묘장 준공식〉



〈남북공동나무심기행사〉

양묘장 준공식에 참석한 뒤 묘포와 시설점검을 위해 둘러보았다. 노지묘포는 과거 논으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미사(clay)와 점토(clay) 함량이 70% 이상으로 매우 높아 묘목을 키우기에는 적합한 토양이 아니었다. 묘장을 만들기 위해 경운을 하였으나 30cm가 넘는 흙덩어리가 그대로 있어 파종도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양묘장 주변의 토양은 수억년전 바다이었던 곳이 융기되어 생성된 퇴적암지대로 점토함량이 높은 특징이 있다. 양묘장을 조성하는 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입지환경 요인과 토양의 물리·화학적이다. 적지가 아닌 곳에 양묘장을 세우면 토양을 개량하는데 많은 노력, 예산 및 시간을 들여야 한다.



〈평양 6·15양묘장 현황판〉



〈평양양묘장 파종상〉

양묘장 지배인에게 “이런 토양에서는 양묘가 잘 안됩니다. 주요 양묘 수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소나무하구 잣나무 그리고 붓나무 같은 것을 키우고 있지요” “예? 붓나무요? 어떻게 생긴 나무입니까?” “왜 잎이 동그하면서도 길죽하구 크면 나무 껍데기가 하얗게 변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듣고 보니 자작나무를 여기서는 붓나무라고 부르는 모양이다. “중앙양묘장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족히 100ha가 넘습네다”. 100ha 면적이면 우리나라 국유양묘장 전체 규모와 비슷한 면적이다. 한 양묘장의 면적이 그럴까 싶어 “100ha요? 100ha에서 몇 퍼센트의 면적에 양묘를 합니까?” “!.....” 아무런 말이 없다. “여기서 보이는 곳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지배인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북측에서는 널찍하게 군데군데 나무를 식재한 곳과 양묘를 하지 않는 나지 상태의 면적도 양묘장 면적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혹시 양묘장의 토양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우리 공화국 연구사들이 다 과학적으로 합네다. 당연히 있지요” “그러면 토양분석자료를 저희가 서울로 떠나기 전까지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그러지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러나 서울로 떠나기 전까지 토양분석 자료는 끝내 받아 볼 수 없었다. 왜 이렇듯 자기가 한 말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지, 혹 그런 약속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① 「7년,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최용석

(통일부 인도협력기획과
서기관)

6자회담 차원에서 북측에 지원되는 에너지 설비 자재를 전달하기 위해 얼마전 남포를 다녀왔다. 포항에서 출발하여 3박 4일에 걸친 항해를 거쳐 목적지인 남포에 도착하였다. 남포라고 해봐야 남포외국선원구락부(우리의 여관 정도에 해당하는 숙박시설)에서 겨우 하루를 묵으면서 남포항 주변을 둘러본 게 고작이었다. 통일부에 근무하는 10여년 동안 필자는 여러 번 북한을 드나들었고, 남포도 2000년에 2번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도 굳이 토·일 휴무까지 반납해가며 남포를 가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다. 곧 대량 아사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부 단체의 주장이 사실인지, 그것이 궁금했기 때문이다. 일종의 직업병이랄까?

최근 북한이 남한당국자의 방북을 전면 불허하면서, 에너지 설비 자재 지원은 통일부 직원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됐다. 북한을 간다고 한들 방문할 수 있는 곳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식량난의 전모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비록 극히 제한된 지역내에서 이기는 하지만 직접 눈으로 보면 북한의 식량난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이나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남포행을 택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식량난이 심화되면 나타나는 증후들이 있다. 몇 개 예를 들어보자. 식량난이 심화되면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이 사라진다. 잡아 먹어버리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뛰어놀지 않는다. 웃지 않는다.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최대한 적게 소모하려는 인간의 생존본능 때문이다. 팔(상박)이 가늘어진다, 먹지 못하면 단백질로 구성된 근육이 에너지로 소모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북한에서 남포, 청진 등 국제무역항이 있는 곳은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히 식량사정이 좋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둔다.

아무리 북한이 남포구락부에만 우리의 발을 묶어둔다고 해도, 주위의 모든 것을 가릴 수는 없다. 남포구락부 인근에 4층짜리 층집(우리의 아파트)이 많이 있다. 남포에 도착한 다음날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모습, 학생들의 등교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전날의 과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일어났다. 남쪽에서 듣던 것과는 달리 이들은

모두 활기차 보였다. 7년 전에 비해 옷도 많이 깨끗해졌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여성들의 옷차림도 많이 세련되었고 화사한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 여성도 간혹 눈에 띄었다. 경계심에 가득 차서 도망치듯 눈길을 피했던 그들은, 2008년 5월 남포에서 남한 사람이 명백해 보이는 나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



2000년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3세~6세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큰 소리로 떠들고 놀고 있었다.

상당히 활동량도 많았다. 부모들이 아침식사를 하라고 불러도 아이들은 놀이에만 몰두했다. 무슨 뜻인가? 이들은 배가 고프지 않다는 것이다. 배고픈 아이들은 밥 먹으라는 소리에 제일 먼저 반응하는 법이다. 뭔가 이상했다. 식량난? 그런 것이 정말 진행되고나 있는 건가? 7년 전과 달리 개 짖는 소리가 많이 들렸고 총집 입구에는 커다란 개가 3마리 정도 보였다. 개 짖는 소리로는 대여섯 마리는 될 것 같았다. 개가? 그것도 큰 개가? 7년 전에는 개 짖는 소리, 심지어 새소리도 별로 없었다. 구락부 식당에서 단고기국(개고기)을 주길래 어디서 구해왔는지 의아했던 기억이 났다. 7년 전에는 신발을 신고 노는 아이가 많지 않았다. 논다는 말도 어색했다. 그냥 멍하니 앉아있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2008년 5월 남포의 아이들은 모두 신발을 신고 있었다. 중국산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신발을 신고 있었고, 옷을 입고 있었다. 옷!, 상상이 되는가? 7년 전 남포의 아이들은 냅마를 걸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이다. 남포구락부에서 부두로 통하는 길을 지키고 서 있는 여군은 얼굴에 살이 통통히 올랐다. 아침행군을 하는 군인들은 키는 작았지만, 절도있게 행군했다. 구락부에 인접한 총집

의 아파트 유리창을 살펴보았다. 가로 11개 세로 25개 정도의 창문이 있는 4층짜리 총집에 단 곳만 유리창만 없었다. 7년 전에는 1/3이상이 유리창이 없거나 깨어져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7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착각일까?



뭔가 이상했다. 이게 아니다싶었다. 2 시간가량 관찰을 하다가 구락부로 돌아왔다. 그리고 보니 구락부도 많이 바뀌었다. 어제는 북측 관계자와 술자리 토론을 하느라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구락부 객실의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은 모두 LG제품이었다. 에어컨에는 생산년도와

애프터서비스 전화번호 등을 적어두는 스티커도 뜯지 않은 채 그대로 붙어있었다. 03.11월 제조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잠시 우스운 생각이 들었다. 그 스티커에 적힌 전화번호는 수신자부담의 우리 전화번호였다. 몽골에서 목동행이라고 적힌 차량이 운행되는 거나 비슷하였다. 그리고 보니 곰팡이가 썩거나 낡아 헤졌던 벽지도 산뜻한 색깔의 새로운 벽지로 도배되어 있었다. 화장실의 욕조, 변기도 모두 신형으로 교체되어 있었다.

7년 전 남포의 국제전화는 딸딸이(군에서 사용하는 4각형의 전화기)를 돌려서 교환원에게 전화번호를 불러주어야 가능했다. (우리는 아마 '80년대 초반 즈음에 사라졌던가?) 지금은 전화번호를 누르기만 하면 국제전화가 된다. 평양(고려호텔)과 차이점은 객실에서 전화를 할 수 없고, 구락부내 별도로 마련된 전화실에 신고하고 전화를 한다는 것이었다.

남포의 통행검사원은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배급이 많이 줄어들어 생활이 곤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붙였다. 아직은 참을 만 하다고..... 미국에서 6월말부터 50만 톤의 식량이 들어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처럼 말단 직원에게 차려질 몫은 없다(분배가 안 된다)고 했다. 처음에는 소고기 파동 등을 언급하며 남측을 비난하던 그는 취기가 오르자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기술과 자본'을 가진 남쪽이 자신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남포의 배수리 공장도 남쪽의 손길을 기다린다고.....



너무 사소한 얘기를 해서 독자들이 지겨워할지 몰라 한마디만 언급하고 글을 마치려 한다. 지난 10년간 남북 교류협력은 느리지만 북한을 조금씩 변화시켜왔다. 변화를 보려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정도의 변화를.....


 ① 수업에서 찾는 평화


이 다 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생)

촛불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수많은 촛불이 불꽃받이 되어 타오르고 있다. 병든 소를 굳이 먹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병들지 않겠다는 정상적인 욕구가 손에 올려 든 촛불로까지 되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 비통하여 잠이 오지 않는 평화없는 나날들을 지내고 있다.

평화는 소통에서 시작된다. 소통이 막히고 한쪽이 소통을 거부할 때 평화는 깨지기 마련이다. 평화는 관계에서 찾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 혼자 산다면 평화는 의미가 없다. 개인 간의 관계이든 공동체 관계이든, 국가의 관계이든, 평화는 관계 안에서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소통은 평화의 기본 요소가 된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불평화(不平和)' 상태는 소통을 거부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것도 아주 많은 이들의 간절하고 당연한 소망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결과다. 이명박 정부는 처음에 말했던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그것도 진심으로.....

'변화를 각오한 들음'에서 평화의 일들이 다시 새롭게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화교육이란 제대로 된 소통방법을 가르치는 것에서 시작된다. 평화가 무엇인지 알려면 평화의 개념을 죽 나열하고 외우는 방법보다는 내가 '불평화(不平和)' 상태에서 평화를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우리나라에서는 안보의식에 기초한 평화교육(이런 말 자체가 모순이다)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개인적이면서도 거시적인 평화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도 언제나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는 않지만 묵묵히 장을 열고 사람들을 기다리는 모임은 있다.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고민을 나누고 배울 곳이 없



〈[기독교 평화아카데미] 수업 장면〉

어 답답해 하는 이들에게 가뭄끝의 단비같은 곳이 있다.

평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평화 건설자를 일으키고자 네 단체가 뭉쳤다. '비폭력평화물결', '한국어나 뱀티스트센터', '청년평화센터 푸름', '개척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네 단체가 손을 잡고, 2008년 5월 1일부터 8주간 평화에 대한 지식과 태도, 기술 등을 가르치는 '기독교평화아카데미'(이하 기평아)를 개설했다. 평화를 만드는 조정자훈련, 평화교육의 실제 등의 강좌를 통해 평화운동을 활성화하고 평화활동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되지만 한국 기독교에서는 아주 낮은 이름들이다. 이들은 기독교의 주류는 아니고 평화교회의 전통을 인정하고 계승하는 소수의 무리들이라고 한다.

훈련내용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1. 평화를 만드는 조정자 훈련과정

갈등관계의 원인을 분석하고 의사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나의 갈등뿐 아니라, 제3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배우게 된다. 이 강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사회와 개인, 가정과 단체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풀어서 평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된다. 평화의 개념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목적으로 인식된다.

2. 평화교육의 실제과정



〈개인평화사명선언서작성〉

평화교육자로서 학생들과 어떻게 서로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수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배워나가는 시간, 그렇기에 각자의 경험들을 나누고 그것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났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강의의 중심이 된다. 주로 교사들이 수강생이다. 학교에서 학생들과 지내면서 평화를 가르치고 평화를 이루는 일을 학생들 안에 가르치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교사들이 열심히 배우고 있다.

3.역사에 대한 반성 과정

과거의 기독교 선교가 평화가 아닌 분쟁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반성하고 이제는 기독교가 평화건설자의 역할을 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다. 제국의 식민지 침탈과 깊은 연관을 맺고 추진된 근대의 기독교 선교와, 십자군전쟁을 통해 이식된 피의 기독교가 현재 어떤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현재 기독교인들의 평화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면서 기업화된 대형 교회와 권력을 같이 하고 공격적으로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 기독교가 가진 문제점들을 생각할 수 있는 강좌인 듯하다.

취재 차 '기평아'를 방문했을 때는 평화교육의 실제 강의를 한창이었다. 수업의 강사가 캐나다인 '쉐럴'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영어강의인가 하여 다소 당황했으나, 그녀의 정확한 한국어 발음은 우리를 안심시켰다. 다섯 번째 수업시간이었던 그 날의 주제는 '평화교육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수업시간의 처벌이 폭력과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처벌을 통해 변화되는 과정을 보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가? 등의 질문에 대해 각자의 생각들을 나눴다. 실제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처벌은 일시적 효과만을 줄 뿐 근본적인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부모님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처벌하기 보다는 용서하고 격려해 주셨을 때,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변화했다는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이다.



〈기평아〉

함께 강의를 들으면서 오래 전에 한 지인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한 남자 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졸던 학생이 교사에게 들켰다. 그런데 교사가 처벌을 하려하자 3층이던 교실에서 창밖으로 뛰어 내렸다고 한다. 그 친구가 잠이 덜 깨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 그 교사는 학생을 처벌할 때 발로 밟거나 무식하게 때리는 게 일상이었고 이유가 무엇이든 맞은 학생은 코피가 나고 거의 일어나지 못하는 게 다반사였다고 한다. 그래서 겁에 질린 그 학생은 교사에게 맞는 것 보다는 차라리 '무모한 탈출'을 감행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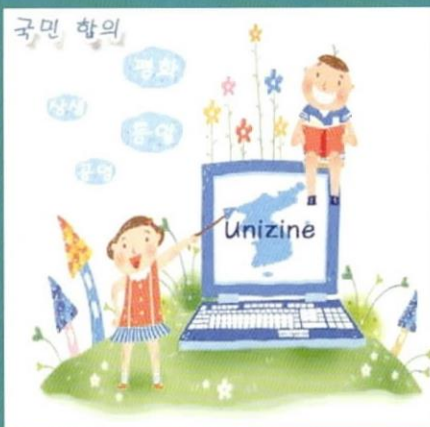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교실에서 평화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참 낯선 풍경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사의 권위가 폭력을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있는 통제권과 함께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다. 군사문화가 곧 교실의 문화였고 사회의 문화였다. 그러나 지금은 교사들이 먼저 나서서 평화를 고민하고 가르치고 평화를 이루고자 한다. 지금까지 계속 되어온 여러 가지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되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시간이었다.

모든 프로그램은 '개척자들'이라는 단체에서 관리한다. 간사역할을 맡고 있는 한정애 간사와의 통화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물어봤다. 원래는 개설된 강좌가 5개였단다. 그런데 수강생이 없어서 2개가 폐강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정말 강의를 들어야 할 사람들은 오지 않고 이미 평화운동을 하고 있거나 평화교육을 시도하고 있는 이들이 주로 와서 강의를 듣기 때문에 좋은 부분도 있지만 저변이 확대되지 않아 고민이 많다고 했다. 여기도 역시 '사람'이 문제구나!

평화는 소통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진정한 소통은 '말하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라 '듣고자 하는 각오'에서 시작된다. 가해자와 피해자로 너무 쉽게 갈라지는 세상에서 평화를 배우는 일은 그렇게 멀거나 대단한 일이 아닌 것 같다. 소통의 시작은 평화가 오는 지름길을 내는 일이다. 멀지 않은 곳에서 촛불을 든 이들의 함성이 들린다. 오늘까지만 이었으면 좋겠다. 한쪽만 열심히 말하는 것이. 이것은 평화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7



- 통일칼럼

- 현장에세이

- 참여마당





④ 사이버 학교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송 두 록

(서울고등학교 교사)

우리들은 지금 지식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고속통신망의 설치로 인터넷 환경이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 뒤지지 않을 만큼 앞서 가면서 세계적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교육체제 역시 유치원·초등학교 단계에서의 기초교육에서부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등교육에 이르기까지 하드웨어적인 기반이 잘 되어 있다.

문제는 학교교육에서의 소프트웨어적인 혁신 노력인데, 그러한 혁신 노력의 책무는 일차적으로 학교 교사들에게 주어진다.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 교사들이 자신의 담당 과목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하며 학생들이 독자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정보를 획득하고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제를 통일교육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남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민족공동체에 대한 앎과 삶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되, 이러한 지식들을 학생들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전달 능력과 지도 능력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 된다. 이론적으로, 인터넷에 올려진 정보는 누구에게나 개방적이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역시 매우 다양하다. 통일교육 담당 교사는 인터넷에 올려진 이러한 지식과 정보들 가운데 통일교육에 적합한 지식과 정보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알아서 가장 최적의 통일교육 환경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주어진 교육과정의 어떤 내용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학생들의 그러한 관심이 통일교육에 대한 학습동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 콘텐츠로 표현되고 있는지 등에 관해 충분히 고려해서 교육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때 통일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학교통일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 학교교육에서 통일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거나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어서 남북한 간의 이질성이 부각되어 왔다

는 통일교육의 구조나 내용 문제부터, 통일교육이 교사 위주의 강의로 이루어지거나 이벤트적인 행사 위주로 이루어지다보니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저하시켰다는 방법적인 문제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부각되었다. 우리의 학교통일교육은 다음과 같은 통합성, 자발성, 체험성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분석된다.

첫째, 통합성의 원칙이다. 통합성의 원칙을 강조하는 이유는, 「2007 통일교육 기본 계획」에도 기술되어 있듯이 “남북 관계의 진전에 따라 남북 통합과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 함양이 통일교육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자발성의 원칙이다.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말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듯이, 학교통일교육이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을 해소하고 참여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체험성의 원칙이다. 학교통일교육은, 현행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과 같이 교과서 설명 위주로 이루어지기보다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거나 활동 중심으로 교육하는 등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하는 통일교육을 통해 학생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한편, 사이버 교육 또는 가상 교육이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생성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이버 교육은 일부 계층의 지식과 정보의 독점 현상을 없애고 누구나 쉽게 지식과 정보에 접할 수 있게 해 주고, 지식과 정보의 다양한 생산과 이용에 따른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 주며, 지식과 정보의 표현 방법 역시 유연성과 복잡함이 공존하기 때문에 학생 중심 교육이 되기 쉽다.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통일교육은, 실시간/비실시간 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토론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여러 통일자료를 수집하게 함으로써 쌍방향성과 자발성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사이버 통일교육이 좀더 수월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통일교육 콘텐츠를 구성하는 내용과 소재를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 문화, 즉 의식주 생활·관습·가족 관계·관광 자원 등을 중심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들 자신이 민족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의식이 학습의 모든 내용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학교통일교육이 지향해야 할 통합성, 자발성, 체험성의 원칙이 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이버 학교통일교육을 위한 콘텐츠 면에서는 앞에서의 개선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사이버 통일교육의 체제 면에서는 교사나 학생들이 통일 관련 지식 정보를 주고받는 노력을 조금 더 효율화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한다. 사이버 학교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각 기관마다 다양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 유사한 내용의 콘텐츠들이 많이 중복되어 탑재되어 있으며, 사이트를 활용하는 교사나 학생 역시 각 사이트마다 회원으로 가입해서 자신의 모든 ID와 PW를 숙지해야만 하는 부적합하면서 낭비적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학교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 중에서 대표 기관을 선정하여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없는 내용들만 다른 기관들이 각자의 사이트에서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교사나 학생이 대표 기관의 사이트에만 가입하면 다른 기관의 사이트들도 자유롭게 검색하고 자료 수집이 가능하도록 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현행 사이버 통일교육 체제를 미래지향적 입장에서 개선한다고 생각해 볼 때 인터넷 통일교육방송의 활용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혁명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다. 왜냐 하면, 디지털 혁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고 일하는 방법과 사고하는 방법이 바뀌고 있으며, 심지어는 노는 방법까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교사들은 이러한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아 디지털 혁명을 교육에 받아들여서 교육 환경을 조성해 갈 수 밖에 없다. 그럴 경우 우리들이 사이버 학교통일교육의 체제와 콘텐츠를 조금만 더 적합한 것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전통교육 방식에 비해 같은 비용으로 훨씬 많은 학생들을, 그것도 각자가 필요한 시간에 학습하도록 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⑥ 묘향산에서 읽은 마음속 변화



변재경

(국립산림과학원
임지보전과 이학박사)

북한 산림녹화시범사업지 현장점검을 위해 방북한 뒤 평양시내 양각도 호텔에서 이틀을 묵고 3일째 되는 날, 아침식사를 위해 식당에 내려가니 오늘 일정이 바뀌어 예정에 없던 묘향산에 간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원래 일정은 일요일이어서 평양근교 유적지를 돌아볼 예정이었으나 북측에서 묘향산으로 일정을 바꾸었다고 한다. 아마도 이번 방북단 인원 구성이 정부 주요인사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포함되어 있어 북측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는 것이라 생각되었다.

묘향산은 평안남도과 평안북도 사이 묘향산맥의 중부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1,909m이다. 산세가 기묘하고 향기를 풍기는 산이라 하여 묘향산으로 불렸고, 한국 5대 명산의 하나이자 조선 8경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식물분포가 다양하고 희귀동물이 많이 서식하고 있어 북측에서는 묘향산 일대를 우리의 국립공원과 비슷한 자연보호구로 지정하고 있다. 묘향산에는 '국제친선전람관'이란 우리의 박물관 형태의 전시관이 있는데, 김일성과 김정일이 외국 국가원수와의 정상회담과 정치인, 기업인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들이 진열되어 있는 곳이다.

버스를 타고 호텔을 나서니 일요일이라 그런지 평일과는 달리 꽤 많은 시민들이 길거리를 다니고 있었다. 평양시내를 벗어난 지 얼마 안되어 시멘트로 만들어진 4차선 고속도로에 들어섰다.

고속도로변 차창밖으로 보이는 산은 소나무가 군데군데 몇 그루 서있고, 하층식생은 진달래와 같은 1~2m 정도의 관목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숲이 우거지지 않아 지피식생이 보일 정도로 속살이 드러나 있었다. 고속도로변이라 그런지 산을 개간한 다락밭은 볼 수 없었다.

고속도로로 2시간 가까이 이동하는 동안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 일행들 말고는 오가는 차량을 한대도 볼 수가 없었다. 차량을 통제했는지 아니면 다니는 차가 없는 것인지 궁금했다. 또한 고속도로변에서는 주민

들도 눈에 띄지 않았고 집들도 보이지 않았다. 일행중에서 누군가가 “마을을 아예 주요 도로 주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조성한 것”이라고 말한다. 평양시내 외곽에 주민들이 사는 것으로 보이는 곳에도 길옆에 높고 길다란 담장을 세워 차안에서 쉽게 볼 수 없게 차단되어 있었다.

묘향산 지구에 들어서니 국제친선전람관 입구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여성안내원이 차에 올라 이동하는 동안 묘향산과 국제친선전람관에 대해 설명을 했다. 아스팔트길에서 소로길로 접어들면서 경사진 길은 넓지 않고 구불구불했지만 10여분간 이동하니 전망이 딱 트인 곳이 눈앞에 펼쳐졌다. 기와로 엮어진 건물 앞마당엔 왕벚나무들이 꽃망울을 터트리고 있었고 새싹이 막 돋아나고 있는 나무들과 잔디, 그리고 잘 정돈된 조경수들이 어울려져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양각도호텔에서 바라본 북쪽 평양시가지〉
 (좌측 상단에 짓다만 류경호텔이 보인다)



〈주체사상탑에서 바라본 남쪽 평양시가지〉
 (좌측 상단에 능라도경기장이 보인다)

주변 산림은 소나무, 전나무 등 침엽수와 신갈나무, 떡갈나무, 박달나무, 자작나무 등 활엽수들이 혼합되어 있는 천연림이다. 임분 상태는 소나무의 경우 평양시내에서 만경대와 모란봉 일대까지 솔잎혹파리 피해가 있는 것에 비해 건강하게 보여 잘 보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1시간 남짓 국제친선전람관을 돌아보는 동안 안내원의 유창한 말솜씨와 설명에 “어떻게 저 많은 물건들을 날 짜와 수량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에 감탄사가 저절로 나올 지경이었다.

국제친선전람관을 둘러보고 난 뒤 3층으로 된 기념품과 음료수를 파는 건물에서의 일이다. 베란다에 나가보니 아름다운 주변 경관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경치를 감상하며 카메라에 담던 그 때, 평양공항에서부터 우리 일행들을 줄곧 동행하여 인솔하던 북측 요원중 책임자인 듯한 사람이 옆에 다가왔다.

“선생! 묘향산 경치가 참 좋지요?” 하고 말을 붙인다. “아, 예 아주 절경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필자의 목에 건 소속과 이름이 적힌 명찰을 보고는 “선생은 국립산림과학원에 소속되어 있어 나무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평양 6·15양묘장에서 묘목이 잘 크지 않을 거라고 선생이 말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의아해 하는 생각이 들어 나무로 된 긴 의자에 앉으면서 “이리 앉으시지요” 하면서 서울에서 가지고간 담배를

하나 건넌니 한사코 손사래를 친다. “그러면 북측 담배를 하나 쥐 보시지요” 라고 말하니까 ‘금강산’ 이라고 쓰여진 담배를 하나 건넌다. 담배 하나 서로 나누어 피우자는데 너무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으나 주변에 북측 인사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있어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의자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이 사람은 필자가 어제 평양 6·15양묘장 담당 직원과 나눈 대화를 한마디도 안 틀리게 전부 알고 있는 가에 대해 놀라운 생각이 들었다.

“그럼 6·15양묘장에서 묘목을 잘 키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물었다. “6·15양묘장은 벼 농사를 짓던 곳으로 모래함량이 적고 점토함량이 높아 토양물리성이 매우 나쁩니다. 묘목이 성장하려면 공기유통이 좋아 뿌리호흡이 잘 되어야 하고, 물을 적당히 보유할 수 있으며 배수도 잘 되는 토양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은 배수가 안되어 장마 또는 태풍과 같은 폭우에 침수되기 쉽고, 반대로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 시에는 지표면이 갈라지고 토양은 돌덩이처럼 굳어져 묘목생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라고 될 수 있는 대로 쉽게 설명했다.

“모래를 섞으면 됩니까? 다른 방도는 없습니까?” 그가 다시 물었다.

“그 넓은 면적에 모래를 섞으려면 많은 예산, 노력,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이 용이하게 빠지게 하려면 땅을 파서 맹암거와 같은 배수관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어려운 일입니다. 그 보다는 여기도 연구자들이 있겠지만 양묘장으로 적합한 지역을 조사하여 선정하고 양묘기술에 대해 함께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글쎄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요” 나지막하게 그가 말했다.

“그러면 과일나무를 심으면 어떻습니까?” 그가 다시 물었다.

“과일나무(유실수)는 산림수종보다 더 토양조건을 가립니다. 열매가 열려야 하기 때문에 양분이 풍부하고 배수가 더 잘되어야 합니다. 논으로 사용되었던 양묘장보다는 경사가 약간 있는 야산이 좋습니다. 양묘장 부근의 산림토양을 보니 과일나무 재배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어느 학교에서 무슨 전공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다. “종합대학에서 경제를 전공했습니다” 풍기는 인상이 여느 사람과 다르며 말씨도 표준말에 가깝고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온 것으로 보아 북측에서는 상당한 계층에 있는 인텔리인 것으로 보였다.

“경제를 전공했는데 임업에 관심이 많군요?” 라고 말하니까 “이게 다 인민을 위한 거지요” 라고 답한다.

“우리 남측에서도 과거에 산림녹화사업이 실패할 때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짧은 기간에 가장 녹화를 성공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족끼리 자주 만나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갑시다” 라고 말하니 “앞으로 자주 만나서 잘 협력해야지요” 짧은 대답이 돌아왔다.

그가 길게 내뿜는 담배연기 사이로 얼굴에 근심 섞인 표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느껴졌다.

그날 저녁 양각도호텔로 돌아온 후 열린 환송 만찬장에서 북측 산림관계자들과 방북기간중 산림사업에 대해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① 통일로(路) 한 걸음



김은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생)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통일

그들은 그다지 아는 것이 없다. 저 위쪽에서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나와 비슷한 얼굴을 가지고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민족이 단절된 철조망 사이로 어떻게 그들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잠시 갈라져 살았던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입시와 몰입교육의 폐해라고 그저 돌려 말하기는 너무나도 무책임하다.

작년 민주평통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인식 조사 결과, 과반수에 가까운 수가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청소년들은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으며, 통일 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일을 이끌어내고 통일한국의 시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통일의 시대를 앞당길 수도 늦출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위의 결과가 말해주듯, 청소년들은 통일을 무관심의 대상이거나 부담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왜 통일을 어렵게 느끼는걸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통일'이라고 하면, 정치적·이념적 요소들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과거에 비해 남북 관계가 발전하고 교류가 늘어난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생각들은 정치적, 이념적 통일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중·고등학생들은 통일을 어렵게 느끼고, 자신과는 먼 이야기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은 이념의 문제가 아닌 삶의 문제이다. 정치가들만의 문제가 아닌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과 관련한 문제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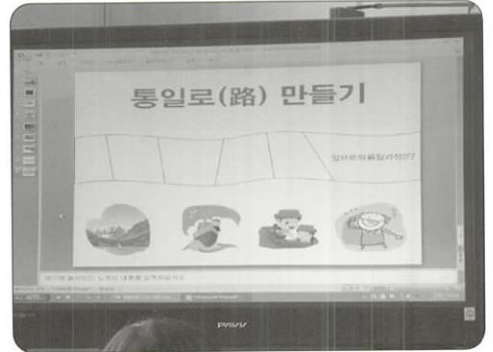
찾아가는 통일교육

통일을 좀 더 쉽고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나의 문제로 생각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고자, 통일교육위탁기관인 '통일교육문화원'에서는 '찾아가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일에듀넷'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통일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찾아가는 통일교육'은 전국에 있는 학교들로 부터 신청을 받아 1일통일교육을 하거나, 통일연구라는 이름으로 CA(클럽활동) 시간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통일연구 CA는 1년에 6회, 16회 등 각 학교의 상황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다.

북한과 통일 등에 대한 이미지를 색이나 촉감으로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시간, 북한노래를 배우는 시간, 평화 통일 CM송을 만드는 시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일 관련 인터뷰를 하는 시간...

강의식의 일방적 주입교육이 아닌, 소그룹 활동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체험하게 하는 체감적 통일교육이기에, 아이들은 쉽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 통일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통일로 만들기〉



〈통일로 만들기〉

통일로(路) 만들기

국철을 타고 양원역에서 내려 찾아간 곳은, 아름다운 교정이 인상적인 영란여자중학교!

이곳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통일연구 CA가 개설되어, 1학기 마지막 수업만을 남겨놓고 있었다.

1학기의 마지막 수업시간의 주제는, '통일로(路) 만들기'!

통일을 향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가고 있는지, 또 어떤 길을 가야할 지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날의 수업과제이다.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보며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상상하고 예측해보는 것이다.

11명의 학생들이 4명씩 조를 짜서 모여 앉았다. 학생들은 전지에 통일로 가는 길을 그리고, 그 길 위에 남북

관계 변화과정에서의 사건들을 적었다. 어떤 모양의 길을 만들지, 각 사건들을 어떤 크기로 적을 지는 모두 자유. 통일에 대한 각자의 생각들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다. 선생님은 학생들의 생각을 모두 존중해주며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도울 뿐이다. 구불구불한 길, 넓은 길 등등..

길을 다 그린 후에는, 길의 주변에 각 사건들을 그려보았다.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마음 속 이미지들을 더욱 구체화시키는 작업이다. 남북정상회담은 악수하는 그림으로, 경의선 철도운행은 끊어졌던 철길이 연결되는 그림으로 표현한 것들이 눈에 띈다.

그리고 학생들은 종착지점인 '통일'에 도착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지, 혹은 일어났으면 하는 일들에 대해 상상하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다.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휴전선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서부터, 북한 청소년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백두산으로 수학여행을 가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다.

통일로를 만드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남북관계 변화과정을 익혀갔다. '휴전'이라는 단어도 헛갈려하던 아이들이 '정전협정'을 이야기하고, '정상회담'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정상회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내비친다. 또한 통일을 위해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꿈꾸기 시작했다. 통일을 이루어나갈 역할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인식하며,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꿈을 꾸는 것이다.



〈통일연구 CA시간〉

관심, 통일의 시작

통일연구 CA를 담당하여 수업을 진행하시는 황미란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북한에 대해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아이들이 통일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갖고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어렵고 좀처럼 관심이 가지 않는 통일이란 녀석을, 친근하고 흥미있는 친구로 바꾸어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찾아가는 통일교육의 목표인 것이다.

훗날 통일로(路)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청소년들!

이념·정치적 통일이 아닌 일상 속 통일에 대한 작은 관심과 흥미를 느낌으로, 통일한국을 향해 한 걸음 내딛어 가는 모습이 마음을 훈훈하게 한다.



8



- 통일칼럼

- 현장에세이

- 평화열차

- 참여마당





③ 지역통일교육센터와 사이버통일교육 활성화



황 금 섭

(경남지역통일교육센터
사무국장 교육학박사)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남북한의 화해·협력 분위기로 분단은 되었으나 분단의 고통을 거의 극복할 수 있는 '사실상의 통일'에 대한 희망에 부풀어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통일을 조성하고 대비하는 통일정책 환경은 북핵 문제와 관련된 6자회담의 지루한 공방, 금강산 민간인 관광객의 피격건, 새 정부 이후의 기존의 남북합의사항 이행 등의 문제로 남북관계는 다소 소강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북한의 태도-핵문제 및 금강산 민간인 피격에 대한 합동조사 등-에 문제가 있지만, 일정 부분 지난 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지 못한 점과 통일에 무관심한 우리사회의 여건과도 결부되어 있다.

얼마 전까지 '대북 퍼주기' 논쟁의 사회적 갈등에서 보았듯이 우리 사회의 대북관과 통일관은 세대별 계층별로 나아가면 인식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통일은 늘 멀리만 느껴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기 보다는 사실 나오는 별 상관없는 거대담론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통일의 주역이 될 청소년에 이르면 통일의 무관심은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통일환경의 변화는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통일교육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한다.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면서 미래의 통일사회로서 궁극적 이념을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실현하는 데에 기여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과 국가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물과 공기'와 같은 공공재이며, 국민교육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분단 상황은 우리민족이 공멸할 수 있는 잠재적인 전쟁의 위협, 이산가족의 고통, 민족사의 단절 뿐 만 아니라 분단 이후 계속된 남북한의 대립과 체제 유지를 위한 경쟁으로 민족의 역량과 자원을 낭비하였고,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가로막아 왔다. 이러한 불합리한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통일을 이루어야

하며, 통일을 준비하고 이후를 대비하는 통일교육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파동을 겪으면서 인터넷의 위력을 한껏 절감하였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였던 촛불시위도 익명성과 쌍방향성의 의사소통혁명을 가져다 준 인터넷의 역할이었다. 인터넷 포털에 관련 기사가 뜨면, 수백 건의 댓글이 달리고, 댓글은 연쇄반응을 일으키며 미니홈피, 블로그, 가입한 카페 게시판 등에 내용을 퍼 나른다. 인터넷은 누구나 사용하는 도구이지만 10대나 20대들이 사용하면 더 빠르고 강력해진다.

위의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정보가 공유되느냐가 바로 동질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통일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대립과 갈등이 없이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인터넷을 앞세운 컴퓨터문화의 급속한 확산은 우리의 삶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사이버통일교육의 활성화야말로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통일교육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데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이다. 인터넷은 전통적인 매체가 지니고 있는 일방적 정보전달 방식을 깨뜨리고, 상호작용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므로 교육내용의 소통과 피드백이 신속하여 교육효과를 높이며, 어떤 사안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에도 효율적이다. 또 물리적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학습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학습형태가 자율적이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식 교육'도 가능하고 교육비용의 절감에 기여하며, 무엇보다도 기회비용 측면에서 기존의 집합교육 형태보다 훨씬 경제적이다.

그럼 사이버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 우선 통일교육의 디지털 콘텐츠를 확보하는 일과 콘텐츠의 내용도 교육 대상자와 통일환경의 시의성을 반영하여 진지하며, 재미있게, 보다 쉽게, 접근이 용이하게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웹상 쌍방향의 토론이 가능한 전자적 시스템의 구축으로 다양한 세대와 계층뿐만 아니라 통일교육의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사회도 아울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이버통일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많은 수의 통일교육 전문가와 정보 전문 인력, 지역에 거점을 둔 네트워크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유기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특히 통일교육의 가장 유용한 도구인 사이버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고려로서 지역통일교육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통일교육센터는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2에 근거한 것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의 실시와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2008년 지역통일교육센터는 전국 10개 지역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 지역통일교육센터는 통일부의 위임을 받아 통일교육을 대행하는 기관이다. 또한 지역의 공적 기관 및 사적 단체가 수행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더욱이 지역의 여타 유관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통일교육 사업을 펼칠 수 있게 함으로써 거버넌스형 교육의 대표적 모델이다. 특히 지역통일교육센터는 과거 통일교육 인프라가 빈약하여 충분하게 충족되지 못했던 지역의 통일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제도로써 통일교육의 지역화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런 지역통일교육센터를 통한 사이버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 지역통일교육센터에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하는 일이다. 물적 인프라는 단순 홈페이지, 카페의 개설하여 정보를 쉽게 이용하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고, 쌍방향의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자적 학습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인터넷을 통한 통일교육 학습 및 콘텐츠 운영을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통일교육센터의 공동 허브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통일교육센터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통일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원과 지역통일교육센터 간의 유기적인 협력 및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상설적인 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공식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통일교육원 관계자, 지역통일교육센터장, 중앙의 통일교육 전문가와 지역 사회 통일교육전문가, 통일 관련 유관 단체의 등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 통일 관련 단체 간의 사이버통일교육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 현재 분산되어 있는 통일 관련 운동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중심으로 공동 홈페이지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단체 간의 연대성을 높이고, 정보공유, 공동회원관리, 공동사업 추진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지역 사회 통일문제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함으로써 네티즌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지역통일교육센터를 통한 사이버통일교육 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이 공공재이며, 국민교육 성격을 지닌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이라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념과 가치관의 편차를 극복하고 그 지향점에 대한 분명한 제시를 위해서 통일교육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그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현재 통일교육원 사이버통일교육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이버통일교육 중에서 지역사회 인사와 관련된 통일교육은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지역통일교육센터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방북자들이 받고 있는 방북교육을 지역통일교육센터와 연계한 사이버통일교육으로 대체하는 방안이나 공직자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통일교육도 지역통일교육센터와 연계될 때 활성화될 수 있다.

지금까지 지역통일교육센터는 지역주민의 건전한 통일의식을 함양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데 주요 역점을 두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기 시민강좌 개설·운영, 지역 통일교육관계자 자체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지역 축제 등과 연계한 통일문화 행사 개최, 분단현장 통일체험 연수 등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역통일교육센터가 정보화의 시대에 걸맞게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새로운 교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이버통일교육이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사회통일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일회성 이벤트 행사나 지식중심, 강의중심, 강사중심의 기존 집합교육방법으로는 다양한 경험과 동기를 가진 성인학습자들의 성향과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다원화를 전제로 한 우리 사회 체제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나 통일외식의 편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존의 교육방식으로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나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일교육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역통일교육센터의 기능도 재고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이버통일교육센터와 연계한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으로 통일교육 관련 서비스 및 통일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대국민 통일교육의 이해도를 증가시키는 것이야말로 사이버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일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① 살아있는 통일교육은 DMZ 일원의 현장에서



장 승 재

(판문점&DMZ포럼 사장)

들어가는 글

한반도의 일부분 땅이면서 남북한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는 특수한 지역, DMZ (비무장지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동쪽끼리 총을 겨누고 서게 된 그 비극적인 역사의 산물 가운데 하나가 비무장지대이다. DMZ는 반세기 동안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 한 결과로 DMZ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철책선, 판문점, 초소, 민간인통제선, 지뢰, 산불사태 등 여러 표현의 단어가 떠오른다.

DMZ가 그동안 남과 북의 '국경' 역할이었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특별한 의미를 두고 한반도 땅의 화해와 통일의 출발선으로 다가섰다.

안타깝게도 한반도 최고의 관광상품은 '분단'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얼핏 들으면 세계 유일 분단국가인 우리의 분단 상황을 빛낸 자조적 표현처럼 들린다. 한국은 DMZ와 판문점 남측구역을 안보관광지로 이용하고 있고 남방한계선에 위치한 전망대와 북한측이 파내려온 남침갱도(땅굴)를 안보관광지로 지정해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는 가장 인기 있는 관광코스이며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그 중요성과 관심이 한층 높아만 가고 있다. 한편 북한도 판문점(북측구역)을 관광자원화하여 외국인관광객들에게 소개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위해 '평양-개성-판문점' 관광코스를 만들어 상품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일부 국민들은 비무장지대가 왜 생겼고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 어떻게 신청하고 방문하는지 거의 모르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 한국인은 그 역사를 알아야 하고 남과 북의 분단의 현장인 그곳에 가 보아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역사적 지식으로서만이 아니라, 역사적 배경과 경위 그리고 그 의미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DMZ의 관광자원

DMZ는 한국전쟁의 민족분단과 동족상쟁으로 얼룩진 우리 현대사의 상징이며 민족사의 산교육장이다. 피흘림의 대가로 우리에게 남겨진 보물이고 훌륭한 교육 관광자원이다. 또한 DMZ는 역사성과 가치성이 입증되기 때문에 향후 한반도에서 훌륭한 통일교육장소로 활용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고 있는 비무장지대는 삼국시대 고구려·신라·백제 등 삼국 시대부터 영토싸움이 치열했던 것을 비롯해 우리 민족역사의 중심이었던 지역이다.

평화안보교육적 가치로 북한과의 절박한 대치상황이나 허망한 전쟁유적, 도발현장, 국토분단의 비극 등을 생생하고 충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바로 DMZ 일원이다. 이곳에서는 비무장지대의 복원, 생태계, 북측의 산하, 6.25격전지, 철책선, 군 시설물 및 군인활동, 가장마을 등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거리의 도시(개성 등), 주민생활 및 생업현장까지 시야에 들어온다. 자원 자체는 북쪽에 있는 것이지만 안보관광성이 강한 이들 자원들을 관측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라고 할 수 있다.

DMZ 일원 방문 실태 및 현황

DMZ방문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남과 북의 분단된 상황에서 안보교육 측면에 치중하여왔다. DMZ 일원방문은 안보관광으로서 내국인들의 반공의식 고취와 국민안보교육을 위하여 전적비, 전적지, 전시관, 교육관, 땅굴 등을 대상으로 수행하여 왔다. 지금까지 상당한 교육성과를 거두었으나 관광내용이 단조롭고 정적이어서 관광자원으로서 큰 매력을 주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한편, 1990년대 이후 공산권 몰락으로 적대관계의 해소와 화해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시대적 추세를 고려할 때 안보관광의 내용에 대한 적절한 보완이 요청되고 있다.

DMZ관련 상품의 특징은 땅굴과 전망대 그리고 팔각정에 평화의 종 등이 근접한 거리에서 패키지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연천지역의 제1땅굴(비무장지대내에 있어 관람불가)과 상송OP(군부대), 철원지역의 제2땅굴과 평화전망대, 파주지역의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 양구지역의 제4땅굴과 을지전망대로 집약할 수가 있다. 현재 DMZ관광이라고 해서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행정구역으로 경기도의 파주시와 연천군 그리고 강원도에는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이다. DMZ관광 상품은 북한의 남침 상징인 4개의 땅굴과 남한에서 북녘 땅을 관망하기 위해 설치된 8개 전망대가 연계돼 있고 경기도와 강원도가 땅굴 2개씩, 전망대를 4개씩 각각 분포돼 있다.

현재 155마일 휴전선 연해 안보관광 상품으로 개방하고 있는 곳은 세계인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판문점을 비롯한 서울근교의 서부전선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방문하여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었던 도라산역, 오두산 통일전망대 그리고 연천의 태풍전망대와 열쇠전망대 등이다. 강원도는 철원지역의 중부전선 제2땅굴과 철의 삼각전망대, 양구지역의 동부산악지대 편치볼과 제4땅굴 및 동해안 최북단 고성 통일전망대 등 10여 개소이다.

통일교육의 현실

현재 각급 사회단체 또는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통일체험관광은 3개의 남침경도인 파주의 3땅굴, 철원의 2땅굴, 양구의 4땅굴과 연계된 전망대 즉 김포의 애기봉, 파주의 오두산통일전망대와 도라전망대, 연천의 태풍전망대와 열쇠전망대 강원도 철원의 평화전망대와 승리전망대, 양구의 을지전망대, 고성의 통일전망대 등인데, 그 대부분이 소극적인 평화 및 통일의 체험위주가 아닌 견학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통일안보 체험탐방을 진행하면서 느낀 애로사항은 여행객 모객문제, 현지 지역마다 통일체험관광의 안내사 부족, 한정된 인원으로서의 수지문제, 여행객의 인식부족 등이다. 그러므로 통일체험탐방에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평화통일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현재 보다 적극적으로 비무장지대를 교육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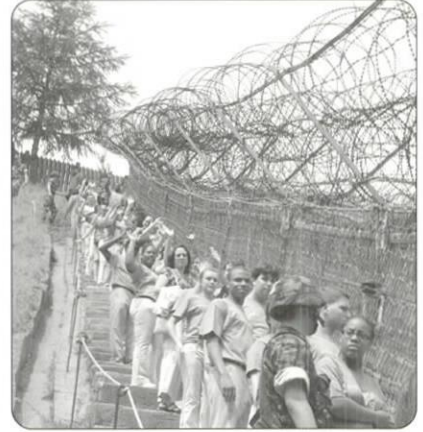
DMZ 탐방의 보완 사항

DMZ탐방에 대하여 그동안 지적돼온 것은 DMZ 탐방상품이 내용적으로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북한지역을 망원경으로 보고 땅굴 내부를 둘러보는 것이 여행일정의 거의 전부인데 여러 번 DMZ를 방문해 본 방문객은 듣고 보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변화가 없다는 사실에 식상해 하고 있다.

그리고 DMZ 및 민통선관광 코스인 동부지역(양구, 고성), 중부지역(철원) 서부지역(파주, 연천)중에서 서울근교인 서부지역에 편중돼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시정되어야 한다. 비무장지대의 안보관광자원은 전적지와 유적지 등이며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남북 관계의 진전과 관계기관의 의지에 따라 새로운 평화·통일을 주제로 하는 테마의 개발문제가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의 열쇠전망대 일원에 평화안보현장체험 사업 일환으로 철책선 걷기와 철책에 평화 통일기원 리본달기 이벤트를 우리나라 최초 평화·통일·안보체험 관광상품으로 상설화해서 운영하고 있다.

최근 관광객은 남녀노소 모두가 본인 자신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희망하고 있는 바 남방한



〈DMZ 철책선따라 걷기와 평화통일 기원 리본달기 체험학습 개발〉

계선 이남의 안정된 지역 일정 공간(약 1km 정도)을 답사구간으로 설정해 철책선 걷기와 북한지역을 조망하면서 휴전선의 철책에 참가자가 직접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글을 리본에 직접 써서 매다는 체험이야말로 가슴에서 느끼는 평화·통일교육적인 탐방이라 확신한다.

아울러 이렇게 되기까지는 관계 군 당국으로는 남방한계선 철책선 일부 구간 개방문제에 대하여 국방부의 문민화와 군문화로 일신하기 위해 노력하는 '열린 국방'과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의 실천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맺는말

DMZ방문은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안보여건상 DMZ 안보관광 또는 통일체험관광 등 활성화 방안으로 접근하기가 너무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반세기 가량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이 지역의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평화통일의 교육장소로 활용한다면 우리 역사를 새롭게 바라볼 많은 유물·유적들을 만나기 위해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 올 것이다.

비무장지대 특성은 역사적 상징성으로 동서냉전체제의 대립과 전쟁의 산물이며 민족분단을 고착해 왔던 장애의 상징물이며, 파멸과 보존의 현장이기도 하다. 최근 평화와 생명의 지대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므로 전쟁과 분단의 상징물인 비무장지대가 평화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었을 때 DMZ의 상징성은 평화·통일교육의 장소로 매력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④ 접경지역을 다녀와서....



정 영 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일교육원 통일미래지도자 과정 교육생 35명과 함께 압록강, 두만강을 잇는 한반도 접경지역의 현장 방문에 참가하였다. 그동안 연길을 거쳐 백두산을 찾은 적은 몇 번 있었지만 압록강, 두만강을 따라 중국?북한 국경지역 주민들의 삶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는 못했다.

그런 만큼 이번 현장체험은 나에게서는 약간의 흥분을 자아내는 뜻 깊은 것이었다. 7월 7일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물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공항에 도착하니 벌써 먼저 와있는 분들도 있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예정된 시간에 나머지 분들도 속속 도착하여 전원 입국수속을 마치고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기내에서 자세히 살펴보니 비록 우리 일행들 중에는 두런두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혼자 조용히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약간 상기된 분위기 또한 없지 않았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번에 우리가 찾는 지역을 방문했던 사람도 있었지만 단체로 함께 여행을 떠난다는 것이 새로운 즐거움과 희망을 주기 때문이리라.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목적지인 중국 대련공항에 착륙한다는 신호가 들어오고 비행기는 고도를 낮추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비행기는 다시 고도를 높이고 선회비행을 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또 한번 착륙시도를 하는 것 같았지만 다시 고도를 높이면서 안내방송이 나왔다. 중국 대련공항 주변에 안개가 짙게 깔려서 착륙을 하지 못하고 인천공항으로 회항한다는 것이다. 순간 약간의 불안감은 없지 않았지만 안정을 되찾으려고 노력했다. 안전하게 인천공항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 수 있었다. 이어 우리는 앞으로의 일정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공항로비에서 이후 일정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40여명이나 되는 인원이 함께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조용하게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같은 날 저녁 중국 대련공항 대신 심양공항을 거쳐서 단둥으로 가기로 했다. 다른 일반 여행단체 같았으면 공항에서 난리소동이 났을 것이다. 하지만 약간의 의견

충돌을 벌이면서도 너무나 일사불란하게 일이 처리되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교육생 분들과 담당관들의 차분한 대응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싶다.

밤늦게 심양공항에 도착하여 버스로 단동에 도착하니 다음날 새벽 2시에 가까웠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호텔에서 몇 시간 눈을 부치고 아침 일찍 단동의 압록강 접경지역을 찾았다. 단동에는 중국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한창 개발붐을 타고 고층건물들이 쭉쭉 올라가고 있었다. 우리 일행사이에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는 탄성들이 여기저기 흘러 나왔다. 북한의 신의주지역과 단동을 비교하기 이전에 우리 남한 지역들과도 비교되는 순간이었다. 중국사회의 전반적인 인프라들은 속속 현대화되어가고 있는 느낌이었다. "한국을 추월할 날도 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괜스레 마음이 바빠지는 듯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끊어진 압록강 철교 저쪽에 있는 북한의 신의주 지역을 바라보는 순간 나의 마음은 '바쁨'에 더해 '참담'함으로 변했다. 단동시내에서 건설 공사판과 그 사이사이를 확보하고 있는 주민들의 활기찬 모습이 대비되면서 압록강 건너편 단동 쪽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한가한' 모습의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건딜 수가 없었다. 무엇이 이토록 접경지역 양안사회의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 놓았을까? 이것은 일차적으로 정치지도자들의 몫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이르자 '메아리' 로라도 북측 지도자들에게 마음껏 '욕'을 퍼붓고 싶다는 욕망이 솟구쳤다. 신의주 주민들의 활동은 거의 정체되어 있었고 폐선 수준의 노후화된 선박 등이 이리저리 덩굴고 있을 뿐이었다. 단동 쪽 압록강 변에는 다소 '촌스럽기'는 하지만 관광객 용 개인보트나 선박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신의주 쪽에는 겨우 북한주민들이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고 있는 '여유'에 측은지심을 감출 길이 없었다.

다행히도 '북·중 우의대교'에는 하루에 한번 단동을 출발한 화물·여객열차와 몇분 간격으로 화물차량이 신의주로 활발히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반가웠다. 이는 북한이 그나마도 대중교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대외개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북·중 우의대교'는 철로·육로 겸용으로서 편도로 오전에 신의주 차량이 단동에 들어오면 단동차량이 신의주로 출발하고, 오후에는 상대지역에 갔던 차량이 복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쉬웠던 것은 신의주에서 들어오는 차량이나 사람들이 단동으로 들어오는 것을 목격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어서 우리들은 버스로 압록강을 따라 한참을 복상하였다. 압록강에는 퇴적물이 쌓여서 이루어진 크고 작은 섬들이 여러 개가 있다. 위화도를 비롯한 이들 압록강내의 섬들은 대부분 북한소유라고 한다. 이들 섬 내에는 드문드문 주택들이 보였는데 대부분 살림을 하지 않은 빈집이라고 전해진다. 압록강 건너 신의주 지역을 보면서 각종 상념에 잠겼다. 만약 북한이 적극적으로 개방에 나선다면 신의주를 그야말로 홍콩과 같은 휘황찬란한 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단동 또는 여타 지역의 돈 있는 중국인들이 신의주에서 놀고 즐기는 모습도 상상해 보았다. 북한의 신의주 지역은 발전하고 있는 단동지역과 적절히 교역을 활성화함으로써 압록강 양측지역에 마천루와 같은 빌딩들이 강을 따라 즐비하게 서게 되고 압록강에는 관광용 선박이나 화물을 가득 실은 대형선박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정경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기도 했다.

이것이 과연 꿈에 불과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북한이 과감한 개방 결정만 하게 된다면 남한의 투자를 유도하여 '신민주·단동 협력도시'로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보다 과감한 개혁개방 의지와 함께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 확실한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물론 북한은 이미 신민주특구지역 건설을 밝힌 바 있긴 하지만 지금은 아무 기약 없는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무척 안타깝게 느껴졌다. 만약 북한이 다시 신민주특구 개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다면 남한 당국은 금강산, 개성공단 건설에 이어 이를 공동 개발하여 남북 공동이익을 창출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꿈꿔본다.

이어서 우리는 도문·남양접경지역을 방문하였다. 이곳 도문 역시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도시·관광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데 반해 북한의 남양지역은 집단농장에서 수십명이 한곳에서 '복닥복닥' 하는 모습이 보일 뿐이었다. 북한의 이러한 작업 모습은 전형적으로 사회주의식 작업방식에 연유한다. 붉은 깃발을 꽂아 놓고 작업을 독려하는 음악이나 밴드를 동원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작업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는 하지만 작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회의가 생긴다. 이 역시 바쁘게 일하는 우리들에게는 '한가한' 유희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뿐이었다. 북한의 남양지역을 바라보니 온통 산은 험벗은 채 남아 있다. 높은 산꼭대기에서부터 아래까지 밭으로 개간되어 있었으나 험벗은 '개 등짝'과 같이 궁색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이 같은 다락밭에는 군데군데 보리가 누렇게 익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 남한은 보리를 가을에 파종(가을보리)하여 봄에 추수하지만, 북한에는 봄에 파종(봄보리)하여 여름에 추수한다. 얼마 있지 않아 보리수확을 위해 여기저기 또 붉은 기가 나부끼고 밴드 소리가 요란하겠지...

도문 쪽에서 돌아오는 길에 조선족 가이드는 두만강과 합류하는 도문시 강기슭에 있는 새로 지은 듯한 건물을 가리키면서 저것이 탈북자를 색출하여 북한에 인계하기 전의 임시수용소라고 전한다. 순간 가슴이 저려오는 느낌을 받았다. 이곳으로 오기에 앞서 얼마 전 탈북자 이야기를 담은 '크로싱'이라는 영화를 보고 와서 인지 더욱 소름끼치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또 다시 긴 한숨이다. 현지 가이드는 탈북자들이 북한이 싫어서라기보다 약간의 식량을 찾아 중국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말을 전해준다. 그리고 바로 최근 중국정부가 북한 주민들이 두만강변의 옥수수를 탈취해가기 때문에 두만강 변에 옥수수를 심지 말도록 지시하였다는 말을 듣고 중국 당국이 좀 야속해 보이기도 했다. '노랭이' 영감도 '까치밥' 하도록 몇 개의 감은 남겨놓는다 하지 않았는가?

이어서 연길에서 북·중관계 관련 연변대 교수의 설명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 북한 식량난은 작년 수해로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변경지역보다 황해도 등 내륙지역이 더 어려운 실정이라 한다. 그에 따르면, 중국은 새로운 발전공간으로 동북 3성을 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동북아 국가간 역내 협력이 필요하고, 중국은 두만강을 국제통로(중, 러, 한반도)로 개설하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두만강 개발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일·북·러와 협력하여 경제블록화로 이곳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그는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분단이 자신들의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을 오히려 지지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한국은 통일비용 차원에서라도 접경지역의 북·중 관계가 발전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중국의 이러한 마음이 사실이기를 기대하는 생각이 앞선다.

이번 접경지역 현장체험 교육의 의의를 한층 더 높여준 것은 바로 북방지역 고구려 유적 견학이었다. 중국 집안지역은 고구려 수도였던 국내성의 현재 지명으로 광개토태왕비, 장군총 등 많은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다. 광개토태왕비는 대형 유리관 비각 속에 잘 간직되어 있었고, 200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되었다. 장군총은 집안지역 1만 2천개여개 묘지 중 완전한 상태로 유지된 적석총으로 능을 둘러싼 12개 받침돌이 큰 특징으로 남아있었다. 옛 우리의 역사임에 분명한데 지금은 중국이 이를 활용하여 자본주의식 '관광 돈벌이' 사업으로 적극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 알뜰기까지 하였다. 이 외에도 우리는 조선자치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시대의 발자취도 찾았고,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을 찾아 마음속으로 마음껏 '대한민국'을 외치기도 해 보았지만 찝찝하고 아쉬운 마음은 좀처럼 달랠 길이 없었다. 백두산 대부분이 한반도에 속해 있지만 분단된 조국상황에서는 자꾸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듯해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번 접경지역 현장체험 교육에 참가한 분들은 장시간의 버스 이동으로 육체적인 고달픔을 견뎌야 했겠지만 우리의 통일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시급한 것인지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기대해 본다.



③ 꿈이 있는 학교



김은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생)

〈꿈? 꿈? 꿈?〉

꿈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항상 마음이 설레고 기대와 소망감에 부풀어 오른다. 꿈이라... 아마도 이렇게 사람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무엇을 이렇게 잘 형상화한 문자도 소리도 없을 것 같다.

'한꿈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든 느낌은 바로 그것이었다. 모두의 꿈들이 하나로 모여 이루어진 학교라는 느낌, 이름만큼 진취적이고 아스라이 환상적이다. 곱게 지어진 하얀 건물, 건물 앞에 심겨진 화려한 꽃들, 빛나는 햇살 가운데 아이들이 푸른 잔디 위를 달리고 있는 생태형 대안학교가 연상되었다.

실제 이 '한꿈학교'는 어떠한가? 푸른 잔디에 하얀 건물을 예상한 나의 소녀적 상상은 고스란히 빛나갔다. 주민 자치센터(남양주시 별내면사무소) 지하 1층, 교실 두 개가 전부인 작은 학교, 햇볕이 들지 않는 지하방, 창문 없는 교실에 후끈한 공기..

하지만 입구에 "The Great Vision School"이라고 써 붙인 경쾌한 글씨, 그 밑에 역시 경쾌하게 써 놓은 "미래통일 한국지도자를 위하여"라는 문구는 이 학교와 이 학교 아이들의 마음과 비전을 직접적으로 바라보게 해 주었다.

나의 마음을 순식간에 움직인 이 학교에 대한 간략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전교생 20명 내외, 탈북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가르치는 탈북청소년 기숙 대안학교, 다가올 통일을 대비하여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옹골찬 일꾼들을 길러내자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대부분의 탈북 청소년들은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편입된다. 탈북한 지 몇 달이 되건 몇 년이 되건 언어상의 문제와 사회적응문제 등으로 탈북 청소년들이 학업에서 겪고 있는 문제는 심각하다. 남북한간의 커다란 사회환경 차이에 절망한 탈북 청소년들이 대다수일진데, 단절된 두 곳이 존재할 때 그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할 것인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그들의 정서와 문화를 고려한 교육이 절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꿈학교 입구〉

〈구별된 커리큘럼〉

‘한꿈학교’는 중등, 고등 검정고시 단계별로 검정고시 과목에 맞추어 수업하며, 학기별 커리큘럼 성격이 다르다. 1학기는 진학을 목적으로 시험일정에 맞춰 검정고시 위주의 수업을 하고, 2학기는 사회적응을 목적으로 한 현장 체험학습이 진행된다. 태권도와 볼링, 스키 등의 생활체육체험, 땅을 밟으며 푸른 식물을 가꾸보는 원예심리체험, 마트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팔고 사는 현장경제의 흐름 안에 뛰어드는 경제현장체험, 호텔 전반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호텔 내의 다양한 장소와 필요를 경험해 보는 호텔리어 경험 등 생활활동 위주의 체험과 함께, 경주 문화유적지 방문 등의 현장방문 체험 등이 대표적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생활활동은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보통의 학생들이면 자연스럽게 보고 듣고 체험했던 활동 중의 하나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탈북 청소년들에게 있어 이러한 활동들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활동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보통 청소년들이 수학여행지로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인 경주 방문활동이 그들에게는 진정 “배우고 닦고 익히는” 수학여행(修學旅行)인 것이다.

이러한 ‘한꿈학교’의 교육철학과 교육커리큘럼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입 및 대입 검정고시를 거쳐 다수의 학생들이 여러 대학에 진학하는 쾌거를 보였다. 이런 결실 뒤에는 ‘한꿈학교’ 교장이신 김성원 목사 이외 자원봉사 교사 선생님들의 숨은 헌신이 있었다. 사명감과 헌신이라는 단어 외에는 마땅히 이를 설명하기 힘들다. 학생들의 꿈과 선생님들의 꿈, 그 꿈들이 하나가 되어 이루어낸 꿈의 대폭발이 아닐까?



〈풍물수업〉

〈꿈을 위협하는 문제〉

그러나 ‘한꿈학교’에는 이 꿈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다. 재정적 문제이다. ‘한꿈학교’는 전적으로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후원에 의존하여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영상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의 날씨이지만 교실에는 그 흔한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 한 대만으로 견디고 있다. 전원 기

숙학교 체제로 공동생활을 하지만 남학생과 여학생 그룹으로 근처 작은 방 둘을 빌려 20여 명의 학생들이 비좁게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정확보가 어려워서 2007년 초에는 이미 한 차례 폐교의 위기도 겪었다. 지역신문에 학교의 안타까운 사정이 보도되어 남양주시를 비롯한 여러 독지가(교회단체나 개인)들의 도움으로 그 명맥을 유지해 왔지만, 이제 곧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야 한다. 시에서 제공한 학교부지가 택지개발지구로 수용되어, 다가오는 12월이면 철거에 들어간다고 한다. 다행히 해비타트에서 건물을 지어주기로 했지만 부지가 없어 여전히 난감한 상황이다. '한꿈학교'의 선생님과 학생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헤매고, 가슴을 졸이며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다.



〈경제수업〉

내가 바라본 '한꿈학교'는 꿈 바로 그것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학교였다. 푸른 잔디 위 하얀 건물도, 에어컨 바람 뽕뽕한 고급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의 강의실도 아니지만,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곳곳하게 자신의 꿈을 심고 자갈밭을 가는 어리고 강인한 개척자들이 있는 학교였다.

이 소중한 꿈들이 꺾이지 않도록 지켜주어야 할 것은 나와 너와 우리가 아닐까? 이미 한 차례의 어려움을 겪은 그들에게 또 한 번의 헤어짐의 슬픔을 안겨주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다.



9



- 통일칼럼

- 현장에세이

- 평화열차

- 참여마당



① 통일교육의 저변확대



최 봉 수

(단국대학교 교수)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남북대화 중단, 6자회담 지연, 북측의 인도적 지원 거부, 금강산관광객 피격, 김정일 건강악화로, 핵 불능화 중단 등 일련의 사건들은 통일을 염원하는 동포들의 가슴에 못질을 해내고 있다. 최근의 가슴 아픈 사건들을 접하면서 남북의 통일과정은 남녀의 뜨겁고 드라마틱한 사랑이야기와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통일을 간절히 희망하는 남과 북의 동포들은 마치 서로 격이 맞지 않은 집안간 또는 서로 양숙인 두 집안 사이에서 결혼을 해야만 하는 연인들과 같기 때문이다. 세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비롯하여 인구에 회자되는 동서고금의 사랑이야기들은 대개 죽음으로 이어지거나 어느 한편이 불치의 병에 걸리는 비극으로 끝이 난다. 간혹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도 결혼하여 두 집안이 하나가 되기까지는 비극보다 훨씬 더 눈물겨운 과정으로 이어진다.

죽음과 연결된 비극적 사랑이야기가 많은 데는 이유가 있다. 사랑에 눈이 먼 젊은이들은 자기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이성보다는 감성에 지배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해피엔딩이 되기 위해서는 이성으로까지 승화된 원숙한 희생적 사랑이 요구되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인내심 등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피 끓는 젊은이들에게서 그러한 것을 바라는 것은 숲 속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우리의 통일문제는 유명한 사랑이야기 보다도 더 비극적으로 결론이 나거나, 훨씬 험난한 과정의 해피엔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먼 미래를 생각한다면 통일문제는 설사 가시밭길을 알몸으로 기어서 가더라도 해피엔딩으로 끝을 내야할 숙명적 사랑이야기인 것이다.

2007년 '민주평통'의 한 조사에 의하면 중·고등학생의 절반가량이 통일문제에 관심이 없으며 오히려 통일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 나타난 것이 아니다. 통일문제가 최우선적 정치적 이슈로서 부상했던 80-90년대의 조사에서도 거의 같은 현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기억된다.

통일은 상대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치적 문제이고 남북간의 관계는 정책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동포들의 통일에 대한 신념은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과 같아야 한다. 통일에 대한 신념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진정한 사랑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조력자의 역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동참하도록 사랑의 크기를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의 방법과 내용은 상호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명확히 분리되지도 않는다. 통일교육의 저변확대를 위한 일반적 방안들은 이미 많이 개선되었고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여기서는 간과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재검토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정책중립적인 통일교육 콘텐츠를 확대해야 한다. 정부수립이후 현재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 및 통일방안이 바뀌어 왔다. 통일교육의 많은 부분이 정권의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의 당위성을 교육하는데 할애되고 있다. 물론 정부정책에 호응하고 협조하는 국민역량을 결집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한번 교육을 받고 각인된 의식은 잘 변화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 국민은 세대에 따라 그리고 선호 했던 정권에 따라 각각 다른 대북한 관계의 시각과 통일관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중심적인 통일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통일 방안과 대북정책을 교육함으로써 기존의 연인들을 새로운 사랑의 주인공들로 대체해 갈 뿐 사랑의 크기를 확대해 가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변함없는 진정한 사랑의 주인공들을 확대해 가기 위해서는 정책변화에 무관하게 통일에 대한 사랑을 간직해 갈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진실된 현실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진정한 사랑이 빈부귀천과 국경을 초월하듯이 통일은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명제이다. 그렇지만 통일국가는 유토피아가 아니다. 격이 다른 집안에서의 결혼생활이 힘들 듯이 통일국가의 운영이 평탄치 않을 수도 있다. 통일국가의 가능성과 운영방향에 대한 현실적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은 감성적인 사랑을 이성적인 것과 조화시키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통일을 위하여 우리의 상황을 재점검하고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경우 북한주민의 참상이나 북한당국의 선전매체에서 발췌된 자료들이 여과 없이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각기 경험이 다른 세대와 이념성향에 따라 북한을 이해하는 방향이 대립적으로 형성될 위험성을 극소화 할 필요는 있다. 북한의 체제와 주민들의 실상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올바른 통일관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셋째, 상호 평등성을 전제로 한 동포애를 키워야 한다. 남과 북의 정치 경제시스템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이 시스템의 차이로 인한 경제력의 격차와 생활수준의 격차가 극심하다는 것은 부인할 필요가 없다.

통일의 과정은 간단할 수도 있고 한 없이 복잡한 과정을 거칠 수도 있는 사안이다. 바람직한 것은 쌍방의 충격이 극소화 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그리고 각 절차별 단계들은 통일의 추진이라는 전체적 맥락에서 조화롭게 접근되어야 한다. 따라서 진정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 통일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통일의

주체로 인정하고 쌍방향 평등성에 입각한 동포애를 고취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정보기술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정보기술의 활용은 지식정보 사회에서 누구나 다 주장하는 것으로 통일교육에서도 사이버 교육시스템을 비롯하여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당연히 생각하고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나쳐 갈 수 있는 부분이다. 정보기술의 활용과 그 영향력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자원과 기술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극대화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교육의 인터넷 공간은 연인들이 사랑을 키우기 위해 즐겨 찾는 데이트장소가 되어야한다. 인터넷에 접속하면 자연스럽게 북한의 실상을 파악하고 동포애를 느끼며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하여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갖추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자발적 지속적으로 교육공간에 접속하도록 흥미롭고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다섯째, 통일교육과 관련된 조직체의 지원방식에 경쟁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 통일문제와 관련된 조직은 다양하게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다. 이들은 이념성향을 달리할 수도 있고 정부의 통일정책과는 다른 방향으로 활동할 수도 있으며 아주 드물게는 진정한 통일주체의 형성에 장애가 되는 활동을 하기도 한다.



비교적 정비된 통일 관련 조직체들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무런 경쟁 없이 장기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조직의 운영 목적이 전도되어 국민의 참여확대를 통한 통일 역군의 저변 확대보다는 고정된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보조금 활용에 관심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조직운영이 무사안일에 빠지게 되어 정부의 지원금을 가지고 구성원만의 친목을 도모하는 관변 친목단체로 전락할 가능성도 지니게 된다. 보다 많은 통일 관련 조직체들이 진정한 통일역량 결집에 참여하고 정부의 교육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분야를 보다 세분화하고 세분된 단위별로 조직간 경쟁을 통하여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과 같은 경쟁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통일교육의 저변확대 방안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바라고 있는 점진적 단계적 통일을 지향하기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에 불과하다. 통일은 우리만의 관심사가 아니며 통일에 이르는 시나리오는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바람직한 통일교육은 모든 시나리오에 적용될 수 있는 통일주체들의 형성에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이성적이고 원숙한 동포애를 형성하여 통일국가의 국민형성이 가능하도록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⑥ 전문가가 바라본 북한은



이 상 근

(통일교육위원 정치학박사)

이 글은 대북 차관 쌀 인도요원으로 12일동안 함흥시 흥남구역에 체류하면서 보고 느낀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마전관광휴양소

7시 기상,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창밖은 온통 검은 바다와 무섭기 까지 한 파도 소리뿐이다. 간밤에 비가 많이 온 모양이다. 태풍 영향권에 든 남포, 해주, 사리원 일대엔 비가 300mm 이상 왔다고 한다. 또 다시 수해다. 앞친 데 덮친 격이다. 함흥엔 그렇게 심한 비가 오지 않은 모양이다. 오늘도 하역이 안 될 것 같다. 우리 배는 하늘이 확실하게 맑아야 하역작업을 개시한다. 배의 화물창 덮개가 수동식이라 개폐시간이 두 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한다. 작업하다 비가 오면 속수무책이다. 특히 쌀 같은 경우는 더 큰일이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도 고려를 해야겠다. 자동개폐시설은 20분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한다. 하루 하역을 못하면 체류가 하루 더 늦어진다. 정상적인 일정이면 함흥 체류 3일차에 하역이 마쳐져야 한다.

우리가 머무는 가옥(12호)의 구조를 살펴보자. 우선 보기에 외양은 번듯했다. 독립가옥 전부를 우리 일행이 사용했다, 일층은 방이 한 개이고 옆엔 휴게실과 식당(주방이 달린)이 있고, 2층엔 방이 두개인데, 단장과 내가 각각 사용했다. 방마다 냉장고, TV, 욕실을 다 갖추고 있었지만, 욕실엔 물이 나오지 않았다. 두 명의 여성이 오후가 되면 욕조에 물을 채워주었다. 물 사정 역시 전기사정이 안 좋으니까, 지하수개발이 안되는 모양이다. 방안은 보일러 시설이 안 되어 있어 습기가 차서 퀴퀴하고 신 내가 났다. 변기는 수세식으로 되어 있었지만, 용변을 보고 나면 반드시 변기 뒤를 열어 물을 채워서 손으로 작동을 시켜야만 했다. 식당엔 우리 일행을 위해 주방장, 조리사, 그리고 여성접대원 두 명이 항상 고정배치 되어 있었다. 식량과 부식도 매일 일정한 양을 보급받는 것 같았다. 아침엔 후식으로 커피가 나왔고, 점심, 저녁엔 술이 반주로 항상 따랐다. 음식은 정성스럽게 장만 한다고 했으나, 입맛에 맞지 않아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우선 전기사정이 안 좋으니까,

냉장, 냉동 보관이 어렵고, 상하지 않도록 기름에 튀기니까 특유의 냄새가 나서, 정말 입에 맞지 않았다.

저녁에 북측 단장, 부단장을 초청하여 휴양소 상점에서 간단한 술자리를 마련했다. 부단장은 눈매가 좀 강한 편이었으나, 호남형이고,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마음 쓰는 것이 착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한마디로 매력적인 북한남성이다. 단장은 키가 작고 까무잡잡했고 수더분하게 생겨서 만만해보인다. 그는 자주 부단장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았다. 우리는 기분 좋게 하나가 되어, 들쭉술잔이 돌아가고, 백로술 잔이 돌아가고, 모두 신이나 어깨동무하고 우리 옛 노래를 같이 불렀다, 찔레꽃, 나그네 설움, 황성 옛터 등..... 북측은 이런 노래들을 계몽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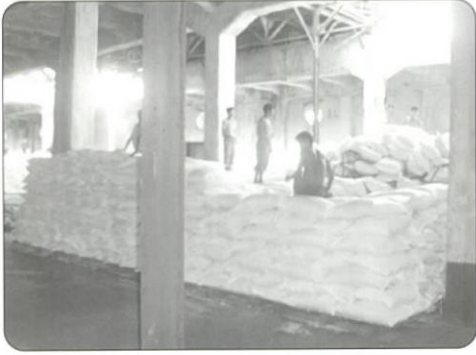


라고 하면서 장려했다. 북측 여성접대원들은 귀에 익은 북한노래를 부르며 흥을 더해 준다. 그녀들이 부른 노래 중에 '심장에 남는 사람'은 북한의 인기 드라마 주제가라고 하는 데, 가사 와 곡이 우리가 들어도 전혀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아 좋았다. 그들은 우리의 조선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특히 에너지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 내가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한다고 하니,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우해 주었다. 특히, 철도가 개설된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비이성적 에너지인 핵무기를 아무리 많이 보유한 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정말, 이성적 에너지이며, 평화에너지인 산업에너지야 말로 가장 중요한 경제력이고 국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였다.

TV와 정전

6천오백 톤 중에 3천 4백 톤이 아직 배에 남아 있다. 정상적인 일정이었다면 그제께 귀환해야 했다. 비 때문에 계속 숙소에서 죽치고 있는 것이다. 하늘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다. 지긋지긋하고 무섭고 숨이 막힐 것만 같다. 제발, 푸른 하늘 한 토막이라도 보았으면. 하늘이 열리면 언제라도 하역은 시작될 것이다. 다시 정전이다, 간밤에 정전이 몇 번 있었다. 비가 오니까 더욱 정전이 잦다. 한마디로 정전이 일상화되고 있다. TV도 고장이 났다. 정전으로 인한 간단한 고장 일 텐데..... 기술자가 와서 고치면 될 것을, 또 그 무거운 TV를 2층까지 힘들게 가져와서 바꾸어줄 것이다. 말하기가 미안해서 그냥 두었다. 그들은 우리가 북측 방송을 즐기는 줄 아는지 은근히 좋아하는 모양이다. 착각이야 자유겠지만, 혹시나 선전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동상이몽이다. TV엔 북한 선동가요가 자막을 띄우며 나오는데, 온통 김일성 부자와 체제를 찬양하는 노래다. 우리가 유일하게 보는 프로그램은 날씨예보다. 우리 일행들은 그 시간을 손꼽아 기다린다. 오후8시 (20시)뉴스(북측은 보도라고 함)가 끝나면 8(20)시 30분에 날씨를 보도한다. 우리는 TV앞에 모여 앉는다. 월드컵 축구 중계가 이토록 관심적이고 열광적일까? 우리에게엔 날씨 보도가 희망의 줄이다.

솔직히 식사시간이 괴롭고 미안하다. 밥이나 반찬을 남기면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저희들 정성이 부족합니까?"



많이 많이 드십시오”하면서, 안타까움과 서운함이 뒤섞인 듯 일일이 챙기는 것이다. 다음부터는 밥과 반찬을 반으로 줄여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 또 서운해 한다. 아니라고, 음식을 남기는 것이 아까워서 그런다고 해명(?)을 했다. 정말, 그들의 정성만은 알아줘야겠다. 저쪽 입장에서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장만해서 주는데, 제대로 먹지 않으니 서운해 할 만하다.

주방장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임 걱정인 후손이라는 데(나중에 아닌 것을 실토 함), 뽀빠이 같은 근육의 알통을 자랑하면서, 우리가 건네는 소주잔은 가소롭다는 듯이 제치면서 밥사발에다 철철 넘치도록 부어 마시는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 일행들이 어떤 반찬을 잘 먹는다, 밥을 남겼다, 반찬을 남겼다 하면서 일일이 지적(?)을 한다. 좀 부담스러웠다. 한번은 주방장이 우리 일행을 위해서 특별히 북측의 명물인 단고기(보신탕) 요리를 준비했는데, 나와 서 준영(노동부 근무)이가 먹지 않으니, 못내 서운해 하면서 은근히 눈총을 주곤 하였다.

저녁을 먹고 방으로 들어오니 TV가 켜져 있다. 미안해서 말도 안 했는데, 다시 바꾸어 놓은 모양이다. TV에서는 김일성의 '60년대, '70년대의 기록영상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진기한 장면이다. 그들의 대중 선동 술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북한 인민들에게 있어 이들 김일성·김정일 부자는, 특히 김일성은 지금도 살아있는 신적 존재인 것 같다. 곳곳엔 주체의 흔적들, 김일성의 흔적들이 살아있고, 아직도 북한체제의 주역으로 존재하는 것 같다.

남측 같으면, 우리 대통령이나, 특정한 지도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특별하게 보도했다면 편파 보도한다고 난리가 났을 텐 데. 그래도 아무런 저항 없고 동요도 없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특이한 곳이다. TV 방향을 돌린다고 손을 대니까, 다시 꺼져 버렸다. 비 오는 데 다시 부를 수도 없고, 차라리 안보는 것이 마음 편할 것 같다. 체제 선전을 하려고해도 경제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혼자 웃었다.

떠나오면서

검은 하늘이 완전히 열렸다. 개벽처럼 느껴지는 아침이다. 드디어, 오늘 출발이다. 동해의 수평선, 흰 안개 사이로 이글거리며 떠오르는 붉은 태양은 너무나 장엄하다.

마지막 아침식사, 북측 성원들은 떠나보내는 것을 아쉬워하면서도 축하의 인사를 잊지 않는다. 통일되면 만나던 그들의 인사말이 정말 진정으로 들린다. 북한도 추석(한가위)엔 하루 쉰다고 한다. 오늘따라 음식도 신선해 보인다. 사람 마음이란 참 감사하다. 오랜만에 밥을 한 그릇 비우고, 반찬도 비웠다. 식사를 하고 짐

을 입구에 내려놓았다. 숙소를 청소하는 아주머니 둘이 인사를 한다. 고마움을 표시했다. 청소와 욕조에 물을 매일 채우느라고 고생했다. 오전 9시 반경, 차가 왔다. 단장, 부단장이 내려서 우리에게 반갑게 인사를 한다.



우리들에게 약속을 지켰다는 듯 자신만만한 표정이다. 남은 3,400톤을 36시간 만에 하역을 마치고, 오늘 10시에는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다. 우리는 차를 타고 떠난다. 여성 봉사원들, 남성봉사원들이 모두 나와 잘 가라고 인사를 한다. 인정이란 모든 것을 초월하는가? 순간, 눈시울이 시큰해진다. 흥남부두에 도착하니 한창 마무리 작업 중이었다. 간밤에 인원을 두 배 이상 투입했고, 작업중에 기중기 한대가 고장나서 당초 예정시간보다 한 시간 정도 지연이 될 것이라고 한다. 11시경, 작업이 끝나고, 배는 출항할 준비를 하고 있다. 12시 경 출항. 우리는 단장, 부단장과 마지막 작별인사를 하고 배에 올랐다. 배가 떠날 때까지 두 사람은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든다. 뱃고동이 울리고 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젠 우리 배엔 북측 도선사(그들은 '수로안내원'이라 부른다)일행과 검역소 일행 둘만이 타고 있다. 그들은 우리 배를 북측 묘박지(수로안내지점)까지 안내해 주기위해서다. 흥남항의 검은 모습들이 서서히 멀어져가고 안내선 한 척이 기를 쓰고 우리 배를 따르고 있었다. 그들의 도선사 등을 태우고 가기 위해서

드디어 우리 일행은 북측수역을 벗어나 우리 수역으로 넘어왔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꿈을 꾸는 것만 같은 생각에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면서 언제 다시 이곳에 오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상념에 잠겼다.



④ 북한을 다녀와서..... - 주차간평양(走車看平壤) -



김 광 수

(통일교육원 사이버교육과
사무관)

평양 방문은 이번이 4번째이다. 먼저 북경으로 가서, 북한 대사관을 통해 북한행 비자를 받아 평양으로 가서 돌아올 때는 평양으로 갈 때의 역순으로 비행기만 4번 갈아타는 경로였다. 당초 추석연휴 기간 중에 다녀올 예정이었던 출장이었으나 태풍으로 인한 일정 연기로 평일 2박3일간 다녀오게 되었다. '운이 좋다' 라고 해야 하나?

고려항공을 통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우리 일행은 짐도 풀지 못하고 곧바로 물품하역장소인 남포항으로 출발하였다.

물품을 싣고 온 선박의 선장(캄보디아 출신으로 영어를 거의 하지 못해 대화가 어려웠음)이 주요 서류 일부를 가져오지 않아 약 4시간 정도 지연된 후에야 선상 인도·

인수식을 거행하고 하역을 시작한 후 21:10경에 숙소인 보통강호텔로 출발하였다. 마

침내 호텔에 도착하여 짐을 호텔 직원에게 방으로 배달(?)을 시키고 동석식사 장소로 향했다. 아침과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라 무척 허기진 상태였다. 허겁지겁 밥을 먹고, 새벽 1시쯤 잠을 청한 후 새벽 6시쯤 깨어나 씻고, 다시 아침을 대충 먹고 08:30경 순안공항으로 출발하여 10:30 북경행 비행기를 타고 오는 매우 분주한 일정이었다.

평양에 머문 16시간 중에 4시간은 차로 이동하였고, 4시간은 컴컴한(남포의 [선원구락부]가 정전상태였음) 건물에서 대기하였고 8시간은 호텔에서 식사와 잠을 잔 시간이었다. 그야말로 주마간산(走馬看山)과 같은 말 그대로였다.

공항에서 평양으로 향하는 도로와 평양-남포간 도로를 승합차를 타고 달리면서 본 주변 풍경은 평화롭다는 느낌이었다. 도로주변의 코스모스는 한편의 풍경화였고, 벼농사도 꽤 잘 된 것 같았다. 태풍 피해가 적은 탓도 있으리라!

도로변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웃은 비록 남루하였지만 표정들은 다들 밝아보였다. 000의 건강이상설에도 불구하고 평양주변의 풍경은 표면적으로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개인적으로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다. 바로 평양-남포간 약 50km 도로를 완벽하게 달려

보았다는 점이다. 2003년에 식량분배 현장 확인차 배로 남포항에 갔을 때 남포-평양간 도로를 반 이상 달려 [청산리 협동농장]을 방문한 적이 있고, 작년엔 [평양-남포간 자전거 경기대회]에 참가하여 평양-남포간 도로를 약 10km 이상 자전거를 타고 달린 적이 있다. 중간 끊어진 10km 정도의 거리를 이번 방문으로 완벽히 이은 셈이다. 또 하나의 성과는 4번의 방문에서 각각 다른 숙소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고려호텔, 양각도호텔, 량강호텔 그리고 이번에 머문 보통강호텔 등 주요 호텔을 섭렵하였다.

이런 탓에 눈을 감으면 평양 전경이 환하게 떠오르지만 향후 또 가보고 싶은 욕심도 있다. 첫째는 아직 보지 못한 <아리랑> 공연을 직접 보고 싶은 것이고, 둘째는 평양을 거쳐 <백두산>을 가보고 싶다는 점이다. 평양에 한번도 다녀오지 않은 분들에게는 필자 욕심이 너무 과한 것 같아 미안한 감도 있지만, 본능적인 감정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다.

이번 방문을 통해 새삼 느끼는 것이지만 평양 이외 소도시들의 인민들의 삶은 무척 어려울 것 같다. TV, 신문 등의 통제와 핸드폰의 통제는 북측지역 인민들의 삶을 급변하고 있는 세상과 점점 더 멀게 하고, 빨간색의 각종 구호('내 나라가 제일 좋아', '우리식대로 살자', '가는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000장군님 만세' 등)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북측 인민들의 생각을 움아매고 있는 것 같다. 생활필수품의 공급도 충분치 않을 것이고, 불평·불만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체제로서 국제공항인 순안공항은 우리의 지방공항보다 출입국 인원이 적은 것 같고, 시스템도 원시적이다.

왕복 10차선의 비행기 활주로 같이 넓은 도로를 덜컥거리며 달리는 승합차에서 밖의 풍경을 줄곧 내다보며 뜬금없이, 두서없이 스쳐 지나가곤 하던 상념들은 "어떻게 하면 저 밖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상처없이 보존하여 통일한 뒤에도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평양-남포간 환하게 뚫린 도로는 통일이 되면 물류수송에 큰 기여를 할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필자 혼자서 생각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쓸 데 없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자괴감도 가끔 들곤 하지만 꼬리를 물고 떠오르는 상념을 억지로 지울 수는 없었다. 비록 <주마간산>이지만 눈에 보였던 풍경과 인민들의 모습들이 허상이 아닌 실상이었으므로 더욱 가슴이 막막해질 뿐이지만, 남북이 모두 함께 잘살게 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게 되길 기원해 본다.




<북에 전달할 물품을 싣고간 배 - 남포항>



<북경북한대서관>



<평양 - 남포>


 「평화박물관」 이야기


김은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생)

평화, 지극히 평범하고 쉬운 말이지만 이를 한마디로 답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평화로운가?' 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조금 쉬워진다. 아직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는 오지 않았다. 한반도는 아직 분단상태이고,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아래 세대로 내려갈수록 통일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것은 전쟁의 아픔을 모르고 평화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총칼을 들이댔던 아픔의 과거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통일'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아니 오히려 하면 귀찮을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한반도는 아직 전쟁이 종결되지 않은 '휴전' 상태다. 진정한 통일은, 전쟁이 없는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지 깨달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다.

인사동 후미진 골목에는 우리의 평화의식을 되새겨줄 수 있는 자그마한 공간이 있다. 바로 '평화박물관'이다. 이 평화박물관은 베트남전쟁에 대한 사회운동으로 출발했다고 한다. 한국은 전쟁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가해자이기도 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된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셨던 두 분 할머니의 성금으로 추진되었고 아픈 기억을 가진 사람들의 연대, 즉 고통의 연대가 이 박물관의 설립목표이다. 전쟁의 피해자로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할머니들의 뜻을 기리고 평화를 사랑하고 원하는 시민들의 정성을 모아 평화박물관을 짓기로 했던 것이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평화운동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3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의 정식명칭은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이다. 처음부터 큰 박물관을 세우기 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기부를 모아 제대로 된 박물관을 세우기 위한 과정에 있는 것이다. 1999년 시작된 이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는 원래 베트남에 박물관을 지으려 했다고 한다. 그러나 베트남은 승전국이라는 인식 때문에 전쟁의 아픔을 전시하는 박물관을 짓기 꺼려했고, 결국 우리나라에서 시작하게 되었던 것, 현재는 6명의 상근 활동가들이 민간단체의 기부로 운영하고 있다. 남성적, 이분법적 성격을 띤 전쟁기념관과

달리 대안적 성격의 박물관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민간의 기부로 운영할 생각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형식적인 웅장한 건물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으로부터 시작해 이동 순회전시를 통해 생활현장 곳곳에 평화의 벽, 평화의 복도, 평화의 책꽂이를 만들고 있다. 건립추진위원회로 있는 지 3년이 되었지만 아직 제대로 된 박물관 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이들의 이러한 평화적 마인드 때문일 것이다.



〈전시관〉

현재 이곳에서는 〈포토노이아 4색전〉이 열리고 있다. 이 전시에서는 4명의 학생작가가 카메라에 담은 일상의 시선을 느낄 수 있다. 이 곳에서는 계속해서 주목할 만한 다양한 작품전들이 있어 왔다. 8월 첫째, 둘째주에는 〈평화만들기 프로젝트〉가 전시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민통선이라는 지역적, 역사적 의미를 지닌 접경지역(평화시대)의 학교와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미술프로그램이었다.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미술적 상상력을 근간으로 상호 소통을 통하여 분단의 아픔과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여 평화의 의미를 나누고 발견하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지향적 의미의 간극을 이어주고 넓혀나가는 취지의 프로젝트였다고 한다.

셋째, 넷째 주에는 〈티베트를 생각한다〉는 주제로 티베트를 생각하는 예술가들이 모여 작품을 전시했다. 7월에는 이라크전쟁 사진전, 6월에는 팔레스타인 아랍민중의 아픔을 그려낸 〈'나지 알 알리'의 작품전〉 등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었다고 한다. 또 어린이를 위한 평화책 순회전시회도 열어 평화교육도 하고 있다. 11월에는 〈엄마나라 이야기〉라는 주제로 베트남, 필리핀 등의 만화를 전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다문화가정 아 이들이 한국식으로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엄마나라의 문화도 자연스럽게 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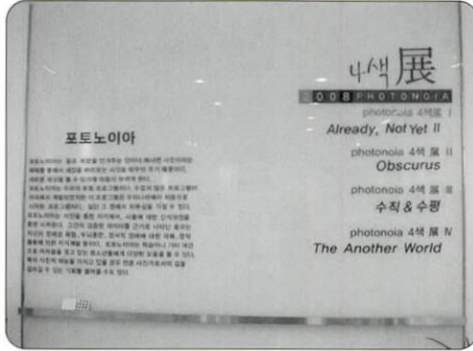
〈평화공간〉

전쟁을 경험한 대부분의 나라에는 평화박물관이 있다. 일본을 비롯해 영국, 독일, 미국, 코스타리카 등은 전쟁의 아픔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평화박물관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리라! 특히 일본은 원폭피해를 받은 나라임을 드러내기 위해 평화박물관을 많이 짓고 있다고 한다. 태평양전쟁의 책임자이자 가해자임을 감추기 위함이라고도 하지만, 제대로 된 평화박물관 하나 없는 우리나라 실정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다.

통일을 외치기 전에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평화'일 것이다.

통일은 우리가 한 민족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의 터전인 한반도에 아직 평화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다. 전쟁의 기억을 가진 세대들은 하나 둘 떠나가지만, 아직 우리에게 평화는 오지 않고 있

다. 우리에게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며 평화를 말해줄 무언가가 필요하다. 평화박물관이 통일교육의 시작점이 되어 통일을 한발 앞당기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전시작품 설명〉



〈평화운동가 이기찬씨〉

10



- 통일칼럼

- 헌장에세이

- 평화열차

- 참여마당





④ 통일교육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이 종 훈
(춘천교대 교수)

이제는 또 하나의 고전(古典)이 된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에서 유홍준 교수는 “아는 만큼 느끼고, 느낀 만큼 보인다”며, 아는 비결의 근거로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는데, 이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다”는 조선시대 문인의 글을 들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이해의 과정과 구조는 문화유산이나 미술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그 근거는 심오한 종교나 철학 또는 감명 깊은 문학작품에서 찾지 않아도, 부모와 자식, 친구나 연인, 민족과 국가, 동양과 서양 등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상식이다.

그런데 남북의 통일문제는 이러한 상식이 통하지 않은 또 다른 어려움이 적지 않다.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로 잔뜩 무장한 채 남한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배타적 정책,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관련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다양한 입장, 단순한 역사왜곡이 아니라 영토패권주의의 치밀한 포석으로 의심되는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 등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우리 자체 속에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어려움은 더욱 심각하다. 외환위기와 경제난을 겪으면서도 이산가족상봉, 예술단공연, 금강산관광,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개통, 개성공단건설 등 다양한 관계개선과 경제협력을 추구해왔던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노력은, 정권이 바뀌면서 또 북한의 돌발적 언행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했다고 간단히 평가되고 있다. 대화를 통한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자면서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표현할 수 없어 '직접적 군사위협'이라고 지칭한 「국방백서」나 「장병교재」는 안보의식을 허물고 미국을 '주적'으로 간주하게 만든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받고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각종 조사보고와 각급 현장교사가 밝히고 있듯이, 민족통일이 이루어진 국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통일교육'을 받으며 성장할수록 '통일이 왜 필요한지'에 관한 당위적 지식은 강화되더라도, '통일이 되면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 감성은 더욱더 희박해지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이해하고 사랑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없을 때 이해하고 사랑해야만 한다고 강요하면, 겉으로는 그렇게 하

는 척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반발심만 키울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통일교육은 멀고도 험한 가시밭길을 헤쳐갈 수밖에 없다. 이에 학교 통일교육의 목표와 현황을 중심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 본다.

학교 통일교육의 내용체계는 그 세부목표 6개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1) 역사적 정통성 회복과 전쟁위험 해소, 민족번영을 위한 평화통일의 필요성 등 '통일문제의 이해'
- 2) 북한의 정치체제, 경제난과 대외정책, 군사력, 생활상, 인권문제 등 '북한 이해'
- 3) 불안정한 국제정세에 따라 변화된 '통일환경의 이해'
- 4) 인도적 지원사업의 사례와 의의 등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 증대'
- 5) 통일후유증을 최소화할 교류협력, 선진 복지국가와 민주사회 지향 등 '통일정책과 통일 미래상'
- 6) 실질적 민족공동체 의식 구축과 통일기반 조성, 민주시민의식의 생활화 등 '통일준비'

이런 학교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체계는 반공, 멸공(승공), 안보, 이데올로기 비판, 체제우월성 비교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과거에 비해 매우 전향적으로 발전되었고 그 세부지침이나 강조사항, 추진계획 역시 상당히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측면을 갖추었지만,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통일문제의 이해'에서 북한이 우리와 직접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 분단의 장기화 때문에 권위주의적 독재정권이 출현하고 소모적 군비경쟁 때문에 경제발전이 제약된 측면도 있지만 민주시민으로서 우리의 역량과 적극적인 노력이 다소 부족했다는 점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둘째, '북한 이해'에서 북한의 극단적 폐쇄체제와 국가안보의 필요 때문에 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도 증폭되었다는 점, 북한의 핵 등 대량살상무기는 분명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통일환경의 이해'에서 중국의 동북공정 그리고 우리의 고대사와 한일관계사를 왜곡 날조하고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획책해 주권을 침해하는 등 합법적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국수주의가 통일환경에 미칠 심각한 영향과, 6자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보다 자주적이며 주체적인 근본적 원칙과 강력한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어야 한다.

넷째, '통일정책과 통일 미래상'과 '통일준비'에서는 그 당위성과 방안의 기본골격이 민족공동체 의식인 반면, EU/중남미/동남아시아 등은 민족주의를 탈피해 지역의 다양한 경제와 문화를 중심으로 국가연합체제를 형성해가는 현시대의 흐름, 그리고 통일 이후 미래상인 선진 복지민주주의의 관계와의 연계성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해야만 한다.

이런 학교 통일교육의 내용체계에 따라 각급 학교별, 각 교과목 별로 '초등학교'에는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게 유도하는 정서적 접근과 통일되었을 때 통일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실용적 접근을 통해 분단의 고통에 공감하고 통일을 이루려는 기초의지의 내면화를, '중등학교'에는 분단의 원인과 과정 및 폐해,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상황 등 객관적 지식을 통해 통일문제를 종합적이며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기를 것을, '고등학교'에는 통일과 북한 관련 지식을 체계화하고 통일과 그 이후를 모색할 수 있고, 통일문제를 국제정세 속에서 종합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울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국어과'에는 남북의 문학과 언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말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도덕과'에는 북한 및 통일문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인식을 토대로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 평가하고 해결하는 태도를 함양하며, 바람직한 통일을 위해 지향해야 할 가치와 갖추어야 할 덕성을 강조할 것을, '사회과'에는 남북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특징과 북한지역의 지리경제적 중요성, 분단과 6·25 전쟁 등 근·현대사의 주요사건들, 특히 고학년은 냉전체제 전후상황 및 최근의 긴장완화노력을 다룰 것을, '예체능과'에는 북한의 미술이나 음악을 직접 감상하는 정서적 접근을 통해 동질성과 차이성을 확인해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통일/북한관련 문제를 가장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는 통일교육의 기초교과"인 '도덕과'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수업시수에 비해 내용체계가 너무 과중하다.

주당 1시간 수업(8학년만 2시간)으로는 사회/국가/민족생활 영역(통일교육)뿐 아니라 개인생활과 가정/이웃/학교생활 영역(인성교육)까지 걸친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이념과 가치관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다. 특히 관련지식을 습득하고 판단하는 인지적 능력보다 다양한 생활체험을 통한 도덕적 실천 성향과 행동습관의 내면화가 요구되는 초등의 경우 더욱 그렇다. 그 결과 수업은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부실한 교육성과는 교과목 자체에 대한 내용은 무관심만 증대시킬 뿐이다.



둘째, 학년별 내용체계에 유기적 연관성이 부족하다.

주당 1시간이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각 학년별 내용체계에서 통일교육과 인성교육은 보다 긴밀한 유기적 연관성이 요구된다. 가령 중등(8학년)의 경우 인성교육에서 다루는 전통도덕/시민윤리 및 경제윤리를 북한의 주체사상 및 경제상황과 비교해 살펴볼 수 있도록 통일교육에 반영하고, 고등(10학년)의 경우 인성교육

에서 환경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북한의 환경실태나 환경보존 등에 관한 생태학적 접근을 통일교육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학교 통일교육을 포함한 일반 통일교육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교육목표와 내용체계의 정합적인 구성과 유기적으로 관련된 적절한 편성이 요구된다.

모든 통일교육은 통일준비와 통일이후를 밑그림으로 한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일반 및 학교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체계는 자유민주주의의 보편타당한 이념과 가치관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기보다 그 세부목표와 이것을 달성할 구체적 내용체계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또한 극히 제한된 수업시수에 과중한 내용을 요구하면 필연적으로 부실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용체계 전체를 학생들의 발달수준에 따라 적정하게 재편성하고, 학년별 통일교육과 인성교육의 유기적 연계성을 확보하며, 통일관련 시사주제나 다양한 시청각자료를 통한 토론학습 등 질적 접근을 강화해 보완해야 한다.

둘째, 북한/통일문제의 실상파악에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남북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통일문제에 해결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북한의 실상 못지않게 남한 내부의 세대/계층 간 가치관 갈등을 총체적으로 반성할 수 있고, 통일독일이 생활과 문화에서 이룩한 발전을 소개하거나 조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통일을 준비하게 위해 오랜 시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독일의 정부나 국민의 노력 그리고 통일 이후 과거 동독주민과 서독주민들이 느끼는 갈등과 문제점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금강산, 개성지방, 백두산 관광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체험관광이 북한의 실상파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적인 노력도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민족공동체의식의 실질적 형성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통일교육에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의 격차와 이질성을 극복할 실질적 민족공동체의식의 구축이 선결과제인데, 여기에는 중국/일본/미국/러시아 등 재외동포를 빼놓을 수 없다. 물론 통일부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통일교재' 등을 개발하고 있고 각종 교육도 실시해왔지만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민족공동체 구성원이면 반드시 알아야 할 우리 역사/전통/문화/예술 등의 최소내용으로 구성된 '민족교재'를 조속히 개발하고 널리 배포하는 한편, 반복적 학습을 통해 언제 어디서 만나더라도 동일한 민족으로 공감대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블루오션'인 사이버교육을 원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통일교육현장에서..... - 한성여중 CA반의 수업스케치 -



김 경 민

(통일교육문화원 원장)

시작하면서

새벽3시 더 자고 싶지만 일어나야만 했다. 오늘은 신안군 비금도에서 오전 9시 비금 중고등학교에서 통일교육을 하는 날이다. 새벽을 달려 목포항에 도착해 첫배로 1시간 정도 달려 비금도에 도착했다. 우리 통일교육의 현장은 전국 방방곡곡이다. 어느 때는 섬마을 학교이고 어느 때는 두메 산골이다. 그럴 때는 어김없이 잠도 설치고 아침도 달리는 차안에서 빵으로 떼워야 한다. 그러나 통일교육을 하고 싶어도 용기를 내지 못하는 선생님들과 우리를 만나 통일에 대해 희망을 갖기 원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우리의 사치스러움에 불과하다.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현관에서 통일교육을 하러 왔다는 우리를 마주치면 “통일은 왜 해요?” “지금 더 좋은데” “재미없을 것 같애” 등등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끝난 뒤 아이들은 통일에 대해 새로운 희망이라도 생긴 듯이 우리를 보며 “재미있었어요. 통일했음 좋겠어요.” 등등으로 말한다. 인사치레인지 정말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분은 좋다.

우리는 전국을 찾다니며 ‘찾아가는 통일교육’을 통하여 단회성 통일교육을 시행하기도 하지만,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교육으로 중학교 CA 반(북한 연구반, 통일시사반)을 통하여 교육한다. 실제로 단회성 통일교육도 중요하지만 지속적 교육은 학생들의 변화를 눈으로 직접 확인 할 수 있다.

< 한성여중 CA 통일연구반 현장 스케치 >

오늘 현장 소개는 한성여중 통일CA반의 통일매거진을 만드는 수업을 중심으로 현장스케치 하고자 한다. 한성여중은 한달에 1번 2차시로 운영하였으며, 올해 총 6번 교육을 시행하였다.

- 대상 : 한성여자중학교 통일연구CA반 16명
- 날짜 : 2008년 9월 6일
- 활동 : <상상하자! 통일매거진 만들기>

학생들에게 통일 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다.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화될까? 학생들은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한다. 당장에 중간고사가 코앞인 학생들에게 통일 후는 너무 먼 미래이며, 굳이 자기가 애써 고민해야 할 문제들도 아닌 것이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본다.

“통일이 되면 모든 일들이 순조롭고, 좋은 방향으로만 갈까요? 남북으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면 너희들은 어딜 가보고 싶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럼 북쪽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혹시 통일이 되고 나서 더욱 두드러지는 문제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남한의 기업들이 북한지역에 여러 공장을 세웠어. 어떤 좋은 점들이 있으며, 혹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은 무엇일까요?

통일 이후에는 어떤 문화행사들이 있을까? 새로 생기는 TV 방송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해외에서는 우리의 통일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선생님이 여러 질문을 했는데, 이제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 이구요. 이제 여러분들은 더 많은 생각들을 펼치며 구체적으로 적어 책으로 만들어봤으면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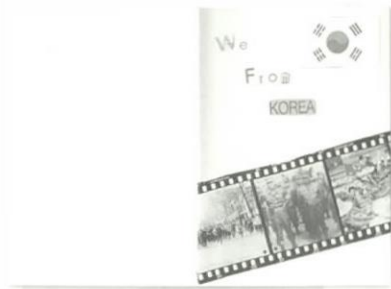
모둠을 만들고 미리 준비한 미니 북과 함께 필요한 준비물들을 각 모둠에 나눠준다.

“이 안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 너무 막막하지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도와 줄 거예요. 각 페이지마다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선생님이 주제를 알려주면 여러분은 그에 맞는 글을 쓰되, 기사처럼 취재하고 보도하는 형식으로 합니다” “이해되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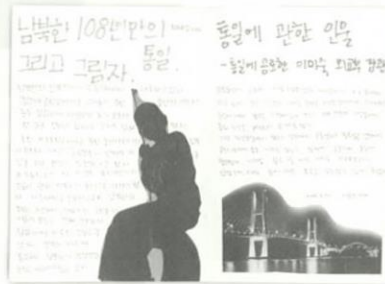
“책이니까 표지가 있겠죠. 이 표지에는 이 책을 대표하는 그림과 제목을 적어주세요.

2페이지는 표지에 대한 설명과 목차를 써봅니다.

3페이지는 공익광고 면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면 통일 후에서 여전히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공익광고 같은 것입니다.



〈표지〉



〈통일된 한반도의 문제점〉



〈2,3페이지 목차와 공익광고〉

4페이지에는 통일 후 변화되는 모습. 예를 들면 남북한의 학교제도가 다른데, 그것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또 다른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연결된 철도, 도로를 따라 사람들이 여행을 할 수 있겠지요. 그 풍경을 묘사할 수도 있고요. 여러 면에서 한번 상상해보세요.

다음 5페이지에는 아까도 질문했지만, 더불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 갈등들을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독일의 경우처럼 통일이 되고 나서도 서독 사람은 동독사람을 오씨(게으르고, 더러운)라고 동독을 불렀고, 동독사람은 서독사람을 베씨(거만하고 잘난체하는 돈만 아는 사람들)라고 부르며 서로 비방하기도 했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북한사람에 대한 차별이나 무시가 있을 수 있겠죠. 또 여기저기 세워진 공장으로 환경이 파괴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한 기사를 써보세요.

6페이지는 통일 후 새롭게 볼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것을 소개해 보세요. 예를 들면 북한의 유명한 가수가 낸 음반을 소개하거나, 함께 만든 뮤지컬을 소개하면서 그것의 내용, 누가 출연하는지, 언제 어디서 하는지, 그걸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를 상상하면서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7페이지는 한 인물을 인터뷰하는 거예요. 통일과정에서 유명해진 인물인데, 통일과 관련한 특별한 공연을 했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도와주는 선한 일을 했다든지 등등 그 상상의 인물을 인터뷰하세요.



〈4,5페이지 변화하는 한반도〉



〈6,7페이지 문화행사 및 인터뷰〉



모든 것은 상상이지만, 그 상상이 꿈이 되어 앞으로의 미래를 이끌어 갈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상상대로 한반도가 변화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 활동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각 페이지별 주제를 생각하며 역할분담을 하시고, 각각의 주제에 맞게 상상하고 기사를 써보세요. 단. 취재하기 위해 어디에 갔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등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자, 이해가 되었다면 이제 시작해보세요.

“학생들은 매우 어려워한다. 그래서 학생들의 모둠사이를 다니면서 한명, 한명이 무엇을 맡았는지 물어보고, 같이 어떤 기사를 써볼지 생각하라고 주문한다. 보통 내가 수업꺼리를 주면 학생들은 그것에 대해 생각한다. 학생들은 어려워하는 이 활동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물어본다. 좀 더 쉽고 좀 더 재미있는 것을 할 걸 그랬나... 먹기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꾸역꾸역 손가락에 밥을 듬뿍 담아 떠먹이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그래도 뱉어버리지 않고 오물오물 먹어 소화시키며 성취감으로 기쁘게 발표하는 학생들을 보게 된다.”

활동과정을 자세히 기록하자면, 다음과 같다.

- 1) 책 모양 만들기 : 종이(4절 크기)를 나눠주고, 책을 만든다.
 - 2) 각 페이지에 들어갈 내용들을 알려준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시사잡지를 생각하면 됨)
- 〈표지〉 신문의 이용해 미니북을 상징하는 그림, 사진을 오려 붙이고, 잡지 이름, 발행년,월,일을 적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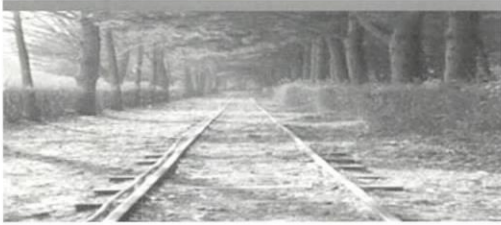
- 〈2페이지〉 표지이야기는 표지에 붙인 그림, 사진에 대한 설명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적는다.
 차례는 각 페이지와 내용을 보기 쉽게 적는다.
- 〈3페이지〉 공익광고. 통일과정 중 여전히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을 위한 공익광고를 만들어본다.
 * 여러 공익광고를 모아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4페이지〉 뉴스. 통일과정에서 변화하는 한반도 기사(교육, 정치, 경제 등)
- 〈5페이지〉 뉴스. 통일과정 중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생각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상의 인물을 정하고 인터뷰 형식의 기사를 쓴다. (소외, 환경, 차별, 취업, 토지 등)
- 〈6페이지〉 문화/예술 소개. 통일과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남북 문화교류를 통한 문화예술분야를 소개한다. 예를 들면 북한 가수가 낸 앨범에 대한 소개, 남북한 연극열전을 하는 프로그램을 소개, 혹은 스포츠 분야의 일어날 수 있는 일 등 여러 방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 〈7페이지〉 통일과정 속에서 유명해진 어느 한 인물을 인터뷰한다. 어떠한 일로 유명해졌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도록 한다.
- 〈뒷면〉 만든지 기자○○○

- 3) 역할 분담 및 토의 : 조별로 잡지의 이름을 함께 토의하고, 통일이 언제 될지 상상하며 어느 잡지를 발행할 것인지 정한다. 표지는 함께 만들고, 나머지는 역할 분담하며 각각 준비한다. 각 페이지의 내용을 미리 적어볼 수 있는 활동지를 나눠준다. * 조원 수에 따라 표지 및 공익광고는 함께 만들고, 나머지 부분을 분담할 수 있다.
- 4) 기사거리 찾기 : 각자가 맡은 분야의 기사거리를 찾는다. 각 페이지마다 정해진 주제를 생각하며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 사진 등을 참고하여 기사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사가 먼저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면 좋다.
- 5) 미니북에 옮겨적기, 꾸미기, 마무리 : 각 페이지에 맞게 기사를 옮겨 적는다.
- 6) 주의할 점 : 각 조에 하나의 매거진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기사를 쓴다는 점을 유의하여 가상이지만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인물을 설정한다.

나가면서

통일은 꼭 이루어야 해! 라고만 강조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그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기 위하여 수업에 여러 가지를 활용한다. 그래서인지 학생들은 어려워하지만 흥미로워한다. 아이들의 성취감 역시 미래의 희망이 아닐까 싶다.

통일교육의 내용은 여러 가지로 구성될 수 있고 수업방법도 여러 가지의 테크닉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을 활용하든 가르치는 자의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학생들은 주인으로 통일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④ 전문가의 북한 방문기



이 현 주

(남북문화연구소장
철학박사)

1. 그 길

필자가 북한을 가보아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1990년이 처음이다. 계기는 먼저 1990년 10월 14일부터 24일까지 남의 황병기를 비롯한 연주자 17명이 「2.8문화회관」과 「동평양대극장」에서 공연한 '범민족통일음악회'가 있었다. 다음으로 같은 해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북의 성동춘과 33명이 「예술의 전당」과 「국립극장」에서 공연한 '90 송년통일전통음악회'가 있었다. 여전히 분단의 현실은 종전(終戰)이 아니라 휴전(休戰)상태다.

'90년, 그 해 겨울은 윤이상의 노력 끝에 통일의 봄기운이 완연했다. 그 사건을 지켜보면서 필자는 북한음악을 주제로 연구를 해야겠다고 작심하고 박사과정을 마쳤다. 그러자 소규모로 북한에 가서 직접 부딪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평화문제에 관심이 많고 독립투사 부모를 둔 전 국회의원 김원웅, 통일 월간지「민족 21」의 기자들, 가수 여러 명, 그리고 정몽헌회장추모카페회원 다수들과 함께 2004년에 방북의 첫걸음을 시작했다.

그 길은 임수경이 북한에서의 45박 46일 중 20일을 아사(餓死)직전까지 단식투쟁하여 문규현 신부와 함께 두 발로 겨우 넘은 38선이다. 고 정주영회장이 정부가 할 일을 기업인으로 바닥에 돈을 깔아가면서 소떼를 몰고 성큼 뛰어 낸 길이다. 통일관련 공무원들과 NGO실무자들이 보이지 않는 묵묵한 노력으로 지킨 피와 땀의 길이다. 물꼬를 막으면 농사를 망친다.

2. 북한, 그 곳

만수대, 만경대, 동명왕릉, 정릉사, 윤이상음악당, 민족식당, 옥류관, 고려호텔, 양각도호텔, 주체사상탑 꼭대



〈민족식당에서 식사 중 공연〉

기, 묘향산 등의 흔히 내부까지 갈 수 있는 곳으로 신의주, 원산, 남포 등 가기 힘든 곳의 이야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마음먹고 길을 알아보면 합법적으로 방북(訪北)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유의할 것은 방남(訪南)이든 방북(訪北)이든 서로 예정에 없던 이동은 불가능하며 정해진 곳으로만 움직인다.

이러하면 행사 때문에 남에서 북으로 간 경우 예정된 스케줄대로 움직인 후 머무는 객실에 당도하면 다른 층에 머무는 동료의 객실 방문(訪問)이든 호텔 지하든 스카이라운지든 그 호텔

안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달러(USD)나 유로(EUR)를 지불하고 술이든 차든 즐길 수 있는 정도의 제한된 자유는 누릴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북한을 남처럼 생각한 나머지 사전동의 없이 호텔을 벗어나 평양 지하철을 타고 마음대로 여기저기 다니고 싶어 개인행동을 한다면 다소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생명을 걸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만약 그러한 제한을 두고 불편해 한다면 단호한 앵콜레랑스(intolerance)를 반(反)하는 톨레랑스(tolerance)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필자가 여러 차례 방북(訪北)후 기억나는 장소 중에는 인민병원과 평양육아원, 정성제약, 5.1체육관, 칠골교회, 김일성종합대학도서관(이하「김종대」), 인민대학습당, 박연폭포 등이 있다. 그곳을 내부 깊은 곳까지 가서 세밀히 살펴본다는 것은 일반적인 평양스케줄에서 살짝 벗어난 코스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인민병원 안은 북새통을 이루는 우리네 병원과는 달리 소수의 환자가 사복차림으로 누워 있다. 의약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음을 반영하듯 누워 있는 사람의 어느 손에도 링거(Ringer)는 보이지 않았고 병실은 빈 침대가 더러 있다.



〈주체사상탑 정상에서 찍은 평양 시내〉

평양육아원은 갓 돌이 지나 말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영아나 유아들의 손을 잡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교사(教師)의 동요가 작은 방에서 울려 퍼졌다. 변화가 있다면 최근 몇 년 사이 평양의 아이들의 영양상태가 조금 호전되다가 다시 나빠짐을 느낀다. 아직 많은 아이들은 분유 구경은커녕 아사하는 경우도 흔함을 짐작할 수 있다. 평양시내에서는 길을 걸어갈 때도? 어린 학생들은 송가류(頌歌類)를 힘차게 부르면서 행진한다.

북의 아이들 표정은 남의 아이들과 다르지 않다. 몇 년 전 아이들의 얼굴에는 마른버짐이 퍼 있곤 했는데 줄어드는가 싶더니 다시 제자리다. 영양상태가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나빠짐을 알 수 있다. 노동현장에서 북의 노래가 확성기를 통해 전달됨을 확인한다. 평양역 앞은 사람들로 북적이는데 대부분의 옷차림은 남의 서민보다 검소하다. 반면 북의 안내원들의 의상은 그들에 비해 남에 데려와도 구별이 힘들 정도로 상당히 세련되고 화려하다.

평양은 고층빌딩이 많은 편인데 거리 쪽은 그나마 페인트칠이 되어 있지만 한 블록만 들어가도 흉한 시멘트 벽이 그대로 드러난다. 고층 아파트에 널려진 빨래나 해마다 자라는 화초로 보아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은데 전기사정이 좋지 않은 북에서 엘리베이터를 가동하기 힘들 것이니 높은 층에 살수록 걸어가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 봉지 가득 과일을 들고 어디론가 가는 중년여성이 눈에 띄었다. 흔히 보는 광경은 아니다.



〈김일성 종합 대학 강의실〉

정성제약은 남에서 상당한 원조를 하여 항생제를 생산하는 곳이다. 설비시설은 남에서 북측에 제공했고 천정의 전등도 남의 브랜드였다. 진공청소기 또한 남에서 만든 것을 전달해 준 것이었다. 그런데 아리랑축전 때문인지 인력이 모자라 중국의 단동에서 평양으로 원료가 오지 않는 바람에 공장이 일시적으로 가동되지 않았다.

칠골교회에서 남측사람들이 북측사람들과 같이 예배(禮拜)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칠골교회는 강반석(김일성)이 출석하던 평양 외곽의 작고 좁은 교회다. 필자가 방문

한 날은 그 좁은 교회에 의자가 지나치게 많이 놓여 좁은 간격 때문에 일어서기 힘들 정도였다. 정상적인 예배가 행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목사도 성가대도 있었지만 설교는 남의 그것과 사뭇 다르다. 평양 봉수교회를 리모델링 한다는 말을 그 즈음 들었다.

「김종대」는 북의 명문다운 면모이다. 17세 앳된 새내기부터 서른이 넘어 보이는 만학도까지 다양한 지성들을 볼 수 있다. 「김종대」도서관에 들어가면 남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주도한 도서관현대화사업을 엿볼 수 있다. 남의 전자도서관처럼 검색시스템을 갖춘 최신컴퓨터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자판의 체계 등은 남과 달랐으나 자연스레 채팅을 하고 있는 학생이 보였다.



〈김종대 도서관 현대화 사업시〉

대동강변의 인민대학습당은 북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도서관이다. 사서에게 보고 싶은 서적을 청하면 서적운반장치(書籍運搬



〈묘향산 약식 실무회담 중〉

裝置)를 통해 받아 볼 수 있다. 기본적인 도서관과 같이 열람실, 편의시설 등은 남과 같았지만 그 기능은 남과 다소 달랐다. 이를테면 각 층마다 경륜 있는 학자들이 상주하는 봉사실에 가서 직접 학술토론을 할 수 있다. 또한 강의실이 있어 도서관에서 교육까지 행했다. 특히 의외였던 것은 LABORATORY시설을 갖춘 영어강의실에서 영어권 외국인강사의 수업을 듣던 학생하나가 불펜이 떨어지자 “Oops”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고 미국식 발음이 정확한 영어를 구사한다는 점이다. 인민대학습당은 도서관과 교육이 공존하는 곳이었다.

5.1체육관에서의 아리랑축전은 제3의 고난의 시대를 보내면서 몇 년 만에 행하는 것을 관람하게 되었는데 역시 소름 끼치도록 한 치 오차 없이 진행되었다. 경기장 북쪽 관중석을 가득 메운 북의 각 학교로부터 선별된 학생들이 자로 잦 듯 앉아 있었다. 그들은 관중이 아니라 카드섹션을 위해 앉아 있는 것이다. 전체주의국가에서나 가능한 카드섹션은 늘 그러하듯 단 한명도 실수가 없었다. 가끔 영상물이 연결되어 통일된 카드 위에 펼쳐진다.

그런데 국민가수 조용필 공연의 영향인지 이전에 없던 전기 쇼(Show)가 펼쳐지는 것이다. 학생들이 카드를 연결하여 만든 전기 쇼가 펼쳐지는 스크린은 마치 대형스크린이 갑자기 설치된 것으로 착각이 들 정도로 정교했다. 카드섹션은 아리랑 축전의 주제나 슬로건, 혹은 모자이크 같은 효과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미술을 묘사하면서 시종일관 주체철학사상 안에 단결된 그들의 사상이나 의지들을 전달하고 있다.

한편 경기장 안쪽 마당을 가득 메운 어린 학생들은 단 한명의 실수도 없이 준비된 공연을 하였다.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는 아리랑축전은 일제강점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의 역사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드라마틱하게 구성되어 있다. 물론 훌라후프나 공이나 곤봉과 같은 도구를 들고 집단체조도 하기 때문에 ‘아리랑집체’라고도 한다. 경기장 양쪽 하늘에서는 세계최고의 공중교예(서커스)가 펼쳐지는데 아찔아찔한 장면엔 손에 땀을 쥐게 만들기도 한다.

수많은 아리랑이 공연 내내 불려졌는데 결론은 역시 선군아리랑과 강성부흥아리랑이었다. 박자나 악보에 어떤 사상이 있겠는가? 문제가 있다면 노랫말이다. 순수예술을 배척하고 종자론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바탕에 민요를 중심 고리로 음악을 발전시킨 북한음악의 특성을 이해하면 충분히 걸러서 들을 수 있다. 북의 아리랑이 낯설지 않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은 테마선율이 남의 그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들의 아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지점은 그들의 노랫말에 녹아있는 사상의 획일성과 강제성 때문이다.

2007년 8월에 본 아리랑축전은 사뭇 내용이 달라져있었다. 이를테면 인민군복으로 총칼을 들고 군무를 하는



〈대동강 건너편에서 본 인민대학습당〉

장면이 눈에 띄게 없어졌다. 대신 평화와 번영을 의미하는 군무로 교체되었다. 아리랑축전을 보는 동안 처음 대열 끝에 선 어느 여학생이 후프(hoop)를 놓치는 매우 사소한 실수하는 장면을 몇 년 만에 처음 발견한 것도 그 해다. 남측관광객들은 실수한 어린학생을 위해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언제나 5.1경기장을 가득 메운 북의 관객들은 박수를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다”를 통일된 목소리로 외친다.

개성시범관광을 열던 첫날 개성공단을 지나 개성시내의 유적들을 둘러보며 개성음식을 체험했다. 유기(鑪器) 7첩 반상은 과분하도록 훌륭했다. 평양과는 달리 민둥산이 많은 개성의 사정은 열악해 보였다. 우리가 있어야 할 창문에 비닐이 찢어졌고 남루한 홀겁차림의 사람이 순간 눈에 띄었는데 매우 추워보였다. 겨울이 지나면 동사(凍死), 아사(餓死)하는 사람들이 상당할 것임을 감지할 수 있었다. 박연폭포는 매우 깨끗하다. 금강산처럼 사람들이 배설한 오물 한 방울까지 산 아래로 내려와 처리할 정도로 관리가 철저하다.

3. 에피소드

① 빼앗긴 시간

금강산에서의 일로 기억된다. 북으로 입국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먼저 통과한 누군가가 촬영이 금지된 곳에서 찰칵 누른 것이다. 서슬 퍼런 담당 인민군이 문제제기를 했고 사진 찍은 당사자 한 사람 때문에 수 백 명의 일행은 꿈쩍없이 몇 시간을 속절없이 버려야했다. 사진을 공식적으로 찍을 수 있는 장소인지 불분명할 때는 북측 안내원에게 반드시 물어보는 것이 좋다. “여기 사진 찍어도 되나요?”

② 그들의 성지

평양에 당도하면 반드시 가야하는 곳이 있다. 만수대와 만경대 고향집이 바로 그 곳 중 하나다. 만수대나 만경대는 일종의 성지와 같은 의미가 있는 곳이므로 정숙한 자세로 둘러보아야 한다. 만약 북의 입장에서 볼 때 불경한 짓을 하거나 무성의한 태도를 취하면 어김없이 지적을 당하고 난처해진다. 마치 중국의 도교사원에 가서 사진을 찍는 순간 사진기를 빼앗기거나 중동의 모스크를 방문하는데 민소매나 짧은 하의를 입고 들어가면 쫓겨나가거나 벌금을 무는 이치와 같다. 문화의 차이라고 애써 이해해야 마음이 수월하다.



〈김종대 본관 앞 서정문쪽으로 찍은사진〉

③ 위생실(화장실) 딸린 휴게소를 꿈꾸며

2007년으로 기억된다. 행사를 마치고 평양에서 묘향산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동하기 전에 일행과 이야기 나누다가 화장실 가는 것을 깜박 잊고 그냥 차에 올랐다. 난처해하면서 좀 참으라던 북의 참사가 필자의 안색을 보더니 결국 차를 세웠다. 필자와 같은 처지의 일행들이 와르르 몰려나와 근처로 흩어져 서로 가려주면서 볼 일을 보았다. 여러 차례 묘향산을 갔지만 이처럼 중간에 포함한 일행을 태운 버스 10대가 동시에 도로에 서서 볼 일을 본 것은 그 해가 처음이었다. 평양에서 묘향산까지 넉넉한 화장실이 딸린 휴게소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묘향산 갈 때는 볼 일부터 꼭 챙겨야한다.

4. 뒤풀이

필자는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이라면 꾸준히 소규모일지언정 음악 혹은 문화관련 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싶다. 기득권을 가진 노련한 학자나 젊고 신선한 학자 등 북의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 교환을 통해 문화 예술 분야의 간극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 싶은 이유 때문이다. 그것은 수치(數値)로 나타낼 수도 직접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지만 생각보다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해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다. 물론 혼자되는 일은 없다. 그러나 실패가 두려워서 포기한다면 그것은 필자답지 못한 일이다. 반드시 필자여야만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다만 이익보다는 손실이 큰 이 일에 선뜻 나서서 이가 드물어 제 자리를 지킬 뿐이다.

아무튼 기회만 주어진다면 꾸준히 반복할 것이며 양측의 허락이 있다면 그곳에 1년쯤 머물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고 싶다. 그래서 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협력하여 찾아내고자 한다.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찾아 미리 준비해야만 통일비용이 줄어들 것임은 자명하다. 특히 위험비용을 줄이는 기초작업은 북한관련 정치학자, 경제학자, 사회학자, 문화예술학자들이 원활하게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옳다. 이를테면 50만원 투자해서 500만원 이익을 창출한다면 못할 것이 무언가? “우리는 만나야 한다”는 ‘직녀에게’를 추억으로 만들 날을 기다린다.



① 여명학교



김은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생)

서울 시내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남산 중턱에 자리잡은 여명학교에서는 통일교육의 이론이 아닌 실재를 확인할 수 있다. '여명학교'는 탈북 후 한국 내 정규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연령 및 기타 문화적 차이로 학업과 진로에 어려움을 겪는 새터민(탈북) 청소년들을 한국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대안학교로 2003년에 세워졌다.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학생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기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남한문화를 배우는 과정은 통일교육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자라서 통일 후 세대를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앞으로 매우 중요해 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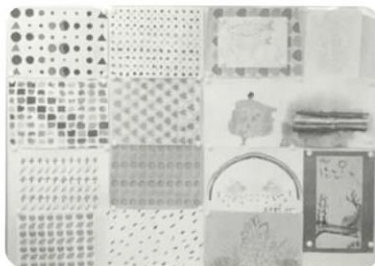
그러나 여명학교는 아직 정부로부터 학력 인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학교를 나온다고 해서 학력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대학 진학을 위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대부분이다. 검정고시는 남한 학생들에게는 그리 어려운 시험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새터민 학생들에게 검정고시는 어렵다. 아무런 준비 없이 남한에 온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북한에서는 배고파 못 살겠고, 중국에서는 잡혀 갈까봐 무서워 못 살겠고, 남한에서는 몰라서 못 살겠다"고 말한다. '자유'와 '선택'이 중요한 남한사회에서 사회주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몹시 당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또한 자신들의 가족과 친지가 북한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늘 죄책감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완전히 남한사회에 적응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남한에서 뿌리내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여명학교다.

교과과정은 중등 1년, 고등 2년으로 16세에서 25세 사이의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학기 초에 신입생을 모집한다. 검정고시 대비 위주의 교과 과목 외에 사물놀이, 제과제빵, 태권도, 컴퓨터 등 특별활동시간도 있다. 현재 졸업생은 40여 명 정도로 사회적응도도 높은 편이다.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도 있고 취업해서 어엿한 사회인이 된 학생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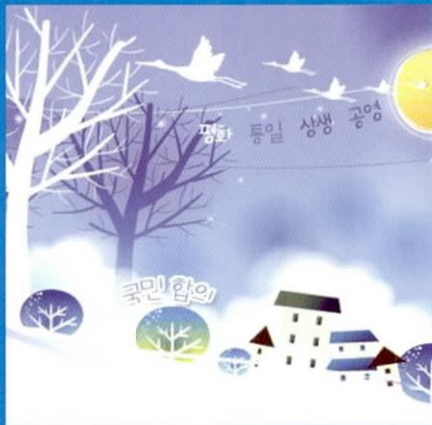
기독교 이념을 바탕으로 세워진 이 학교는 여러 교회들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다. 그래서인지 여명학교의 교육철학은 회복과 이해, 그리고 사랑이다. 남북한의 체제 안의 인간이 아닌, 같은 하나님 자녀로서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여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 그래서 자기정체성을 회복하여 사랑을 실천하도록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학교의 목표다. 기독교 교육을 통해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의 여명을 준비함과 동시에 캄캄한 북한을 여명으로 이끄는 지도자가 되기를 희망하여 지은 이름이 '여명학교' 인 것이다.

현재 탈북 주민들은 1만 명이 훨씬 넘어 그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우리에게서 그들이 남한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 '함께 사는 훈련'은 통일 후에 하기에는 너무 늦다. 미리 내려온 동포들과 차이를 극복하며 서로에게 적응한다면 통일이 좀 더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 출발점에 여명학교가 바로 서 있는 것이다.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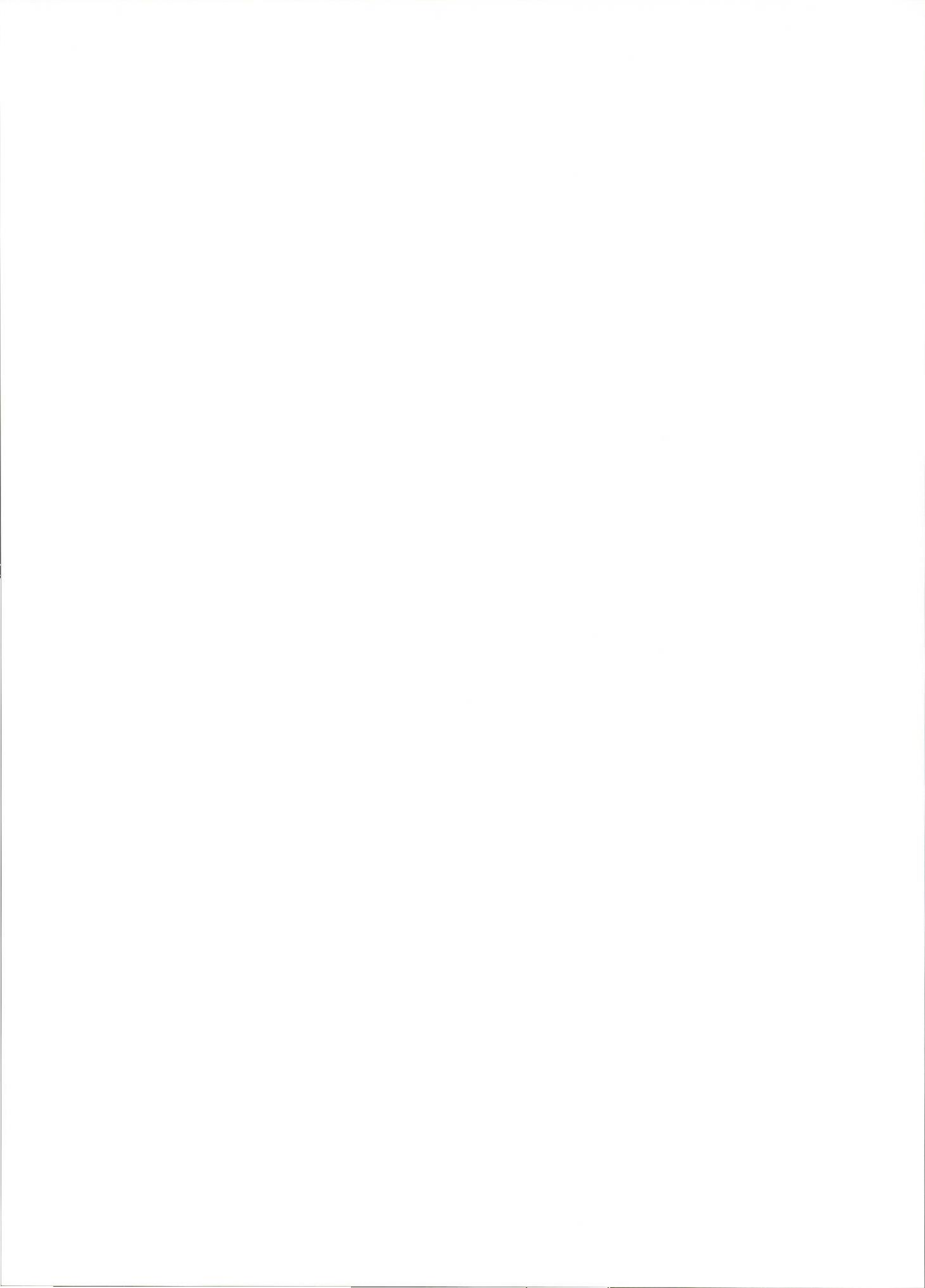


- 통일칼럼

- 현장에세이

- 평화열차

- 참여마당





① 효율적인 사이버(cyber) 통일교육의 실시방향



윤 황

(선문대학교 교수)

지금 우리는 사이버(cyber)시대에 살고 있다. 마우스의 클릭만으로 문자, 소리, 그림,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멀티미디어 학습자료의 전달이 가능한 시대이다. 또한 마우스의 클릭만으로도 가정·사회에서 엄청난 교육자원의 이용이 가능한 시대이다. 사이버시대에서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의한 사이버교육이 중요시되고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과거 산업사회와 달리 새로운 학습교육정보환경을 창출시키고 지식과 정보의 사용 및 유통속도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교육(cyber education)이란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학습교육의 전자학습(electronic learning, e-learning),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의 온라인 통신방식을 이용한 학습교육의 가상학습(virtual learning)과 같은 온라인을 이용한 원격교육(distance education)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사이버교육이란 오프라인 교육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인터넷이나 인트라넷 등 네트워크기술과 교육이 접목된 웹 기반의 학습교육방법, 또한 동일 시간과 동일 장소에 국한된 오프라인 교육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의 온라인 통신 방식을 이용하여 시간 및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말한다.

오늘날 사이버교육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최고 선진국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 보급률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통일교육에서도 사이버교육의 실시는 당연한 일이다.

현재 우리의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원에서 주관하고 있다. 통일교육원에서는 사이버통일교육센터(<http://www.uniedu.go.kr>)를 운영하고 있는 등 체계적으로 사이버통일교육에 임하고 있다. 예컨대 사이버통일교육센터의 2008년도 교육과정에서는 사회통일교육과정(12개), 학교통일교육과정(10개), 공직자통일교

육과정(11개), 남북교류협력과정(3개), 사이버통일교육과정(3개) 등이 운영되고 있다.

그 중에 학교통일교육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도자 육성,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공무원의 새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통일에 대비한 직무역량을 강화하고자 사이버통일교육과정이 개설·운영되고 있다. 사이버통일교육과정에서는 교원원격직무연수반(단기 : 30시간, 2학점), 교원원격직무연수반(장기 : 60시간, 4학점), 공무원사이버교육반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통일교육의 질과 양을 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이버교육의 장점을 보다 확실하게 인식함과 동시에 그 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방향에 대해서도 늘 고민해야 한다. 사이버시대의 통일교육은 사이버교육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이버교육의 장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교수와 학습자 모두에게 교육의 지역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수에게는 인터넷에 접속된 컴퓨터만 있으면 그 어떤 곳에서나 수업지도가 가능하고, 학습자들에게도 장거리 이동과 통학 불가능의 한계를 벗어나 학습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둘째, 대면교육과 같은 일반교육에 비해 비용상 경제적이라는 점이다. 다수 인원들의 교육준비비용(교재비, 숙박비 등)과 교수·학습자들에게도 통학과 숙박비 등의 경비가 일반교육에 비해 상당히 절약된다는 것이다. 이는 교수와 학생의 이동시간적 낭비를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도 포함된다.

셋째, 교육 대상자에게 다양한 내용의 동시적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령·성별·계층·학력별 등에 따른 다양하게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빠르게 전파·습득하는 데에 용이하다는 것이다.

넷째, 교수와 학습자간에 활발한 질의와 응답, 토론과 논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한된 공간(교실, 강당 등)에서보다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과 그리고 시간적 자유로움 등 때문에 질의와 응답, 토론과 논쟁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학습자의 능력과 요구에 따라 학습내용의 진도를 조정하거나 보충·반복학습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남을 의식하거나 자존심의 상처없이 학습자의 능력과 요구에 맞는 자발적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섯째, 다양한 학습자의 교육 요구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강의실과 교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고 해도 사이버교육에서는 강의실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강사만 확보한다면 학생의 개인별 교육과정의 구성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곱째, 교수의 교육내용과 교수법의 질적 우수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이버 교육에서는 교육자료와 교수·학습 과정이 공개되며, 교수·학습의 성과가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이버교육의 장점은 우리의 통일교육방향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겠다. 즉 사이버교육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사이버통일교육이 실시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사이버통일교육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데에 학습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사이버통일교육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에서 실시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여겨진다.

첫째로, 통일교육을 기획하고 지원해야 할 정책 수립자들과 통일교육의 관계자들이 사이버교육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관련 부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최대화시키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발전과 학습교육정보환경과 디지털 문화에 적응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통일교육기법을 재생산·창조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로, 통일교육의 전문적 기능이나 이론을 계승·발전함과 동시에 통일전문가 및 통일교육종사자의 전문성을 계속 확보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로, 통일과 관련된 교양교육·평생교육을 통하여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보급하고 시민성을 중단없이 형성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필요한 통일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편성하여 연중 상시 운영해야 하고, 효과적인 통일교육 등에 관한 교육과정 개선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로, 더욱 사용하기가 쉽고 기능이 강력한 공공 사이버교육 솔루션의 개발·보급과 보다 우수한 사이버교육 설계 이론과 사이버 수업 모형이 개발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곱째로, 사이버교육의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에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내용과 기법을 갖춘 통일교육의 운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이버통일교육의 방향은 현장교육과 대면교육 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방향에서 나아가자는 것이 아니다. 현장교육과 대면교육 등의 통일교육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그 차선택으로 가장 효과적인 사이버통일교육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서는 사이버교육이 차세대 교육방식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⑥ 특별한 곳으로의 초대 - 휴전선에 가면 통일이 보인다



신승호

(월간 「군사저널」 기자)

통일의 생산지 DMZ

DMZ를 가 봤는가? 아니, 휴전선에 가 봤는가? 우리 현대사를 관통하는 역사의 현장, 같은 민족이 서로에게 총뿔리를 60여년간 겨누고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곳, 분단의 상징 휴전선! 특별히 군 생활을 전방에서 한 일부 군 출신이나 특별한 초대에 잠시 다녀온 분들도 다수 있으리라!

남북한을 반토막으로 가르고 있는 휴전선은 155마일(248km)로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에 따라 설정된 군사분계선이다. 서쪽은 예성강과 한강 어귀의 교동도에서부터 개성 남쪽의 판문점을 지나 중부의 철원·금화를 거쳐 동해안 고성·명호리에 이르는 한반도의 중앙을 가로지르고 있다. 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2km씩 분할된 지역이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이다. 이 군사분계선에 남쪽으로 2km떨어진 선이 비무장지대의 남방한계선이며,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2km떨어진 선이 비무장지대의 북방한계선이다. DMZ는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남북간의 적대행위 및 전쟁재발 방지를 위해 설치된 완충지대로서 남측은 유엔군 정전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반세기 동안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해 온 휴전선에 대한 보통 국민의 생각은 매스미디어의 창을 통해 알려진 것이 전부일 것이다. 대표적으로 남과 북의 '국경' 역할을 하는 곳, 또는 민간인통제선, 철책선, 군인초소, 지뢰, 판문점, 통일전망대, 금강산관광 등의 단어를 떠올리게 하는 곳이다. 군사분계선에 대한 이러한 현상은 현실적인 50여년간에 걸친 냉전의 탓도 있겠지만, 통일정책이 진일보했다는, 지난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 소비위주(퍼주기) 통일정책의 한계도 있었을 것이다. 매스미디어의 창을 통해 본 휴전선은 어쩌면 우리에게 분단의 화석화를 가속시키는 개체일지도 모른다.

마치 도시 아이들이 버, 보리는 언제 심어서 어떻게 가꾸어서 생산되는지 모르고 단순히 소비자 역할에 충실한 것처럼, 우리가 통일을 어떻게 가꾸어서 생산해야 할 지 모르고 소비자로서 싸면 먹고, 비싸면 안 먹겠다는 통일의 소비자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이것은 통일에 관한 여론조사가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지난 11월 13일 현대경제연구소의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보고서에서는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매우 좋아질 것' (0.9%) '약간 좋아질 것' (51.7%) 등 비교적 낙관론이 52.6%를 차지하며,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비관론(47.3%)을 약간 앞섰다. 그러나 통일관련 여론조사는 항상 리프비스가 넘친다는 걸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휴전선은 역사적 교훈과 과제로 다가설 필요가 있다. 이상만 가지고 다가가서는 통일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를 것이다. 어떻게 가꾸어서 통일을 생산해야 하는지 휴전선에 가면 그 길이 보일 것이다. 그 동안 통일부의 노력으로 휴전선은 화해와 통일의 출발선이 되었다.

생산지향 통일교육, DMZ관광

휴전선은 안보교육장인 동시에 통일교육장이다. 지난 10월 17일 오전 8시 30분, 서울역 앞에서 약간 들뜬 마음으로 버스에 탔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분단현장 체험교육의 일환으로 사이버통일교육을 수강한 교사들과 통일교육원 관계자들이 연천 열쇠전망대 및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 방문길에 올랐다. 통일교육원은 인터넷을 통해서 초·중·고 교사와 일반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수에 해당하는 사이버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통일미래지도자과정을 개설하여 미래주도형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교원뿐 아니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이버강좌를 개설하여 사이버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어 여러가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번 연천 열쇠전망대 및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 방문도 그 일환이라고 한다.



이 교육 프로그램을 맡은 DMZ관광(주) 장승재 사장은 휴전선을 남북 분단과 남북 평화 통일의 전진기지 및 생태계의 보고이며 관광과 역사의 교육장소로 활용하는 기회의 땅이라고 설파하는 통일교육의 산증인이다. 언론 등을 통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블루오션은 비무장지대이며, 평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반도의 최고의 '관광상품'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휴전선은 역사적 상징성으로 동서냉전체제의 대립과 전쟁의 산물이며, 민족분단을 고착해 왔던 장애물이며, 파멸과 보존의 현장이기도 하다. 최근 평화와 생명의 지대로 부각되고 있고, 그러므로 전쟁과 분단의 상징물인 비무장지대가 평화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었을 때 DMZ의 상징성은 평화·통일교육의 장소로 매력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일까?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이 휴전선을 많이 찾는다고 한다.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관광코스이며 평화·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오두산 통일전망대 방문시 직원이 밝혔지만, 최근 일본에서 수학여행 코스로 꼭 들리는 곳이 통일전망대이며 중국 관광객들도 많은 수가 방문한다고 한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우리 학생들의 방문이 일본에서 수학여행 온 학생수에 절반도 못 미친다고 한다.

현재의 남북상황이 헨델의 '사라방드'와 같이 무겁기만 하다. 원래 이 곡은 정열의 나라 스페인의 대표적인 전통춤이었다고 한다. 남녀가 짝을 이루고 서로 마주보면서 추는 춤곡이었는데, 중세 이 춤이 외설적이고 불경하다고 해서 금지시켰다. 실제로 1500년대에는 사라방드를 춘 사람들을 처벌했다는 기록도 있다. 바로크시대를 걸치면서 춤곡과 상관없이 연주를 위한 기악모음곡이 되었다. 요즘 남북관계가 이 곡처럼 장중하기만 하다.

'군사저널', '군사저널'을 부르는 소리에 이어폰을 잠시 뺐다. 장승재 사장이 DMZ를 소개하면서 잠시 퀴즈를 낸 것이다. "전방 GOP 사단이 몇 개지요?". 잠시 "1사단, 25사단, 28사단..." 헤아리는 동안에 장사장은 자문자답하며 계속 설명한다.

오전 11시, 연천 열쇠전망대에 도착하니 안내 사병이 나와서 반갑게 인사를 한다. 먼저 평화·통일안보현장 체험으로 DMZ 철책선따라 걷기와 평화통일기원 리본달기 이벤트를 가졌다. 이 행사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 최초 평화·통일·안보체험 관광상품으로 상설화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오색 리본에 자신이 쓰고 싶은 통일문구를 써서 철조망에 단 것이다. '평화통일 그날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등 갖가지 문구가 오색 리본에 새겨졌다. 인솔 장교의 안내를 받으며 철조망에 다가섰다. 잠시 인솔 장교의 주의사항을 전해 듣고, 각자의 통일 염원을 리본에 새겨 철조망에 달았다.

그리고 열쇠전망대 주위 철책선따라 걷기를 시작하였다. 약 1km의 철책선에서 북한지역을 조망하면서 분단의 현실을 실감했다. 이러한 행사의 실현은 국방부의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 실천의지가 반영되었을 것이다. 전방견학은 분단의 현실을 보여주는 통일안보교육 목적으로 잠시 보여주는 것이 전부였으나, 현재에는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 관광의 목적으로도 출입이 원활하다고 한다. 현재에는 방문 당일 현장에서 관광객이 출입신청을 하면 방문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는 30일전, '90년대 초는 15일전, 1996년

이전에는 7일전에 관할 군부대에 방문신청을 해야 민간인통제선 북방의 안보관광지 출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아직도 3일전, 7일전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한때 유럽여행에서 베를린장벽 관광은 필수코스라 여길 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다고 한다. 그러나 한 번 가본 사람은 다시는 가지 않는다고 한다. 별로 볼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통독 과정에서 베를린장벽은 충분히 관광명소로서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데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장벽이 허물어지는 감격적인 순간 아무도 수 년 후의 관광사업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단지 냉전의 상징이며 자기 동족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던 장벽에 대한 분노에서 흔적이 안 보일 정도로 거의 모두를 허물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산산조각이 된 돌 조각은 전국 각지 베품시장에서 싸구려 상품으로 나돌았다. 이후 베를린 시 당국은 뒤늦게야 과오를 깨닫고 최근에는 GDP를 이용한 장벽관광안내(4시간에 6 유로)를 내 놓을 정도이다. 물론 장벽관람이 가능했지만 관광상품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베를린장벽을 잃어버린 독일의 실수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이버 통일교육

일행은 열쇠전망대 이벤트를 마치고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로 향했다. 통일전망대로 가던 중 연천에 내려 점심시간을 가졌다. 간단히 점심식사를 하고 강석승 통일교육원 사이버교육과장과 잠깐 동안의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먼저, 통일교육원 사이버교육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질의했다. 먼저 통일교육은 많은 부분이 사이버교육으로 이뤄진다고 한다. 인터넷을 통해서 교직원이나 공무원의 대상으로 사이버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통일교육자료 개발, 통일교육계획 수립과 실시, 통일교육 커뮤니티활동 지원, 시스템의 관리·유지·보수 등이 사이버교육에 관한 일이라고 한다.

“북한을 방문하려면 대한민국 국민은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제 방북을 하려면 통일부(통일교육원)가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강산관광은 현대아산 내에서 자체적으로 관광객에 대해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난번 금강산 ‘박왕자’ 씨의 사건으로 북한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알리는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육원에서는 북한을 방문하려는 우리 국민 누구나 시·공간적 제약 없이 손쉽게 방북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새롭게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라며 통일교육에 대해 설명했다.

통일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자 강석승 과장은 팜플렛을 한 장 보여 주며,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사(2008. 2. 25)에서 밝힌 “남북통일은 7천만의 국민의 염원입니다. 남북관계는 이제까지보다 더 생산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 갔습니다. 남북한 주민이 행복하게 살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라고 통일부의 대북정책 기초를 밝혔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 위치한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이산가족의 망향의 한을 달래주고 통일교육의 체험도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1992년 지상 5층, 지하 1층 건물로 건립되었다. 서울의 젓줄인 한강과 북에서 흘러내리는 임진강이 합류하는 서부전선 최북단 휴전선에 위치하고 있다. 자유로를 따라 동북방향으로는 임진각, 제3땅굴, 판문점과 연계되는 통일안보관광지이다.

일행은 먼저 원형전망실에 들러 안내원의 설명과 북녘 땅을 대형 TV모니터로 보았다. 대형 북한모형지형도를 통해 보다 상세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안내원은 북한의 주요시설, 영농실태, 주민활동을 설명하였다. 이어 북한전시실로 자리를 옮겨 북한주민 생활용품도 전시되어 있어 북한주민들의 생활수준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북한의 교실과 주민의 안방을 실물로 재현해 놓은 북한체험실 코너는 북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통일전시실에는 통일노력의 발자취,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전시해 놓았다. 특히 북한영상관에서는 최근 북한동향 등 시사성 있는 내용을 강석승 사이버교육과장의 통일교육으로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자조적 표현으로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며, 60여년 분단으로 상잔의 아픔을 겪고 있는 민족이다. 이러한 분단의 현장에서 북녘의 산야를 직접 바라보며, 농부의 마음으로 통일을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동서냉전 붕괴되고 한반도에도 봄바람이 10여년에 걸쳐 불었다. 이제는 논에 물을 채우고 미래의 알곡을 위한 통일모심기를 준비해야 할 때이다.





① 인터넷을 통해 통일시대를 대비하자...



이 부 연
(한양대학교 대학생)

요즘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온 나라가 긴장상태다. 북한은 남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며 남북대화 전면 차단을 포함한 중대결단을 실행할 것이라며 강경한 기조로 잇따라 대남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가 북한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에 대한 이해와 북한을 바라보는 바른 시각은 위기상황 일수록 필수적이다.

이것은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통일교육 사이트를 통해 북한을 처음 접하고 통일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어린이들이 재미있고 쉽게 접할 수 있다. 또 연구소의 연구 결과들도 남북관계를 둘러싼 정세를 알아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북한소식이 궁금할 때는 여러 언론이 운영하고 있는 북한전문사이트나 통일전문 언론사이트를 통하면 된다. 통일, 북한관련 소식과 자료들은 쉽게 접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의외로 국내에 많은 통일관련사이트들이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를 위한 통일교육부터 전문연구소까지, 대표적인 통일·북한 관련 사이트들을 정리해 보았다.

<어린이 통일교육>

□ 함께하는 인터넷 통일학교(tongil.moe.go.kr)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고 균형있는 북한관을 세워주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 남북분단역사와 북한바로알기 등 다양한 내용을 알기쉽게 정리해 놓았다. 교사들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게시판도 있어 효과적이다.

□ 통일교육문화원(www.tongiledu.net)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북한과 통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사이트. 통일관련게임과 통일 방송 등 엔터테인먼트 등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어 초등학생들에게 효과적이다.

〈통일, 북한관련 연구소〉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ifes.kyungnam.ac.kr)

동북아 평화정착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소로 1972년 설립되었다. 연구소의 연구기능과 대학원의 교육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활발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 세종연구소(www.sejong.org)

국가대북전략 차원의 학술연구를 하는 순수민간 공익 연구소다. 안보·남북한관계·지역·국제정치 경제 연구분야에서 많은 연구업적을 축적해 오고 있으며,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통일을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자 활기찬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폭넓은 외교.통일.국제정치에 대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 조선일보 통한문제연구소(nk.chosun.com)

조선일보 내의 통일관련 연구소로 북한관련 시사백과, 인물, 지리, 원전 등 다양한 자료를 볼 수 있다. 북한관련 뉴스도 정리되어 있고 북한리포트를 연재되고 있어 다양한 북한 소식을 접할 수 있다.

□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nk.joins.com)

중앙일보 내의 북한연구기관으로 북한과 통일문제, 한국현대사 연구를 하고 있다. 국내외 현대사 자료 발굴, 북한관련 국제학술심포지움, 통일분야 외부 연구프로젝트 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현대사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통일, 북한관련 언론〉

□ 북한 뉴스(www.dailynk.com)

북한민주화네트워크 NGO 활동가들이 만드는 북한전문 인터넷 뉴스. 실시간으로 북한사회의 변화와 탈북자들의 실태를 보고하고 있다. 오랫동안 북한 연구를 해왔던 논설위원들과 전문가들의 논평과 해설을 볼 수 있다.

□ 통일TV(www.tongiltv.net)

통일은 생생하게 보도하는 인터넷 언론방송으로 북한, 통일관련 뉴스를 볼 수 있다. 북한 현장소식, 민간교류, 북남미관계에 관한 다양한 소식들을 접할 수 있다.

〈통일, 북한관련 전문자료〉

□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www.nktech.net)

과학기술부에서 북한 과학기술정보 수집 및 활용 사업을 위해 만든 사이트로 남북간 과학기술 체제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한과학기술 관련 학술지를 볼 수 있고 연구동향도 살필 수 있다.

□ 북한전문검색(www.dprksearch.net)

북한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항목별로 정리해 놓은 사이트.

북한은 폐쇄적인 사회이지만 오랫동안 연구가 이뤄져있기 때문에 노력만 하면 많은 내용을 깊이 있게 알 수 있다. 여러 사이트를 통해 북한관련 소식과 자료들을 알아가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그만큼 통일은 성큼 다가와 있을 것이다



④ 이화여대 북한학협동과정 10주년 워크숍



김은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생)

이화여대 북한학협동과정이 올해로 개설 10주년을 맞았다. 1998년에 홍순호 주임교수가 취임하며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5명의 박사를 배출했으며, 2006년에는 중국 연변대학과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화여대 ECC 이삼봉홀에서 열린 이번 10주년 기념행사는, 북한 관련분야의 여러 인사들과 학생들이 모여 학술대회와 축하행사를 통해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이화여대 북한학협동과정은 1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수립 60년, 남북관계 60년」이라는 주제의 학술회의와, 이에 이은 기념식을 진행했다.

학술회의에서는 그동안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여러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화여대 북한학협동과정 김석향 주임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1차 회의에서는 남북한 대외경제사, 경제교류협력사, 과학기술사 관련 논문이 발표되었고 토론이 이어졌다. 2차 회의에는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남궁곤 교수의 사회로 남북한 정통성 경쟁사와 문화예술교류사 관련 논문이 발표되고 토론이 이어졌다. 이화여대 북한학협동과정의 김석향 주임교수는 여성들이 북한학 전문가로 양성되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거듭 부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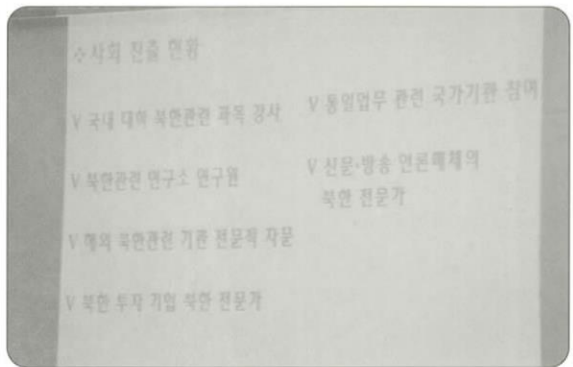
기념식 1부에는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장과 박경서 이화학술원 석좌교수, 홍양호 통일부차관 등 대내외 인사들의 축사와 격려사가 있었다. 박명규 소장은 이화여대의 북한학협동과정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능한 북한학연구과정임을 강조하며 큰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양호 통일부차관은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이지만, 미국의 정권교체 등 한반도를 둘러싼 변화의 국면은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이 변화의 시대에 핵심적 전략이자 비전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기념식 2부에서는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의 건배 제의와 학생들의 플루트공연이 이루어졌는데 기념식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기쁜 마음으로 건배하며 북한학협동과정의 발전을 기원했고, 학생들의 플루트공연은 김철웅 탈북 피아니스트와 함께 북한곡을 연주하여 더욱 의미가 있었다.

북한에 대한 여성학자 및 전문가를 양성하여 국내대학과 연구소 및 국가기관에서의 활동을 목표로 하는 북한학협동과정은, 통일시대를 이끌어 갈 주역들을 양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이화여대 북한학협동과정은 북한연구와 통일연구가 연계되어 있어 매우 효율적이다. 향후 북한 김일성종합대학과의 학술교류와, 중국 베이징대학, 일본 도쿄대학 등과의 교환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참여도 매우 적극적이어서 앞으로의 발전이 더욱 기대된다. 사실 북한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은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 몇개가 되지 않는다. 대부분 학교에서는 몇몇 교양강좌로 개설되어 있을 뿐 전문적으로 북한학을 다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화여대 북한학협동과정을 롤모델 삼아 다른 여러 대학에서도 북한학 연구가 활발해지길 바란다. 북한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이뤄졌을 때 통일시대를 반갑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10주년기념 학술회의〉



〈북한학협동과정 소개〉



〈북한학협동과정 졸업생과 재학생〉



〈10주년 기념축하 건배제의〉



12



- 통일칼럼

- 현장에세이

- 평화열차

- 참여마당

- 특집기사





④ e-통일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송 정 호

(우석대학교 교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통일부가 발표한 「2008년도 통일교육기본계획」은 통일 환경의 변화를 강조하면서 통일교육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증가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정부·민간 각 부문의 교육주체간 정보공유 등 협력시스템이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고 통일교육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정책 추진 기반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통일교육의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일반 공공정책을 논함에 있어 ‘거버넌스’ (governance) 시각을 강조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즉 시민들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 및 주요 사회적 의제의 공론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면서 통치에서 거버넌스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이제 선택이라기보다는 대세로 자리잡아가는 추세이다. 특히 국가에 의한 수직적 통치에서 정부·기업·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행위자의 수평적 협력과 공동 결정이 제고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을 기초로 한 e-거버넌스의 확장은 새로운 정책참여의 대안적 틀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거버넌스를 ‘일반적인 권위행사’로 이해한다면, 그 등장배경은 한마디로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절대적인 통치의 한계를 의미한다. 이는 시민사회가 국가 관할의 공공영역에 관여하는 것, 즉 정책참여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e-통일교육 거버넌스는 공공 및 사적 개인 및 제도들이 통일교육이라는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ICT를 활용하여 관련 공통 업무를 관리하고 자원을 통제하며 권력을 행사하는 무수한 상호협력적인 행위가 취해지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최근 e-거버넌스에 주목하는 이유는 ICT의 발달로 공공정책 결정과정의 비약적인 정보화가 이끄는 대안적인 민주주의적 잠재력과 무관하지 않다. ICT의 발전은 다양한 의사소통의 채널을 제공함으로써 정부와 시민, 시민과 시민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화시켜주고 협의 공간을 획기적으로 확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민주주의 발전과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쟁적으로 ICT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이는 기존의 ‘정

부주도적 거버넌스'를 '시민주도적 거버넌스'로 점차 변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현재 e-통일교육 거버넌스는 이름에 걸맞을 정도의 실질적인 e-정책참여를 양적·질적으로 이끌지 못하고 있다. 통일교육원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또 「참여마당」으로 Q&A, FAQ, 자유게시판, 건의사항, 정보자료교환, Cyber Poll 등을 두고 있으나, 이는 정보제공(information), 시민협의(consultation), 적극참여(active participation)로 정책참여를 구분하는 OECD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소극적인 '정보제공'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 오프라인상으로는 「통일교육협의회」, 「통일교육심의회위원회」와 같은 '시민협의' 제도 및 방법들이 운영되고 있을지 모르나, 적어도 온라인상으로는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정책에 참여시키는 거버넌스 형태는 매우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표〉 정책과정별 온라인 참여 제도 및 방법

정책과정	정보제공	시민협의	적극참여
의제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엔진 ○ 정책이슈의 이메일홍보 ○ 외국어 번역 지원 ○ 내용 및 용어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설문 및 여론조사 ○ 온라인 포럼 ○ 이메일 의견수렴 ○ 게시판 및 FAQ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공동체 ○ 온라인 청원 ○ 온라인 투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 번역 지원 ○ 내용 및 용어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관리 장치 ○ 전문가 인적정보 D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시민배심원 ○ 온라인 공동체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및 용어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포럼 ○ 온라인 시민배심원 ○ 온라인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시민배심원 ○ 온라인 공동체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및 용어 해설 ○ 이메일 뉴스레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포럼 ○ 온라인 시민배심원 ○ 온라인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겟 집단 이메일 리스트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피드백 ○ 온라인 백서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설문 및 여론조사 ○ 온라인 포럼 ○ 이메일 의견수렴 ○ 게시판 및 FAQ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청원 ○ 온라인 투표

자료 : OECD, Promise and Problems of E-Democracy: Challenges of Online Citizen Engagement (2003).

물론 ICT 기반의 확충으로 정책참여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e-정책참여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한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 영역에서 실질적인 e-정책참여율은 5% 내외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사이버통일교육원 온라인 여론조사의 경우만 보아도, 참여인원은 50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정

부부처의 각종 시민협의의 창구들도 의제들만 제시되어 있고 실제 패널참여가 전혀 없거나 시민참여가 거의 부재한 경우가 많다.

이 같은 한계 때문에 e-거버넌스의 방법들이 정책포럼 형식의 참여보다 공급자 중심의 정보제공형 서비스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 각국에서 실시하는 제도와 방법들이 질의응답(Q&A), 정책의견(policy comments), 온라인 패널(online panel), 실시간 채팅 이벤트(live chat events), 온라인 설문조사(online polls and surveys) 등 민원처리 중심의 관리적 접근법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듯이, e-통일교육 거버넌스의 제도와 방법들도 이러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e-거버넌스의 방법들이 정책포럼 형식으로 발전되지 못하는 데에는 정부의 소극성과 무관심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온라인 참여채널만 만들지만 하면 국민들이 자동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하에서 온라인 차원의 정책공동체 운영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되었으나, 정부기관의 일방적인 정책홍보에 그치거나 쌍방향의 의사소통 시스템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정부와 시민 간의 정부주도적 거버넌스가 실패한 데는 정부가 운영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와 운영상의 문제가 더 클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주도의 참여 거버넌스가 지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생성된 온라인상의 민간 포럼(civic web)의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통일교육 거버넌스의 현황을 외국의 성공적인 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의제설정부터 정책한류까지 모든 정책과정이 진정한 의미의 e-거버넌스를 실현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각 주체들이 e-정책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쌍방향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채, 정부의 일방적 의제 설정 또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일방적 의견제시 하에 통일교육을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e-통일교육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이념형(ideal type)의 e-정책참여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e-정책배심제(e-citizen jury)다. 이는 평범한 시민들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이들로 하여금 일정기간 통일교육정책을 검토하고 협의하여 최종적인 권고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둘째, 온라인 포커스그룹(online focus group)이다. 이는 통일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8~10

명의 포커스그룹으로 하여금 일정시간의 토론을 통해 통일교육정책에 대한 검토 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셋째, 디지털 브레인스토밍(digital brainstorming)이다. 이는 정책담당자들과 일반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참석하는 통일교육에 관한 브레인스토밍 세션을 통해 새로운 이슈와 수요를 인지하는 방안이다.

넷째, 온라인 시민패널(e-peoples panel)이다. 이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발된 1,000~2000명의 시민패널을 대상으로 1년에 서너 차례 정책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방안이다.

다섯째, 온라인 공론조사(deliberation e-poll)다. 이는 오프라인상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참여자 중 250~500명 정도를 추출하여 이들로 하여금 2~4일 동안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으면서 정책대안에 대해 토론케한 후 정책대안에 대해 투표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정형화된 방안 중 일부는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정부부처 및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의 통일교육정책 수립·종합·조정을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변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e-거버넌스 활성화 방안들을 도입함에 있어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우선 전문가와 시민의 정책참여 확대가 통일교육정책에 관한 숙의(deliberation)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정책참여 확대가 통일교육정책의 결정에 대한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전문성을 추구하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e-통일교육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부작용이나 한계를 최소화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정책결정과정의 민주성은 정책의 투명성, 책무성 등을 제고시킬 수 있지만, 이는 이른바 빅브라더(big brother), 포퓰리즘, 엘리트주의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정책협의를 위한 참여자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경우 정책과정은 민주적이라 할 수 없고, 광범위한 참여자가 존재하더라도 일부만이 심의를 위한 정보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엘리트주의에 함몰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정부-민간의 상호협력적인 e-통일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시민 모두가 통일교육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이들의 관여에 관한 엄격한 방법론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e-통일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들을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추진해 나간다면, 기존 정부주도적 통일교육 거버넌스를 대체하여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시민사회단체의 거버넌스 역할을 강화하며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 기관의 유기적인 연계구조를 형성하는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① 통일문제의 법고창신(法古創新)의 해안을 기다리며



전 영 선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2008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평양을 다녀왔다. 그리고 11월 4일 개성관광을 다녀왔다. 10월 29일의 방문은 평양대마방직 준공식 참석이었고, 11월 4일의 개성방문은 이대 통일학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이화통일여성최고지도자과정' 프로그램의 일환인 개성방문이었다. 덕분에 한 주일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평양과 개성을 방문하는 흔치 않는 경험을 하였다.

평양이나 개성은 처음 방문하는 곳이 아니었지만 최근의 검색된 남북관계는 여러 모로 긴장하게 만들기에 충분하였다. 부모님들의 걱정이 컸고, 주변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북한에 갈 수 있느냐'는 질문과 함께 '괜찮겠느냐'는 걱정을 해주었다. 통일문제에 크게 관심이 없던 일반인들도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평양방문은 이번으로 세 번째였다. 2005년 역사유적답사팀과 함께 방문한 것이 첫 번째였고, 2007년 김일성종합대학교 전자도서관 개관식 참석이 두 번째였다. 같은 지역을 여러 번 방문하다보면 여러 모로 비교가 안 될 수가 없다. 관심을 두는 것도 방문하는 횟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어느 지역이건 낯선 곳을 방문하게 되면 큰 것부터 보게 되고, 다른 것부터 찾게 된다.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것은 큰 것들이다. 큰 건물이나 탑, 처음보는 풍경들, 우리와는 다른 교통수단이며, 사람들이 입고 있는 복장, 말투에 관심을 갖게 된다. 물어보는 것도 의문형이다. 주로 "저거 뭐죠?", "저거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저러고 있죠?" 등등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말은 안 하지만 대체로 "우리는 안 그런데, 여기는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일단 큰 것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풀리면 그 다음에는 보다 작은 것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주로 그네들이 살고 있는 생활에 관심을 갖는다. 일상생활에 대한 것들이다. "일 끝나고 주로 뭐하세요?", "애들은 공부



〈평양안동대마방직〉

“잘해요?”, “요즘 유행하는 영화가 뭐예요?”, “농촌에서는 겨울 동안 뭐해요?” 등등이다. 개인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상생활에 대한 궁금함을 갖게 된다.

예전에는 북측 사람들을 만나도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지’, 그 사람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궁금해했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아도 전에는 ‘왜 이렇게 경직되어 있지, 왜 이렇게 까맣지’ 하던 것에서 ‘남자들도 화장을 하는지, 로션은 무엇을 쓰는지’가 궁금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신고 있는 신발이며, 옷가지들에 관심이 갔다. ‘입고 있는 옷의 브랜드는 무엇이고, 어디서 만들었고, 가격은 얼마나 하는지’가 궁금했다.

방북 전에 가졌던 생각은 북한이 많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었다. 식량난도 여전하다는 평가가 있었고, 남북관계 경색으로 대북지원도 크게 줄었기 때문이었다. 경제상황이 크게 나아질 여건이 없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예상은 공항도착부터 빛나 갔다.

순안공항 입국절차를 마치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 온 것은 비행기 출발과 도착을 알리는 전광판이었다. 지난 두 번의 방문에서는 우리가 도착한 비행기 알림판 이외의 다른 노선 비행기 스케줄은 없었다.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이 들었다. 이번에는 북경과 심양으로부터 들어오는 비행스케줄과 함께 우리가 타고 간 비행기까지 5편의 비행기 도착알림판이 있

었다. 이틀 후 백두산으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서울로 돌아오기 위해서 순안공항에 들렸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일단 중국을 통해서 예전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평양을 방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호텔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2007년 방북시만해도 별다른 외국인을 볼 수가 없었다. 볼링장이든 탁구장이든 찻집이든 어딜 가든 같이 방북했던 일행들뿐이었다. 호텔을 전세냈다고 느낄 정도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외국인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머물러 있던 4일 동안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 다소 혼란스럽기도 하였다. 그래서 자주 평양을 방문했던 평양대마방직 관계자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최근 평양에서 외국인들을 만나는 것이 크게 늘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사람들의 표정과 행동은 활기찼고, 정치적 발언도 크게 줄었다. 북측 대변인 성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있었지만 별다른 정치적 문제나 남측 사회에 대한 질문은 별로 없었다.

두 가지 이유로 생각되었다. 하나는 방북단 자체가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제인들로 꾸러졌기 때문인 것 같았다. 북측에서도 '민경련' 사람들이 나왔다. 우리 버스에 올랐던 젊은 친구는 단동에서 9년 가까이 사업을 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잘 생긴 남쪽 배우 같은 외모에다 흰한 피부색이며, 자신감 있는 말투는 대외경제사업의 경험이 충분히 배어 있었다.

다른 하나는 역설적으로 정치적인 상황 때문인 것 같았다. 방문기간 동안 매일 저녁 투자 관련 회의가 열렸지만 새롭게 성사된 것은 없었다. 준비나 사업성 때문이라기보다는 북측의 대남정책 방향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것 같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할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 같았다.

시기적으로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몇 가지 징후들이 이제는 정책적 결정으로 확정되고 실질적인 차원으로 넘어갔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중 나온 참사들이 개인적으로 부드럽게 대하여 분위기가 좋았지만 상급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체제의 특성상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무리였던 것 같았다. 남북관계가 예전같이 않을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하였지만 정경분리의 원칙마저도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었다.



〈평양애국모란피복공장〉

3박 4일의 일정 동안 방문한 것은 평양대마방직 준공식을 비롯하여 백두밀영, 만경대고향집, 남포의 서해갑문, 애국모란피복공장, 백두산, 옥류관, 개선문 등이었다. 북한을 방문하면 일반적으로 들리는 코스들이다. 특별히 새로운 것도 없었고, 호기심을 가질 것도 없었다.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고 보기에는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우려가 컸다. 당분간 대규모 방북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방북하였든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제대로 된 남북관계가 자리 잡아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읽을 수 있었다.

분단 국가에서 통일문제는 늘 차지하는 실질적인 비중보다는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통일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단 국가의 통일문제가 언제나 역사적인 맥락에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일상적이고 평범할 지 몰라도 오늘 우리의 행동에 따라 내일이 달라지듯이 오늘의 분단문제도 늘 내일의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해석된다. 물론 어디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일 뿐이겠는가? 개인사를 돌아보아도 마찬가지다. 하루하루에 신중함을 더하고, 행동을 가려야 하는 이유이다. 어려울 때일수

록 근본을 생각하고 본질을 잃지 말아야 한다. 불황에 고전(古典)이 많이 읽히는 이유도 근본을 돌아보고, 거기에서 미래의 길을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통일문제에 대한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지혜가 그 어느때 보다도 필요하다.



📍 사이버 현장교육 참가기



임 상 철
(상지대학교 교수)

백문불여일견의 체험학습

지난 10월 중순경 연천군에 소재하는 최전방 열쇠부대와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탐방하는 통일교육원의 '사이버 현장교육'에 참가하였다. 1일 체험프로그램의 내용은 철책선에 통일기원 리본달기, 철책선 따라 걷기, 통일전망대 견학, 점심식사로 구성되어 있었다. 사이버통일교육을 수강한 중등교사분들과 함께 동행하며 둘러본 휴전선에서 다시금 분단의 현실을 마음과 눈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최측에서 제공한 리본에 통일기원문을 쓴 후 북녘을 향해 철조망에 메다는 세레모니를 하였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평화통일, 대한민국 통일로 영원하길, 통일을 기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은 통일 등 등 각자 정성껏 발원문을 써서 철조망에 메다는 모습은 의연했다. 내가 쓴 글귀는 통일기원(通一祈願)이었다. 서신이 통해야 하며 정보가 통해야 하고 마음이 하나로 통하면 통일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순진한 마음에서 통일(統一)대신에 통일(通一)을 썼던 것이다. 리본달기행사 직후 능름한 안내장교의 인솔 하에 약 800여 미터의 철책선 따라 걸었다.

최근 대국민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사이버 통일교육도 그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며 이처럼 민간인 신분으로 휴전선을 방문하는 체험학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군생활을 해본 사람들에게는 병영생활을 반추하는 추억의 기회가 될 것이며 군생활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새삼 느껴지는 분단의 현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통일체험프로그램은 'DMZ관광(주)'이라는 일반관광회사와 통일부의 신선한 행정력이 맞닿아 '평화통일안보 현장체험'이라는 옥동자가 탄생된 것이다. 본 프로그램에 더하고 싶은 것은 안보교육과 더불어 동시에 북한 음식문화도 체험할 수 있다면 분명 참여자들로부터 더욱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북한의 소탈한 음식 중에는 도토리밥, 풋배추버무리밥, 김치밥, 나리밥, 옥수수가루버무리밥 등이 있다.

이러한 음식들로 식단을 꾸미고 북한의 이름난 술인 들쭉술을 한잔씩 곁들일 수 있다면 북한의 소탈한 음식(북쪽에서는 한이 서린 음식일지라도)은 교육에 참가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웰빙음식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최북단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지구촌에 단 하나 뿐인 한반도 분단의 현장을 외국인들에게 보여주는 외국인 전용 휴전선 관광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외국인이 분단실상을 보고 느끼게 하므로써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확산시키는 외교의 장으로 활용하면 금삼점화가 될 것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분단아픔을 해결해가는 과정의 원군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하겠다.

부분적 실수를 반면교사로 활용하여야

분단 60년간 제대로 된 통일교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갈팡질팡하는 형국의 혼선이 때로는 상존하기도 하였다. 정권유지차원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하였던 과거에는 안보의식은 높았지만 통일의식이 없었다. 또한 민주화 이후 형성되어온 통일분위기는 안보의 중요성을 망각하는 부정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특히 포용정책과 평화번영정책으로 규정되는 지난 10년간은 인적 물적교류와 협력에 의해 남북간 긴장이 완화되었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도 실현되었다. 금강산 관광객은 누적숫자로 190만명을 넘었으며 개성공단은 남북경제공동체의 실험무대로서의 출발점이 되었다. 북녘땅을 밟아본 모든 이들의 눈에는 북한의 체제가 너무나도 특이하다는 점과 우리와 너무나도 큰 경제적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스스로 느꼈을 것이다. 반면에 지난 정부는 자존심을 지키지 못하고 퍼주기만을 하였다는 국민적 비난을 받았으며 남남갈등이라는 새로운 국론분열의 부정적 현상이 심화되기도 하였다. 정부 당국에서는 평화유지비용과 분단비용의 저울질을 명확하게 분석할 필요성도 있다.



현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원칙으로 제시한 화해협력에 바탕을 둔 실용성과 생산성의 원칙, 원칙에 기반을 둔 유연한 접근, 국민적합의의 토대위에 투명한 정책 등은 원칙일 뿐이다. 남북경협 역시 북핵문제진전, 경제적 타당성, 재정부담능력, 국민적 합의 역시 총론적 원칙은 맞겠지만 불평등의 경험일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실천가능한 각론적 묘안을 짜내는 지혜가 더욱 필요하다. 실천과정에 발생되었던 실수를 반면교사로 활용하여 남북간 지속가능한 경협사업을 마련하고 제도적 뒷받침이 되는 대북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형식과 내용면에서도 실용에 바탕을 두고 실리를 극대화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지극히 어려운 통일교육의 난재들

통일문제는 한민족 문제임과 동시에 국제적 문제라는 이중적 특수성이 있는 복잡다단한 문제이며 현실적으로는 어느 한 축도 경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력을 우리 스스로 강화시키기 위하여

국력을 통일하고 신장시켜야 한다. 우리의 과거는 중국의 속국이 되기도 하였고 일본의 식민국이 되기도 했으며 현재는 분단의 현실에 처해 있다.

왜 이처럼 한반도의 운명은 기구하였던가? 자본주의 체제인 세계 최강국 미국과 경제대국 일본이, 사회주의 종주국이었던 세계최대 인적자원국인 중국과 세계최대의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연방이 한반도 네 귀퉁이를 애워싸고 있다.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상충하는 반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냉혹한 국제마당에서 한반도 통일문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주변 열강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공통분모는 한반도의 분단상태가 주변4국의 안전판이며 상호 완충지역이라는 점이다. 경제력도 강화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이 주변열강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국제적 기능도 강화해야 하며 외교력도 높여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어고 지속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엄연한 휴전상태에 놓여있으니 확고한 국가안보도 바탕되어야 한다. 통일은 미래지향적인 과제이고 안보는 현실중심적 과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일정책과 통일교육은 무엇보다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잡힌 대북관이 필요하다

한반도 통일교육이란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교육이다. 남북간 동질성을 회복하고 이질성을 극복해야 하며 한나라 실현교육이 되어야 한다. 대북포용, 평화번영, 상생공영 모두가 최선의 단어이다. 통일정책 역시 한나라실현정책으로 채워져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건전한 안보관과 균형잡힌 대북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전한 안보관을 남북대립으로 등식화하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건전한 국가관 수립으로 진화해야 할 것이다. 소모적이며 비생산적인 남남갈등은 국력의 손실을 가져온다. 물론 자유체제하에서 개인의 의견이 표출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기는 하지만 좌편향 우편향 보다는 중도보수 중도진보를 자임하는 계층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가장 안전한 동반자는 남한'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기대한다

금강산 관광객이 인민군의 총격으로 살해되었던 끔직한 사건이 발생되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는 일방적으로 관광로를 폐쇄하고 통행을 제한하며 개성공단 주재원을 방출하는 일방적이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북한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들이다.

달같이 외부의 힘에 의해 깨지면 파멸을 맞이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난각을 깨면 새생명이 탄생한다는 진리를 터득하여야 한다. 북한이라는 달같이 부화하는데 필요한 따스함은 남한이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움을 나누려한다는 진정성을 믿어야 한다. 지난 10여년간 지속되어 온 남북교류의 물길을 다시 잇는데 북한은 하루 속히 동참하여야 한다.

가장 안전한 동반자는 남한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을 거울삼아 북한사회의 개혁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 메아리 없는 구호와 벼랑끝 전술을 거두고 남북이 상생하는, 남북이 공동번영하는 역사의 장을 열어가는 동반자로 회귀하기를 바란다.



① 통일 시대의 남북 청소년,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기

- 「남북의 청소년」(청전순, 조정기 지음) 책을 읽고서



김은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생)

내일의 통일일꾼이요 통일된 민족의 주체가 될 남북한 청소년들은 약 반세기동안 서로 대립하는 체제 속에서 자라면서 사고방식과 행동기준에 상당한 차이가 생겼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그 사회가 추구하는 이상이 다르고, 현실의 정치, 경제, 문화적인 환경도 달라서 그 속에서 사는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은 다른 점이 많다. 통일교육은 남북의 청소년들이 상대방을 잘 이해하면서 장래의 통일일꾼으로 또 통일된 민족의 주체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사회 현실과 북한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을 잘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006년 발간된 [남북의 청소년]은 북한 청소년들의 학교, 가정, 사회조직, 군대, 직장에서의 생활과 여가·문화생활에 초점을 두고 일상생활의 여러 면에 대해 알려주는 훌륭한 통일교육교과서다.

이 책이 특별한 점은 북한 청소년의 실태파악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일을 이룬 나라들(독일, 예멘, 베트남)의 청소년들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남한청소년이 북한청소년들 대할 때 나타나는 편견과 차별의 극복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통일이 된 지 15년 이 흘렀지만 동서독 청소년들은 기존의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에 서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남한 청소년 역시 반공교육을 통해 고정관념과 편견이 자리잡았기 때문에 북한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이 책은 남북한 청소년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동질의 관념을 찾아간다. 정직, 협력, 신뢰, 이타적인 태도, 충효정신, 기초적 생활규범, 도덕적 충성, 성실, 협동, 우정, 근검절약 등 남북한 청소년들이 배우는 가치들의 공통분모는 의외로 많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체제의 차이는 있지만, 한민족의 전통과 유교정신은 남북이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공통가치이기 때문이다. 서로의 공통분모를 발견하고 부정적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책은 말해주고 있다.

'다름' 에 대한 인정



남한사회에 점점 늘어가는 탈북청소년, 그러나 적응하지 못해 사회의 주변부를 맴도는 수가 늘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은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청소년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들과 또래인 남한청소년들도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다. 이 책에서는 남한 청소년이 북한이탈주민 청소년과 어울리기 위한 7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은 남한 청소년과 다르다는 기본적인 인식에서 출발하기, 둘째, 문화상대적인 관점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셋째,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의 단점보다 장점을 읽어보기, 넷째,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왜곡된 시각을 버리기, 다섯째, 우열의 시각에서 벗어나 지나친 논쟁 피하기, 여섯째,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을 무시하거나 무조건 가르치려는 생각 버리기, 일곱째,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을 민족 공동체적시각에서, 같은 민족으로서, 민족 동질성 회복 측면에서 바라보기.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은 우리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그들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해야 하는 것은 옳지 않음을 남한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다름'의 인정은 남북의 청소년이 함께 살아가는 첫걸음이다.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분단 이후의 세대가 주류를 이루게 되고 한민족의 동질성은 약화되고 이질성을 키우고 있다. 기성세대는 그나마 민족의 동질성을 기억 속에 담고 있지만 청소년들은 그럴 기회조차 없다. 이제 단일민족의 동질성이나 이산가족 문제는 남한 청소년들에게 큰 호소력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통일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이보다는 '통일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가르쳐야 한다. 탈북 친구에게서 느끼는 이질성을 극복하고, 그들을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다름을 인정하는 여유로움을 가르치고 타인을 포용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시민 의식이며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고 이 책은 말해주고 있다.

④ 대북정책 실무자와 대학생의 만남

명지대 북한학과 학술제

지난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명지대학교에서 '실무자에게 듣는다, 대북정책의 어제와 오늘'이란 주제로 제 15회 북한학과 학술제가 열렸다. 이번 학술제에서는 18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민주당 국회의원)의 '미 대선 이후의 한국외교'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19일 조용남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의 '상생과 공영을 위한 비핵개방 3000구상', 20일 정두언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정부와 여당의 대북정책 비전' 강연이 잇따라 진행됐다.

학술제 마지막 날에는 북한학과 학생들이 참석해 '대북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의 토론은 뜨겁고 열정적이었다. "최근 북한은 2012년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사회주의 경제국가 건설을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여전히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며, 앞서서와 같은 일들은 단지 지원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강경한 대북관에서부터 "지난 10년간 서로에 대한 공포감과 적대감이 사라진 것 자체가 변화이며, 김정일이 정상회담 후 방남하지 못한 것은 북한이 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서울의 반대세력을 우려한 것이라 생각된다."라는 유연한 대북관까지 다양한 학생들의 견해를 들을 수 있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해서는 실무자 못지않은 한반도 상황인식과 분석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대북문제에 관한 자신들의 명확한 견해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토론하는 학생들이 곧 미래의 대북정책을 짚어질 실무자이기에 이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 의미 있게 다가왔다.

이번 학술제를 주관한 명지대 북한학과 이상구 학생회장은 "새로운 정부 하에 남한과 북한의 관계, 특히 미 대선 이후에 앞으로 나아갈 한국과 북한의 새로운 지향점을 모색하고자 이번 학술제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이번 강연을 듣고 명지 학우들이 한국의 상황과 대북외교 등에 더욱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안타깝게도 명지대 북한학과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라진다. 내년부터는 신입생을 뽑지 않고, 정치외교학과로 통합될 예정이다. 명지대학교 북한학과는 "통일을 대비한 인재양성"이라는 학과 교육목표 아래 통일대비 교육에 충실하기 위해 1995년 설립됐다. 그동안 통일부 주최 '대학(원)생 통일논문 대회'에 의식 있는 문제제기와 그 대안을 제시한 논문을 응모하여 우수상 2회,佳作 1회에 입상이라는 성적을 냈고, 과의 특성을 살려 농촌봉사활동 대신에 하나원(북한 이탈주민이 남한으로 귀순해서 3개월간 사회적 교육을 받는 곳)에서 탈북자들의 남한사회적응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는 등 학술적, 사회적으로 많은 일을 해왔다. 학부는 없어져도 북한학을 향한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은 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



❶ 북한의 이중성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강 석 승 (통일부 사이버교육과장)

그동안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나 회담과정을 통해 북한체제가 얼마나 '걸 다르고 속 다른' 이중(二重)적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보아왔으며, 그러면서도 그 책임을 기묘묘한(?) 명분과 구실을 내세워 우리 측에 전가하는 구태의연한 북한 측 행태에 실망해 왔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족인 북한의 '나름대로의 위신과 체면'을 심분 고려하여 그들이 진솔된 마음으로 '민족의 통일'이라는 대업(大業)의 광장에 나와 우리와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그 결과 '70년대에는 '7.4남북공동성명'과, '90년대의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2000년대에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일구어내기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실용과 생산성'을 모토로 하는 새 정부가 출범하자 북한의 대남행태는 초기의 관망자세에서 벗어나 지난 4월부터는 우리 대통령을 직접 거명 비난하는가 하면, 10월에 접어들면서는 남북관계 전면 차단 등 대남위협을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지난 11월 중에는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북측단장 명의의 대남통지문 및 북적 중앙위 성명(11.12), 이후에는 "오는 12.1부터 군사분계선 통행제한, 개성관광 중단, 남북열차운행 차당 등"의 일방적 조치를 통보(11.24)함으로써 그동안 '설마' 했던 우리의 우려의 차원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북측이 명목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남한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반복대결정책을 추구하기 때문"이라 밝히고 있지만, 그 저변에는 남북관계의 경색책임을 우리 정부에게 전가하는 가운데 '통미봉남'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조치를 통해 아직까지 우리 사회 일각에 잔존하고 있는 친북좌파세력을 준동시켜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반미-반정부적 여론을 조성하는 가운데 한-미군사동맹 약화 및 국가보안법 철폐와 같은 대남적화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즉 겉으로는 “6.15남북공동선과 10.4선언의 철저한 이행” 등 ‘민족공조’나 ‘우리민족끼리’를 구호로 강조하면서도 정작 그 행동으로는 이와 정반대로 동족인 우리 정부를 매도, 폄하시키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북한과 서로 마주 보면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정착,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민족의 통일문제를 해결해야 할 매우 중차대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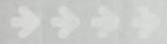
마치 우리의 속담처럼 남북한의 평화정책과 평화통일에 관한 입장과 비전에 대한 ‘동상이몽’(同床異夢)도 이 정도가 되면, 그 끝을 어떻게 상정하고 대처해야 할지 실로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런 북측의 조치에 대해 일희일비(一喜一悲)하면서 낙담해 하거나 비관적 관점에만 안주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북한이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를 통해 우리 정부와 국민들을 위협해도 ‘화해와 협력, 평화를 추구하는 시대적 추세와 역사적 요청’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 정부는 동족인 북한과 함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내실 있고 생산적인 남북관계를 일구어내기 위해 내놓은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은가?

멀지 않아 북한도 우리의 이런 대북정책의 참뜻을 깨달아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차원에서 그들 스스로가 내린 비현실적이고 다분히 감정적인 이번 조치의 우매(愚昧)함과 비현실성을 깨달을 것이라 보인다.

이 때까지 우리는 이번 북측의 조치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평양, 금강산 등에 체류하고 있는 방북자들의 신변안전을 위한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면서 담대하면서도 의연하게 기다려야 할 것이다.



⑥ 「개성공단은 더욱 발전되어야 한다」



이 흥 열

(통일부 정책협력과 주무관)

개성공단 사업은 남과 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의 경험사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개성공단사업은 북한에게는 일감을 주고 일손이 부족한 남한에게는 질 좋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윈윈사업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의 근로자가 함께 땀 흘리는 일터는 체제와 이념을 넘은 화합의 장이었으며, 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도로와 철도는 우리민족에게 평화와 번영의 꿈을 키워 주었다.

김정일 위원장이 노동력 공급 문제를 걱정하던 정주영 회장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 것도 이러한 인식이 바탕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개성공단사업의 의의에 대해서는 남과 북, 해외의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던 바이다. 페리 전 미 국방장관,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무디스의 번즈 부사장, 체코의 마틴 체크 부대사 등 개성공단을 찾은 모든 인사들은 개성공단이 한반도의 미래라고 입을 모았다.

그것은 개성공단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방식, 남북 서로의 장점과 경쟁력을 활용한 생산요소의 결합 등 경제적 요인과 함께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때도 남북 양측의 의지에 의해 지속된 개성공단 사업의 저력 때문이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남북의 협력과 노력에 의해 발전되어온 개성공단이 개성공단과 전혀 관계없는 정치적 판단으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혹시 북한이 남북관계에서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고 한다면, 그리고 필요시 다시 공단을 만들면 되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중대한 착각임을 지적하고 싶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요소가 있다면 나는 “실수를 저지른 장수를 목베기는 쉬워도 살리기는 어렵다”는 오랜 격언을 상기해 보라고 말하고 싶다.

만약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다시는 그러한 공단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일반인의 기억은 그것을 망각할 수 있으나 이익을 추구하는 투자가의 경제의지, 투자마인드는 절대로 그것을 잊지 않는다.

특히 국제사회의 시선은 냉엄하기 때문에 향후 어떤 정세하에서도 북한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단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정상적 경제행위를 해 온 산업단지를 문닫게 했다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을 뒤집어 쓸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이 조치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북한을 믿고 재산을 투자한 남한의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개성공단이야말로 6.15 선언에 의해 탄생했고 10.4선언에 의해 육성된 사업인 만큼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는 것이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의지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선언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로 백마디 떠드는 것보다 개성공단 공장 건설을 위한 벽돌 한 장을 놓는 것이 두 선언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조치라고 본다.

북한은 내외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민족과 미래를 위한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하고 조치해야 할 것이다.

⑥ 사이버 통일연수 후기



정 기 남

(남양주공업고등학교 교사)

사이버 통일교육연수라는 말을 처음 접했을 때 나는 다른 사이버연수와 마찬가지로 크게 어떤 기대와 효과를 바라지 않았다. 단지 자비 부담이 아닌 무료 연수라는 점이 끌렸고 연수학점을 채우고자 했던 나의 바람과 맞아 떨어진 하나의 강좌에 지나지 않았다. 거기다가 조금 보태자면 내가 젊었을 때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군 경력을 통해 알고 있었던 북한에 대한 지식을 한번 되짚어 보고, 현재의 통일기조와 정책이 그 때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자세였다고나 할까? 큰 기대와 욕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누군가 '통일을 왜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통일은 꼭 이루어야 하는 하나의 당면과제로만 인식하고, 인도적인 차원이나 범국가적인 차원의 이루어야 할 숙제 같은 것으로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것이 어떠한 준비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고, 현 정부는 갑자기 찾아올 통일에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통일되었을 때의 닥쳐올 여러 가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과 국제적인 정세와 흐름의 변화 등에는 무관심했던 것이다. 학생들에게 "통일은 꼭 해야 한다" 라고 가르치면서도 왜 해야 하고 통일이 되면 무엇이 좋은지를 피부에 와 닿게 말하지 못했던 내가 새삼 이 연수를 들으면서 부끄러웠다.

특히 이산가족 1세대가 아닌 2세대에 해당하는 나로서는 지금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통일에 대한 절실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더구나 반공 이데올로기의 주입식 교육을 받아온 나 같은 기성세대에게겐 북한은 아직도 두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는 존재라는 인식이 강하다.

김대중 정부의 퍼주기식 햇볕정책을 못마땅해 하면서도, 새로운 정부(이명박 정부)의 보수 강경책도 불안해하는 이중심리가 나에게도 있었다. 그래서 새정부 출범이후에도 오리무중인 남북 관계가 더욱 경색되는 것 같아 불안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통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원격장기통일교육과정(사이버 연수)을 접했던 것은 현재 북한의 실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었고, 무엇보다 현 정부의 통일정책을 정확하

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연수는 크게 사이버 강의와 출석수업 및 시험, 그리고 탈북자와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사이버 강의의 내용은 크게 36개의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며, 각 주제에 능통한 14분의 전문가 교수님들께서 주제별 다양한 내용을 알기 쉽게 강의를 진행하셨다.

통일의 이해에서부터 국제환경변화와 최근 한반도 정세변화, 정부의 대북정책, 남북교류협력, 북한의 실상(통치이념과 정치체제 및 대외정책변화, 군사력, 경제, 문화, 예술)의 내용 및 통일교육에 대한 내용이 그것이다. 각 주제별 여러 교수님들의 강의는 자칫 한 쪽 방향에 치우치지 쉬운 사안을 객관적이면서도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어 좋았다. 무엇보다도 통일의 개념과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어야 하는 이유 등 우리의 통일 환경과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한 논의는 교사인 내가 앞으로 학생들에게 자신 있게 통일 교육을 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 준 것 같아 대단히 만족스럽다.

연수 마지막 날의 오프라인 강의는 내가 “이 연수를 신청하기 잘했다” 라는 생각을 새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일반적으로 사이버 연수는, 출석일에 시험만을 응시하고 종료하여 내심 허탈한 면이 있는 반면, 이번 통일 연수는 사이버상에서 궁금했던 사항이나 다루기 어려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더욱 참신한 느낌이었다. 강의와 토론을 통해 연수중에 가졌던 의문점을 해소해 줌으로써 연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박갑수 교수님의 현 정부의 대북관련 정책과 통일에 대한 특강은 현 정부의 견해와 전문가의 견해를 함께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진솔한 답변은 생동감과 박진감이 넘쳐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강연회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현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은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실천사항으로 먼저, 북한 핵문제 해결을 통한 새로운 평화공동체 형성을 들 수 있으며 둘째,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으로 남북한이 협력을 통해 Win-Win의 호혜적 협력관계조성과 셋째, 인도적 문제 해결을 통한 남북한 주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의 추진원칙으로는 첫째, 국민이 동의하고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내며, 북한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동시에 북한의 발전적 변화를 가져오는 실용과 생산성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하고 둘째,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북한의 개방과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북 핵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원칙의 정책기조를 유지 하되 유연한 접근방식을 갖는 정책을 추진하며 셋째,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대북정책을 전개하고 넷째,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을 조화롭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많은 국민들은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경색된 국면으로 인해 정부의 대북노선을 질책하는 면도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을 위해서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시켜줄 필요성이 제기되

며, 원칙의 준수도 필요하지만 북한의 태도에 따른 유연한 대처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남과 북이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와 협력을 지속함으로써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희망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부는 국민에게 잃었던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강에 이어 탈북자와의 대화의 시간이 이어졌다. 여기에 출연한 탈북자는 김병욱씨로 아직 북한 사투리를 그대로 쓰고 있는, 현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분이었다. 탈북 동기는 자신의 출생신분으로 인한 절망에서 벗어나고 싶어 희망을 찾아 남하했다고 한다. 탈북자와의 많은 질문이 서로 오고 갔으며, 그 내용은 신변잡기의 가정생활 등 가벼운 질문에서부터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의 비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특히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까지 북한관계학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탈북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대북정책에 대한 내용 등 전문적이고 날카로운 이야기도 있었다. 너무 질문이 많아 시간이 부족할 정도의 열띤 질문과 대답, 그리고 토론까지 너무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여기에 사이버교육과장(강석승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여 탈북자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 설명해주는 친절함도 함께 있어 더욱 좋았다. 이런 탈북자와의 대화시간을 통해 현장감 있게 북한실상을 피부로 느낄수 있었으며, 북한주민 입장에서의 통일정책 및 통일의지 등 북한을 바로 알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현재 고등학교의 통일교육 현실은 통일 시대의 주역이 되는 청소년들의 입시위주의 교육, 개인주의적인 성향 등으로 인해 통일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교사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며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편견이나 왜곡된 지식 등을 바로잡고 그간 피상적으로만 알았던 지식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올바른 통일관을 심어주는 것이 절대절명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통일교육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극복하여야 하는데, 대부분 국민들이 분단 상황의 장기화에 따른 민족이질화가 통합과정에서 야기될 비용과 혼란 등의 우려로 통일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되고 있다. 이는 통일이 긴장완화에 따른 국방비 절감 및 국가이미지 제고와 국가신인도 상승에 따른 경제적 실익 등이 통일비용보다 통일의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 부정적 시각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통일이 자신들과는 동떨어진 다른 곳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요즘 학생들에게, “그 많은 통일 경비를 들여서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나요?” 되묻는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왜 통일이 되어야만 하는가를 마음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을 해야겠다.

또한 통일된 한반도에서 살게 될지도 모를 우리 학생들이 통일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운동을 단단히 시켜야겠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통일교육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온라인상의 교육과 오프라인상의 교육이 적절한 안배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특히 오프라인상의 좌담 및 탈북자와의 대화시간이 좀 부족한 감도 있었으며, 사이버 통

일교육이 교사 및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아니라 대상의 범위를 넓혀 일반인에게도 통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져올 수 있도록 통일교육의 저변확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어느날 갑자기 찾아올 통일을 대비하여!



③ 사이버 통일교육 참가기



이 효 선

(축석초등학교 교사)

1. 사이버 통일교육이 뿌린 통일의 씨앗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간다”는 말이 있듯이 올 여름방학 때부터 하루도 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생겼다. 사이버통일교육센터(www.uniedu.go.kr)를 둘러보는 것이다. 그냥 하루를 지나칠 때면 학생들이 먼저 오늘은 “통일로 한 발짝 점프요!”라고 외치곤 한다.

지난 여름방학 때 경남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공무원 원격장기통일교육의 희망자를 접수하는 사이버통일교육센터의 공문을 접하게 되었다. 그러다 별안간 호국보훈의 달 6월에 우리 학급의 한 아이가 했던 말이 불현듯 떠올랐다. “선생님! 통일을 하면 무엇이 좋아요?”하는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의 거침없는 질문이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질문이라 순간 당황했다. 모든 것을 스피치처럼 빨아들이는 우리 아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긍정적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도를 할까하는 내 새로운 고민거리가 되었다. 그동안 당연히 말로만 설명을 한 것에 대한 되새김질이 필요함을 느꼈다. 그러기 위하여 통일교육을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과 통일교육을 하기 위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했다. 그래서 사이버통일교육센터의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장기통일교육은 가뭄에 단비같이 다가온 연수프로그램으로 올 여름방학동안 올인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가슴 벅차게 다가온 것이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공부에 임했던 원격장기통일교육이었기에 ‘좋은 성적’이라는 기대하지 못한 선물까지 받게 되었다.

연수 후 조금 더 자신이 생긴 나는 원격장기통일교육을 통해 얻은 전문적 지식으로 2학기 동안 학급에서 나름의 통일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우리 학급 어린이들의 마음털밭에 통일의 씨앗을 뿌려 가꾸어 왔다. 사이버 통일교육연수를 받으면서부터 우리 학급의 통일교육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하나되는 통일 가꾸기!

사이버 통일교육 | 통일교육의 밑거름

사이버통일교육센터에서 운영한 교직원강좌의 사이버통일교육은 통일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ICT를 활용한 초등학교 통일교육, 정부의 대북정책, 남북교류협력 현황과 과제, 남북한교육통합과 과제, 북한의 경제현황과 개혁·개방 정책 방향 등 여러 강좌를 수강하며 통일정책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북한의 실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됨으로서 통일대비 교육에 대해서도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연수의 마지막 날, 현장연수에서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사이버교육과장님의 연수와 사이버교육과장님의 주도로 이루어진 새터민과의 대화시간은 정말 가슴 뭉클한 시간이었다. 통일정책의 큰 흐름을 안내해 주었고, 새터민 적응을 통해 본 남북한 사회통합의 과제는 통일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아무튼 사이버 통일교육을 수강하는 내내 학생들이 주변국과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고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에 대한 바른 인식을 형성하여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도록 체계적인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사이버 통일교육센터의 '원격교육강좌'와 나란히 팁으로 제공되어지는 '청소년 통일배움터'는 우리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고, 그 외에도 스스로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콘텐츠들이 다수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여 통일교육의 학습동기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청소년 통일배움터 | 1. 통일 관심가지기

일제강점기, 해방, 전쟁과 분단, 이산가족 등을 직접 겪었거나 적어도 공감하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통일교육의 대상이 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먼 옛날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러기에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여 통일에 대한 생각의 싹을 틔우기 위한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이버통일교육센터의 '청소년 통일배움터'는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이 충분한 인터넷 교육장이다.

따라서 여름방학동안 연수한 원격통일강좌의 사이버 원격장기통일교육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청소년 통일배움터'의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한 통일 관심가지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초등학교 3학년이라 만화, 게임, 퀴즈 같은 다양한 자료에 흥미를 보이며 통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청소년 통일배움터'를 즐겨 찾으며 여러 가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학생들이 활동한 그 결과물인 마인드맵 활동물 들이다.



〈그림1. 통일 마인드 맵〉

그리고 환경 게시용 사진자료를 복도 환경 게시용 및 교수·학습활동에 활용하였다. 그 결과 아동들은 다양한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하여 스스로 자료를 찾는 등 '북한 더 알기'에 열심이었다. 또한 게임, 퀴즈문제 풀기 등 모둠별 활동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남북한 생활문화를 탐색하고 통일 후의 사회통합과제까지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의 각오를 다지고 우리나라가 하나되는 통일의 그 날까지 마음의 텃밭에 통일을 가꾸어 가도록하는 '청소년 배움터'는 자양분이다.



〈그림2. 여러가지 통일배움터 활동〉

육색사고모 활동 2. 통일 바라보기

사이버통일교육을 통해 알게 된 전문적 지식은 통일교육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청소년 배움터'를 활용한 통일 관심가지기로 어느 정도 배경지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을 바탕으로 육색사고모활동을 통한 통일 바라보기 수업을 하였다. 백색모를 쓰고 통일에 대한 지식들을 생각하고 말하기, 황색모를 쓰고 통일에 대한 좋은 점을 생각하고 말하기, 흑색모를 쓰고 통일에 대한 나쁜 점을 생각하고 말하기, 녹색모를 쓰고 통일에 대한 종합적인 내 생각 말하기, 청색모를 쓰고 통일에 대한 새로운 내 생각 말하기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통일에 대해 생각하고 말을 해 봄으로써 통일에 대한 마인더를 형성하고 통일을 바라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림3. 통일 바라보기 육색사고모 활동〉

Ⅲ. 학급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사이버 통일교육

사이버통일교육센터의 교직원 대상 원격교육과 청소년 배움터는 한 학급의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킨 티핑 (tipping) 현상을 가져왔다. 교사의 통일교육 의지에 따라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 형성되고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염원으로 통일로의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학생들의 마음텃밭에 뿌려진 통일의 씨앗은 싹을 틔워 통일의 그 날까지 싱그럽게 자랄 것이라 기대한다.



unizine

통 일 교 육 웹 진

- * 발 행 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사이버교육과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인수동)
전화 02) 901-7170~6 / 팩스 02) 901-7177
 - * 인 쇄 일 2008년 12월 일
 - * 발 행 일 2008년 12월 일
 - * 편집·인쇄 (주)상지피앤아이 02) 2264-9500
 - *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www.uniedu.go.kr
-

〈비매품〉

